금주의 법구-〈대길상경〉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하지 말라
슬기로운 이와 가까이 지내라.
존경할 만한 사람을 섬겨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72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11월 15일) 2019년 12월 11일 수요일



백만원력 결집불사에 힘을 보태는 저금통이 전국 각지에서 돌아왔다. 고사리손으로 하루하루 동전을 모았을 유치원생부터 자식의 '건강쾌차 발원'을 적은 소원지까지. 조계종에 답지한 불자들의 원력은 소박하지만 감동적이다. 사진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내빈이 발우저금통 동전을 쏟아내는 모습. 오른쪽 두 번째 · 세 번째가 50억을 기부한 연취 · 설매 보살이다. **사진=박재완 기자**

장자 · 풀뿌리 보시 '백만원력' 이룬다

설매 · 연취 보살, 조계종 백만원력에 50억 원 쾌척

부다가야 한국사찰 건립 발원
사찰명 신라시대 '분황사'로
전국 곳곳 저금통도 돌아와
현재까지 8억4000만원 모연
"한 방울 물 모여 바다 된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제36대 집행부가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백만원력 결집불사. 한 해의 끝을 앞둔 시점에서 현대판 장자의 보시와 전국 불자들의 풀뿌리 원력이 더해지며 사업이 탄력 받고 있다. 특히 37년 전 불연(佛緣)을 시작으로 도반의 길을 걸어온 두 장자(長者)는 부처님의 성도성지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을 짓는데 50억 원을 쾌척하며 조계종 백만원력 결집불사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실명 대신 불명(佛名)인 설매(73) · 연취(67)라고 이름을 밝힌 기부자들은 12월 2일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백만원력결집위원회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불사금 50억 원의 기탁 취지와 의미 등을 설명했다.

설매 보살은 "얼마 전 조계종이 백만원력 결집불사를 통해 부다가야에 한국사찰을 짓는다는 소식을 접했다. 부처님의 성도지에 사찰을 짓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두 도반이 약정한 금액은 50억 원. 백만원력 결집불사 사업 한 가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정도의 큰 금액이다. 설매 · 연취 보살은 37년 전 인연을 맺으며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원력을 회향하고자 기부를 결정했다. 설매 보살이 설판을 서는 의미에서 1억 원을, 연취 보살이 불사의 원만회향을 기원하며 49억 원을 기부한다.

연취 보살은 "몇 년 전부터 가지고 있는 건물을 정리하고, 재산을 좋은 곳에 회향하려고 준비해왔는데 때마침 백만원력 결집불사가 시작됐다"며 "이미 건물 매매는 결정됐다. 내년 2월까지 세부절차를 마치고 현금으로 약정금액을 완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두 도반의 '통 큰 기부'로 부다가야 한국사찰 건립은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될 전망이다. 두 도반은 기부를 결정하고, 조계종에 사찰명을 '분황사'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라 선덕여왕이 분황사를 짓고, 자장율사를 궁으로 불러들여 황룡사 9층목탑을 세우며 외침에 대비하고 평화를 기원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다.

세간에 알려지진 않았지만 두 도반은 불교계 NGO 지구촌공생회의 후원자로서 그간 몽골 유치원과 룸비니 초등학교, 케냐 여학생 기숙사 건립에도 동참하며 '분황유치원' '분황초등학교' 등 '분황'의 이름을 담은 불사를 이어왔다.

두 도반이 강조하는 일명 '분황 시리즈'에는 분황의 범어 '푼다리카', 하얀연꽃의 뜻이 담겨 있다.

설매 보살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에 신라는 국력이 가장 약한 나라였다. 그럼에도 통일을 이뤄낸 건 분황의 참된 의미가 기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도 통일을 해야 하고, 이는 이런 절실한 불심으로 해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조계종의 요청으로 언론 앞에 처음 나섰다는 설매 · 연취 보살은 현대 불교계서도 선지식으로 손꼽힌 통도사 경봉 스님과 송광사 구산 스님 등 여러 스님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지금도 안거마다 선방 대중공양을 빼놓지 않을 정도로 신심이 깊다. 또한 두 도반은 오신채를 먹지 않고, 연취 보살은 매일 참회의 108배를 올리고 있다.

설매 보살은 "3년 전 고려시대 보조지눌 스님께서 정혜결사를 한 은해사 거조암에서 만발공양을 올리며 한국불교에 제2의 정혜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모두가 2600년 전 부처님 성도하신 곳으로 돌아가는 초발심을 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계종은 이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백만원력 결집불사 발우저금통 여는 날' 행사를 열고, 백년대계본부로 회수된 약 2000개의 저금통을 일괄 개봉했다.

사찰과 기부자 이름의 스티커가 붙은 발우모양의 저금통은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백만원력을 이루는 개개인의 원력을 느끼게 했다. 고사리손으로 하루하루 동전을 모았을 '바라밀유치원'부터 자식의 '건강쾌차 발원'을 적은 소원지까지. 조계종에 답지한 불자들의 풀뿌리 원력은 소박하지만 감동적이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도 이를 인식한 듯 보시 공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원행 스님은 "한 방울의 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마침내 큰 바다가 되듯이, 불자들의 원력이 백만으로 모이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부처님 자비광명이 만고에 더욱 빛날 것"이라고 격려했다.

백년대계본부에 따르면 설매 · 연취 보살의 기부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백만원력 결집불사에 모연된 금액은 약 8억4000만원이다. 약정금은 6억5000만원이 남았다.

종단 최고 법계 대종사 12명 확정

조계종 원로회의, 특별전형 심의 만장일치 가결

수행과 지도력의 상징, 조계종 최고 법계 '대종사'에 12명의 스님이 새롭게 이름을 올린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세민)는 12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서 제63차 회의를 열고, 대종사 특별전형 심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직할교구-법인 · 자광 · 동광 스님 △월정사-청우 · 천진 · 혜거 스님 △직지사-정우 · 정광 스님 △해인사-보광 · 종성 · 선용 스님 △고운사-문인 스님이 추후 대종사 법계를 품수할 예정이다.

법인 스님은 만공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46년 해인사서 포산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다. 일본대동문화대학원 문학박사로 현재 천안 각원사 조실이다.

자광 스님은 경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7년 조계사서 경산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다. 군종특별교구장, 호계원장, 동국대 이사장, 법계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원로회의 의원이다.

동광 스님은 청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0년 도선사서 석주 스님을 은사로 수계했다. 도선사 주지, 제13~14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법계위원이다.

청우 스님은 향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5년 백운사서 향봉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다. 총무원 총무국장, 소청심사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낙가사 주지다.

천진 스님은 대휘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7년 영구암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다. 영축총림선원 유나와 통도사 율학승가대학원 운영위원을 역임했다.

혜거 스님은 탄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1년 월정사서 범룡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다. 조계종 포교연구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금강선원 주지다.

정우 스님은 태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0년 직지사서 철우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다. 제11~12대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총무국장을 역임하고 현재 금강사 주지다.

정광 스님은 대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1년 쌍계사서 대월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다. 봉암사 태고선원 선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서운암 선덕이다.

보광 스님은 고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49년 해인사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다. 해인사승가대학 교수와 용탑선원장을 역임했다.

종성 스님은 지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8년 해인사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다. 제8~9대 중앙종회의원, 해인총림선원 도감을 역임하고, 현재 해인사 홍제암 감원이다.

선용 스님은 도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2년 해인사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다. 제11대 중앙종회의원과 초심호계위원, 총무원장 권한대행을 역임했다.

문인 스님은 도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2년 해인사서 영산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다. 제8~10대 중앙종회의원, 고운사 주지, 총무원 총무부장을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BBS 제10대 이선재 사장 취임

12월 2일 취임법회… "디지털 미디어 환경 개선"



BBS불교방송 제10대 이선재 신임 사장<사진>이 공식 취임했다.

불교방송은 12월 2일 오전 9시 서울 마포구 다보빌딩 3층 법당 다보원에서 이선재 신임 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취임식에는 불교방송 이사장 종하 스님과 불교방송 재단 사무국장 현민 스님을 비롯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처장이자 서울 사간동 법련사 주지 진경 스님이 참석했다.

이선재 신임사장은 취임사에서 "미디어의 미래는 디지털과 모바일에 달려 있다"며 "불교방송 콘텐츠를 모바일과 디지털 환경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장은 1986년 KBS 보도국 기자로 입사해 정치외교부장, 워싱턴 특파원, 광주방송총국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전략기획실장 등을 지냈다. 이후 외교부 정책자문위원과 ㈜KBS미디어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이 사장의 임기는 2019년 11월 29일부터 4년이며, 지난 11월 29일 제108차 불교방송 이사회에서 제10대 사장으로 선출됐다.

신성민 기자



삶이 곧 역사… 명성 스님의 모든 것

구순 명성 스님의 삶 모두 담은 〈법계명성 전집 · 전 20권〉 발간

논문 · 편서 · 역서 · 기고문 총망라
"한국불교 한 획 긋는 업적 정리"
후학들 지남의 자료로 활용 발원

2천여 제자 양성, 도량 불사 매진
최초 비구니 전강 전통 확립키도
동영상 · 애니메이션 기록물 공유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은 1952년 해인사 국일암에서 선행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58년 성능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고, 선암사 강사로 활동했다. 1970년대 운문사승가학원 강사와 주지 등을 맡아 현재까지 2100여 명의 제자를 배출하고, 운문사를 전국 최대 규모의 비구니도량으로 발전시켰다.



〈법계명성 전집 · 전 20권〉. 저술과 연구 논문을 비롯해 편서와 역서, 법문, 강의, 기고문, 공예 및 서예 작품, 사진집 등 명성 스님의 일생이 고스란히 담겼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한국불교 역사상 최초의 비구니스님 전집이 불광출판사에서 출간됐다.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의 〈법계명성 전집(法界明星 全集 · 20권)〉이다.

명성 스님의 구순을 기념하며 출간된 〈법계명성 전집〉은 명성 스님의 저술을 비롯해 연구 논문, 편서와 역서, 법문, 강의, 기고문, 공예 및 서예 작품, 사진집, 제자들이 전해 받은 가르침과 여러 인연 등 흩어져 있는 스님의 소중한 자료들을 묶어 모두 20권으로 구성했다.

이번 전집은 한 개인으로서의 명성 스님 생애와 사상을 총망라하면서도 한국 근현대 불교사와 한국 비구니사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법계명성 전집〉 편찬위원장 진광 스님은 간행사에서 "〈법계명성 전집〉 발간은 후학들이 모범 삼아 따르고 배워야 할 지남(指南)의 자료를 남기려는 데 가장 큰 뜻이 있다. 언제나 살아 숨 쉬는 가르침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실천하고 완성시켜야 할 몫이 온전히 우리 후학들에게 남겨져 있음을 공고히 다지기 위해서다. 이번 전집을 발간하면서 명성 스님의 원력과 공덕을 다시 한 번 생각한다. 운문사 가람을 대중 창하셨고, 2100여 명의 비구니 제자들을 키워 내셨으며, 세계 속에서 한국 비구니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등 한국불교 역사에 있어서도 한 획을 긋는 업적을 남기셨다. 이번 전집 발간 역시 한국 비구니 역사에서 길이 남을 최초의 일이라 여겨진다"고 간행의 의미를 밝혔다.

〈법계명성 전집〉에는 명성 스님의 원력과 공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핵심 키워드는 '즉사이진(卽事而眞, 매사에 진실하라)'이다. 스님은 한평생 청정한 계율과 공심(公心)으로 진실하게 살아왔다. 또한 제자들을 자로 잰 듯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엄하게 교육하는 한편, 허물은 모두 덮어주고 모자람은 소리 없이 지원해주는 등 완벽한 스승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명성 스님은 우리나라 최초로 비구니가 비구니로부터 전강을 받는 전통을 만들어 한국 비구니사에 새롭고 큰 업적을 남겼다. 1983년 명성 스님은 평소 존경했던 화산당 수옥 스님에게 법제자로 위패 건당을 하면서 자신의 뿌리를 만들고(수옥 스님은 금룡, 혜옥 스님과 함께 근대의 3대 비구니 강백 중 한 사람이다), 1985년 흥륜, 일진 스님 두 제자에게 전강을 함으로써 기둥을 만들었다. 이 전강 의식은 한국불교 비구니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불사로 한국불교 비구니사에 기록됐다. 비구니 강사가 배출되어 비구니를 직접 가르치는 여법한 비구 · 비구니 '이부승(二部僧) 제도'를 되살리고 끊어졌던 강맥을 복원시킨 빛나는 업적이 아닐 수 없다.

청도 운문사를 한국을 대표하는 비구니도량으로 일궈낸 명성 스님은 1930년 경북 상주에서 출생, 1952년 해인사 국일암에서 선행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58년 선암사에서 성능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고, 선암사 강원 강사를 역임했다. 이후 서울 청룡사 강원 강사를 거쳐, 1970년 운문사 승가학원 강사로 취임, 1977년부터 운문사 주지 겸 학장으로 주석하면서 2019년 현재까지 2100명의 졸업생과 16명의 전강제자를 배출하는 등 비구니 수행과 교육에 헌신했다. 아울러 40여 동에 이르는 전각과 요사채를 신축, 증축, 보수하며 운문사를 전국 최대 규모의 비구니교육기관인 운문승가대학으로 발전시켰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8 · 9대 회장을 역임하는 한편 현재는 운문사 회주, 한문불전대학원 원장으로서 한국비구니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석 ·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저서로 〈초능변식의 연구〉 〈삼능변식의 연구〉 〈불교학논문집〉 〈화엄학개론〉, 역서로 〈구사론대강〉 〈유식강요〉 〈아비달마순정리론〉, 편서로 〈사미니율의〉 〈제경서문〉 등 다수를 남겼다.

49년 동안 운문사를 이끌어온 명성 스님은 12월 5일 운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모두는 불성을 가진 불제자이며 언젠가는 부처가 될 대중이다. 그래서 저는 매일 만불전에 예불을 올린다. 이번 전집이 비구니 최초 전집이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인지도 잘 몰랐고 처음이라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번 불사가 지금까지 없었던 불사라고 하니 조금은 부끄러울 따름"이라며 "다만 한글대장경 318권 중에 제가 번역한 〈아비달마순정론〉 40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불제자로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출가자로 살면서 가장 크게 보람을 느끼는 것은 2100여 명의 제자들이 여러 곳에서 많은 불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며, 그보다 더 큰 보람은 그 제자들이 저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이다. 이번 출간은 후학들을 생각한 불사"라고 출간의 소감을 밝혔다.

편찬위원회는 〈법계명성 전집〉과 더불어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 다큐멘터리: 즉사이진의 삶 △애니메이션(2화): 1화 '감나무를 살게요' 2화 '스님과 스마트폰' △영문판: 명성 스님의 삶을 평전소설로 엮은 〈구름 속의 큰 별 명성(오디오북 포함)〉 △법문 및 강의 영상 등을 함께 제작했다.

모든 기록물은 유튜브 '운문사 명성 스님' 채널에 업로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집을 비롯한 기록물들은 USB로도 배급할 예정이다.

태고종 제15대 중앙종회 구성

61석 중 52석 당선… 12월 19일 의장단 선출

태고종 제15대 중앙종회가 61석 중 52석을 채우며 오는 12월 19일 의장단 선출을 위한 회의를 개원한다.

태고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10월 1일 제15대 중앙종회의원 및 지방종회의원 선출 총선거 시행을 공고하고 11월 20일 선거를 종료했다. 이에 따라 각 교구종무원 30개 선거구와 5개 직능단체 등 35개 선거구 가운데 31개 선거구에서 선거를 실시했다.

제15대 중앙종회의원 당선자는 △서울동부-진해 스님 △서울중서부-정운 스님 △서울강북-혜인 스님 △서울 북부-석화 스님 △경기동부-탄허 · 현진 스님 △경기남부-도암 스님 △경기중부-청담 스님 △경기북부-지관 스님 △인천-능해 · 보광 스님 △충북-상명 · 운산 · 지광 스님 △대전-법륜 스님 △세종충남-일로 스님 △전북-법전 · 청명 · 연수 스님 △전남-보산 · 지공 · 원일 스님 △경북동부-지공 스님 △부산-태명 스님 △경남-정광 · 혜우 · 보행 · 청호 스님 △경남서부-성관 스님 △경남남부-지우 스님 △울산-우진 스님 △부산-혜공 스님 △제주-지화 · 수상 스님 △선암사-시각 · 승원 스님 △청련사-벽산 스님 △백련사-동허 스님 △법륜사-혜일 스님 △전법사회-진화 △청년회-려산 △신도회-대덕 △해외-혜광 스님 △추천직-지홍 · 법신 · 원봉 · 휴완 · 각묵 · 혜성 · 혜종 · 법담 · 자범 스님 등 52명이다. 이 중 24명이 초선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고종 중앙종회는 오는 19일 서울 사간동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에서 개원종회를 열고, 의장단 선출과 제27대 총무원 집행부 부장단 인준, 5대 원로의원 선출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태고종 총무원 관계자는 "종단이 최근 혼란을 겪으며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늦어졌다. 이로 인해 중앙종회 임기가 끝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며 "15대 종회 첫 회의는 총무원이 소집하고, 새로 구성된 종회와 함께 종단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출가희망자 어떻게 이끌까

조계종, 출가지도법사 · 상담사 워크숍

조계종 교육원(원장 진우)은 12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019년 출가지도법사 · 출가상담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워크숍은 출가지도법사 · 상담사 스님들의 출가희망자와 행자 대면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출가희망자를 출가로 이어지게 하는 상담과 입산 후 대중생활에 갈등을 겪는 행자를 위한 집단 갈등관리방법에 대한 전문 강의가 진행됐다. 손강숙 중앙승가대 교수는 '출가희망자 및 행자와의 소통을 위한 상담기법'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했으며, 조형일 한국갈등연구소장은 '집단 갈등관리법'에 대해 강의했다. 또한 '교구에서 행자교육 현황과 방향'을 주제로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은 출가상담사 은산 스님, 인담 스님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출가지도법사의 역할과 교구본사에서 행자교육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나갈지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20년 후에는 불자와 출가자 모두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면서 "출가를 희망하는 이들을 인도하고, 행자들이 사찰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는 만큼 일선에 많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양치후 먹었더니 식중독·배탈·설사가 없어지는 치약

원래의 세정목적 외에 별도의 추가 부담없이
대장균(식중독균), 포도상구균(화농성세균) 99.9% 정균 감소 가능과 탈취 75%, 음이온 134cc, 원적외선방사 90.2% 의 기능으로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BLOOD MATE®(비누)는 아토피, 무좀, 비듬, 발뒷굼치각질, 체취 등 각종 피부질환을 없애주고, 특히 연전현상의 엉켜있는 적혈구가 정상화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허리, 목, 어깨의 통증을 개선하는 효과



BLOOD MATE® ●강비누:120g 개당 25,000원 ●순비누:120g 개당 10,000원

양치후 뱉어내지않고 먹었더니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어지고
숙취에 먹었더니 속이 편안해지며 술이 깨면서 정신이 맑아진다.

ORAL MATE®(치약)는 구강건강(잇몸 붓는것, 피나는것, 아픈것, 이시린것 등)은 기본이고 잇몸이 튼튼하고 치태가 끼지않고 구취가 없으며 하루종일 입안이 개운합니다.
식후에 바로 양치하고 먹었더니 속이 편안해지고 정신이 맑아진다

ORAL MATE® 치약 120g 할인가 개당 15,000원

위와같이 BLOOD MATE®, ORAL MATE®가 별도의 추가 부담없이 공산품인 세정용 비누가 피부, 세포를 건강하게,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의약외품인 치약이 배탈, 설사, 식중독이 없어지고 구강건강을 지켜준다면

이는 식약처가 과대, 과잉광고로 단속을 하여 생산활동을 막을것이 아니라 진위를 확인하여 오히려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적극지원, 보호, 육성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요 국가 산업발전, 해외수출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길일 것입니다.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탈종교화 심화…국민 43% “호감 종교 無”

한국갤럽 ‘한국인 종교 선호도’ 조사 결과 발표

호감도 높은 종교 ‘불교’
가톨릭 호감도 5% 줄어
젊을수록 종교에 ‘비호감’

제도종교 이탈 현상 확인
“불교계 전반적 인식 부족
계층 니즈 파악해 대응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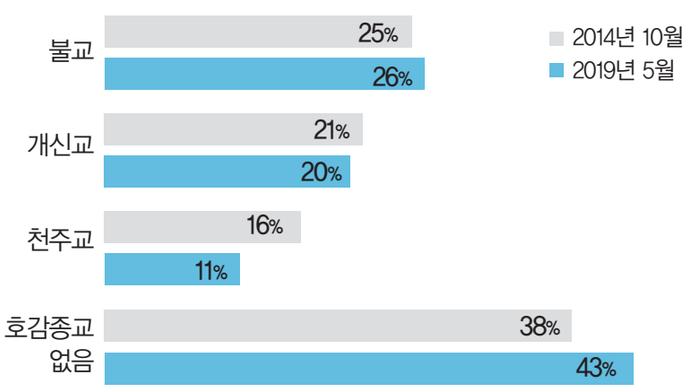
한국 종교 중 국민들에게 가장 높은 호감도를 가진 종교는 불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민 중 절반에 가까운 43%가 호감가는 종교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돼 탈종교 · 탈제도종교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은 ‘한국인이 좋아하는 종교’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만 13세 이상 국민 1700명에게 종교 유무와 관계없이 호감가는 종교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한국갤럽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가장 호감이 가는 종교”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의 43%가 “없다”고 가장 많이 답했다. 불교에 대해 “호감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6%로 제도 종교 중에는 가장 많다. 개신교는 응답자의 20%, 가톨릭은 11%가 “호감이 있다”고 답했다.

선호 종교를 성별로 보면 불교는 남성 23%, 여성 28%의 호감도를 보였고, 개신교는 남성 16%, 여성 24%로 남성보다 여성이 해당 종교를 더 좋게 보는 경향이 있었다. 다만, 가톨릭은 남성 10%, 여성 11%로 남녀 선호도가 비슷했다.



연령별로 보면 불교는 고연령일수록 현저히 호감도가 높았다. 13~18세는 8%, 19~29세는 12%의 호감도를 보였지만, 60대 이상에서는 40%로 나타났다. 반면 개신교와 천주교 선호도는 전 연령대에 걸쳐 비교적 고른 편이였다.

“좋아하는 종교가 없다”고 답한 사람은 여성(37%)보다 남성(50%)에서, 그리고 저연령(13~18세 60% · 19~29세 61%)일수록 더 많았다.

2014년과 비교하면 좋아하는 종교로 가톨릭을 답한 사람은 5% 줄었고, “없다”는 응답은 5%가 늘었다. 불교와 개신교는 1% 이내 차이에 그쳐, 5년 전과 거의 변함없는 수준이었다.

현재 믿는 종교별로 보면 불교 · 개신교 · 천주교 등 주요 3개 종교를 믿는 사람(종교인) 중 약 90%가 자신의 종교를 가장 좋아하는 종교로 꼽았다. 믿는 종교가 없는 사람(비종교인) 중에서는 불교 12% · 천주교 8% · 개신교 6%였고, 74%는 특별히 호감 가는 종교가 없다고 답했다.

이 같은 조사에 대해 전문가들은 탈종교 · 탈제도종교화의 단면이라고 분석하고 불교계의 대응을 요구했다.

박수호 중앙승가대 교수는 “탈종교화 시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면서도 “단순한 호감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에 대한 효용 가치를 현대인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나이가 어릴수록 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원론적이지만 불교계는 계층별 니즈(needs)를 파악해 필요한 것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경쟁에 지친 젊은이들에게 ‘잠시 쉬어가라’ 같은 추상적인 위로가 아닌 실질적으로 휴식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도 “예견된 결과”라면서 “쉽게 불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상담과 문화체험 등을 통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는 ‘탈제도종교화’의 측면에서 문제를 볼 것을 주장했다. 그는 “현재 한국사회는 종교 개념이 개편되고 있다”면서 “현대인들의 종교성이 약화되지 않고 있다. 제도권 종교에 대한 거부감에 이탈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불교는 이 같은 사회적 현상에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한 전반적 인식 자체가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탈제도종교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이며, 면접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2.4%포인트다.

동국대 경주총추위 위원 20명 위촉

경주총추위 제1차 회의… 선거 일정 확정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선출이 본격화된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법산)는 12월 3일 서울캠퍼스 본관 로터스홀에서 경주부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경주총추위) 제1차 회의를 열어 경주총추위 위원장 임명 등 선출 제반 사항을 확정했다.

경주총추위 위원은 지난 11월 20일 제324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경주총추위 규정에 따라 모두 20명이 위촉됐다.

경주총추위 위원으로는 종단 추천으로는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삼혜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혜일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원명 스님(연운사 주지)이, 사회인사 대표로는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구자명 삼화회계법인 대표 △김봉석 K&J 법률사무소 금상 대표가 위촉됐다.

동문대표로는 조덕형 동국대 총동창회 경주동창회장이, 교원대표 석길암 · 하성 · 김진석 · 권오윤 · 김동헌 · 김상무 · 김근우 · 문일수 교수가, 직원대표는 이수우 · 이원재 · 박상익이, 학생대표로는 주재우 총학생회 비대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경주총추위 위원장에는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임명됐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은 “동국대 경주캠퍼스를 명문사학의 반석으로 올리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화합과 소통으로 대학을 이끌어 주실 인물을 후보자로 잘 추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장 선출을 위한 일정도 확정됐다. 경주총추위는 12월 12~13일 동국대 본관 4층 법인사무처에서 지원서를 접수한다.

이후 경주총추위는 12월 16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 접수된 지원자 자격심사, 공개토론 관련 진행방안 정리, 소견발표 관련사항을 논의하며 19일 경주캠퍼스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어 27일에는 경주총추위 4차 회의를 열어 소견발표 및 질의응답을 거쳐 이사회에 추천할 3~5명의 총장 후보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주총추위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진행 일정에 대한 세부적 방법을 논의키로 했다. 실무위원장에는 중앙종회의원 원명 스님, 위원에는 구자명 회계사, 조덕형 경주동창회장, 석길암 · 김진석 교수, 이수우 노조위원장, 주재우 학생대표 등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탄허 스님 생전 마지막 법문영상 공개

한국불교학회, 11월 29일 제1회 탄허학술상 시상식서

1982년 숭산 스님 초청으로 방미
홍법원 10주년 기념법회서 법문
입적 8개월 前 설한 마지막 설법
특유 ‘삼교회통’ 사상 요체 담겨


탄허 스님 마지막 법문 영상 갈무리. 영상은 원적 8개월 전인 1982년 9월 15일 미국 홍법원 10주년 법회서 설한 법문을 촬영한 것이다.

한국불교 근현대 선지식 탄허 스님의 생전 마지막 법문 동영상이 공개됐다.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성철)는 11월 29일 열린 제1회 탄허학술상 시상식 및 추계학술대회에서 탄허 스님의 법문 동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법문 영상은 탄허 스님이 원적 8개월 전인 1982년 9월 15일 미국 홍법원 10주년 법회에서 설했던 법문을 촬영한 것으로 이는 사실상 현재 확인되는 생전 마지막 법문이다.

당시 탄허 스님은 미주포교의 신기원을 이뤘던 숭산 스님의 초청으로 홍법원을 찾았다. 법문 촬영은 아르헨티나 교민 불자가 했으며, 촬영자는 이를 보관해오다가 2000년대 초 서우담 교림출판사 대표에게 전달해 지금까지 전해지게 됐다.

공개된 영상은 탄허 스님이 보여준 ‘삼교회통’의 요체가 담긴 법문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탄허 스님은 “유불선 삼교의 표현이, 불교는 만법(萬法)이 귀일(歸一)이라, ‘우주만법은 하나로 돌아간다’이며 유교에서는 정일집중(精一執中)이라 ‘정미롭고 한결같이 해서 중도를 삼는다’이다. 도교에서는 득일(得一)이 만사필(萬事畢)이라 ‘하나를 얻을 것 같으면 만사는 다 끝난다’고 했다”고 설했다.

이어 “모든 것이 심성(心性)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서 “유교에서는 존양(存養), 도교에서는 수련(修鍊), 불교는 명견(明見)를 말하는 것이다. 존양 · 수련 · 명견이라는 술어에서 벌써 유불선의 심천(深淺)은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불교학회는 제1회 탄허학술상 수상자로 문광 스님을 선정해 이날 상을 수상했다.

문광 스님은 “탄허 스님 연구로 어른 스님의 이름이 들어간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며 “탄허 스님의 사상이 세상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불교출판상 대상 ‘마음을 다스리는 12가지 명상’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이 주최하고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지홍)가 주관하는 제16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에 〈마음을 다스리는 12가지 명상〉(강명희, 담앤북스)이 선정됐다.

불교출판인들의 의욕을 고취하고 불교출판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 제16회 불교출판문화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내 초판 발행된 불교관련 도서를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했다. 총 27개 출판사에서 83종이 접수됐으며, 이미령 북칼럼니스트, 최종남 중앙승가대 교수, 문태준 시인, 교육원 교육부장 진광 스님이 심사를 맡았다.

심사결과 〈마음을 다스리는 12가지 명상〉(강명희, 담앤북스)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우수상에는 〈월인석보, 훈민정음에 날개를 달다〉(정진원, 조계종출판사)와 〈송광사 사찰숲〉(전영우, 모과나무)가 선정됐다. 신설부문인 수향번역상은 〈열반종요〉(원효 저 · 박태원 옮김, 세창출판사)가, 붓다북학술상은 〈백곡 처능, 조선불교 철폐에 맞서다〉(자현, 조계종출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윤호섭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20년도 남경 의대(중의학)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집
•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 학 제 | 모집인원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 5년 | 100명 |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 3년 | 50명
박사과정 | 3년 | 10명
재경대학 | 4년 | 80명 |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군입대 연기 가능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학자금 대출 가능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9년 12월 27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 (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장애아동 위한 10년 불사, 결실 맺다

승가원 12월 17일 안암동서 행복마을 준공

승가원 10년 숙원불사
230억 소요, 5000명 동참
생활 · 치료 시설 포함해
영화관, 자립시설 눈길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승가원 행복마을 전경. 지하 1층 지상 4층의 한옥 양식으로 지어졌다.


승가원 행복마을 내 장애아동 영화관 시설.

장애아동들을 위한 불교계 보금자리인 승가원 행복마을이 10년간의 숙원불사 끝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원종)은 12월 17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승가원 내에서 '승가원 행복마을 준공법회'를 개최한다. 이날 준공법회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발원문 봉독과, 승가원행복마을 건립 경과보고, 봉행사 및 격려사, 축사, 감사패 수여 등이 진행된다. 이어 축하공연과 함께 내외빈들의 승가원행복마을 라운딩도 이어질 예정이다.

승가원 행복마을은 현재 승가원 장애아동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아동들이 보다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다. 1998년 설립된 승가원은 불교계 대표 장애아동 보호기관으로 보호자 아래서 양육이 어려운 장애아동들이 입소하여 생활하며 치료와 사회적응 등을 하고 있다. 현재 50여 장애아동들이 스님과 불자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승가원에서는 2000년 후반부터 시설 노후화로 인한 불사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프로그램을 소화하는 공간이 부족해 재활프로그램조차 순번을 정해 근근이 이뤄졌다. 이에 승가원 측에서는 2009년부터 행복마을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불사금 마련에 들어갔다.

행복마을 불사는 전체 면적 1400여 평 규모에 230억 여원이 투입되는 대형불사인 만큼 어려움도 많았다. 복지기관이지만 행복마을 불사는 국고 지원없이 후원자들의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전액 충당했다. 건립불사가 진행된 10년 동안 약 5000여 후원자들이 적게는 1000원부터 많게는 수억에 이르는 불사금을 보시했다.

이런 가운데 2011년 첫 부지 매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며 본격적인 불사가 시작됐다. 이후 설계업체 선정과 건축허가, 시공업체 선정 등 불사 과정이 진행됐으며 2017년 11월 착공식 후 2년간 공사를 통해 준공법회를 진행하게 됐다.

승가원 행복마을은 복지기관 중 특별하게 현대식 한옥으로 지하1층과 지상4층으로 이뤄져 있다. 장애아동들을 위한 생활실과 세탁실, 식당 등 기본 생활공간에 이들의 학습과 치료를 담당하는 음악활동실과 미술치료실도 들어선다. 영화관과 카페와 같은 문화공간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자립훈련 시설도 조성된다.

출소를 앞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로 일상생활의 다양한 부분을 직접 체험하고 보호자 없이도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밖에 장애인 기본 편의시설인 엘리베이터와 자동문을 비롯해 생활시설 곳곳에서 장애아동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내부가 디자인 됐다.

많은 이들의 정성이 모인 불사인 만큼 승가원 행복마을에는 특별한 점이 있다. 바로 불사 동참자 5000여 명을 위한 후원 감사 장소다. 이 곳에는 정성을 보내준 후원자들의 이름이 명판에 새겨져 전시된다. 고액후원자들은 특별히 승가원을 형상화한 나무에 나뭇잎에 이름이 새겨진다.

준공법회를 앞두고 승가원 이사장 원종 스님은 "승가원 행복마을의 새로운 건립은 정말 많은 이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였기에 가능했다"며 "장애아동들이 우리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부처님 자비사상의 하나다. 앞으로도 장애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제31회 포교대상 시상식 성료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이 12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31회 포교대상 시상식은 단순히 상을 주고 받는 자리가 아닌 불법 홍포를 서원하는 장이 됐다. 이날 시상식장은 포교대상 대상을 수상한 대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과 윤청광 대한출판문화진흥재단 이사장뿐만 아니라 공로상의 서광사 주지 도신 스님, 석불사 주지 경륜 스님 등 수상자들을 비롯해 전국에서 이들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불자 500여 명으로 가득찼다.

이들에게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신심과 발원으로 원력을 굳게 세우고 자신의 여건에 맞는 수행법을 선택해 정진하면 우리 시대 갈등은 화합으로 바뀌고 희망의 불교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수상자들의 수상소감은 저마다 지역포교에서의 감사를 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은 "포교와 전법에 대해 불자분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제7회 인성함양 국제 스키캠프

내년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불교스카우트연맹(연맹장 성행)은 내년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포천 베어스타운 리조트에서 제7회 인성함양 국제 스키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스키캠프에는 한국, 타이완, 말레이시아 등에서 150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참가한다. 겨울철 흰 눈과 별빛의 어우러짐 속에서 정서를 순화하고, 심신을 단련하며, 법우들 간의 우의를 다지고, 청소년 국제 포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스키 용구 착용법, 넘어지는 법, 일어나는 법, 초보 활주법, 방향전환, 활강, 프르그 파렌, 프르그 연속, 한쪽 밀어내기, 프르그 연속돌기 등이 있다.

행사 첫날에는 국제친선의 밤, K pop 공연 등도 준비된다. 2박 3일 숙식비, 수송버스비, 스키강습비, 스키장비 렌탈료, 리프트탑승료, 상해 보험료를 포함한 참가비는 16만원이다.

참가 신청은 2020년 1월 13일까지 불교스카우트연맹으로 하면 된다.

(02)722-9033 노덕현 기자



"불교복지 20년, 천태종도 성장"

천태종복지재단(대표이사 문덕, 천태종 총무원장)은 12월 4일 단양 대명리조트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대표이사 문덕 스님을 비롯한 재단 이사와 명예시설장, 산하 복지관 · 요양원 시설장, 류한우 단양군수, 김영주 단양군의회 의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문덕 스님은 치사에서 "천태종의 시대적 가치를 실현하고 인간존중 윤리경영을 통해 개개인의 삶의 질 개선과 행복을 영위하는 복지국가 건설에 노력하는 복지재단이 되겠다"고 천명했다. 사진은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과 복지재단 장기근속자들의 기념촬영 모습이다. 윤호섭 기자

군불교 중흥 위한 '계룡대 법당' 건립 돌입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51주년 군승의 날 공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군승 파송 51주년을 맞아 군불교 중흥을 위한 계룡대 법당 중창불사 계획을 공개했다.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선묵 혜자)는 11월 28일 용산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에서 제51주년 군승의날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불자대중은 계룡대 영외법당 신축불사에 대한 기대와 원만회향을 기원했다.

법회에는 초대 군종특별교구장을 지낸 조계종 원로의원 일면 스님을 비롯해 전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과 전국의 군법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군종교구에 따르면 계룡대 호국사는 2020년 착공해 2021년까지 10월까지 대지면적 2만5455㎡(약 7770평), 연면적 2330㎡(약 700평) 규모에 지상 3층으로 지어진다. 특히 계룡대가 군 지휘부란 상징성이 있는 곳인 만큼 이 곳에 군불교 역사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전시관을 함께 지어 군불교를 알리는 역할도 담당한다. 법당은 250명이 수용가능한 대법당, 다목적홀과 함께 공양실과 회의실 등이 들어선다. 또 어린이 전용공간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종무소, 군종병 숙직실 등도 건립된다. 불사 비용은 조계종 백만원력결집 기금 60억원과 군 예산 40억원, 군종교구 자부담 등을 통해 충당한다.


계룡대 영외법당 조감도.

그동안 계룡대 호국사의 영외법당 마련은 군불교의 과제로 꼽혔다. 각종 보안절차로 인해 신행활동의 어려움이 컸기 때문이다.

군종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은 "계룡대 육해공군 영외법당 건립의 원력하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2020년 지리산엔 '불교 배움터' 열린다

실상사, 1월 '겨울 배움의 숲' 개최

지리산 실상사에 불교 배움터가 마련된다.

실상사는 내년 1월 '겨울 배움의 숲 강좌'를 열고 초기불교 전문가인 각묵 스님,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 대흥사 일지암 주지 법인 스님에게 초기불교 · 중도 · 화엄을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

배움의 숲의 문을 여는 것은 각묵 스님이다. 스님은 내년 1월 1일부터 5일까지 '초기불교 이해'를 주제로 초기불전에 담긴 불교의 교학과 수행을 전한다.

도법 스님은 1월 8일부터 12일까지 '중도의 눈으로 본 붓다의 삶과 깨달음'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도법 스님은 중도의 눈으로 본 깨달음, 중도, 팔정도, 연기의 개념을 공부하고, 실제 그에 맞춰 사는 일상을 함께 논의한다.

법인 스님은 '해체와 상상'을 주제로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강의를 진행한다. 법인 스님은 교설을 바탕으로 생각의 탄생, 상상과 화엄이라는 주제어를 가지고 담론을 나눌 예정이다.(063)636-3031 신성민 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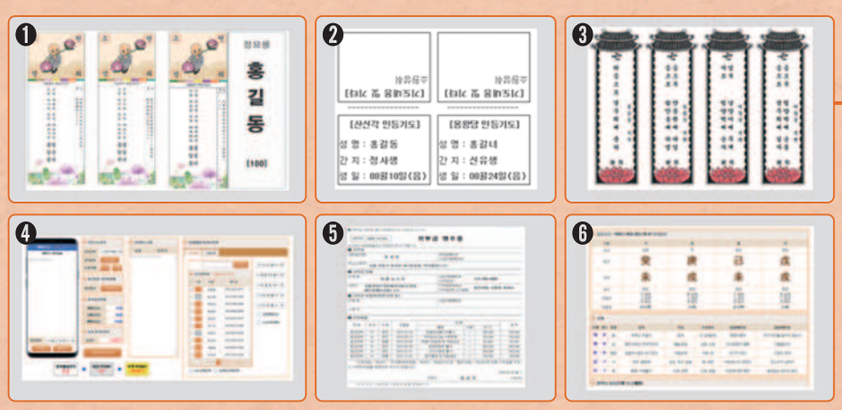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 매주 수요일 밤 10-11시

GM SOFT since 2015
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
동종업계 최저가격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기본 19,800원 | 설치비 · 세팅비 전액무료



프로그램 주요 기능
❶ 연등표 출력
❷ 인등표 출력
❸ 위패출력
❹ 문자발송
❺ 기부금 영수증
❻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지엠소프트 검색
[지엠소프트]를 검색하세요
대표전화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평일 09: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gmst.co.kr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2월 3일 서울 노원구 중계2 · 3동에서 '제6회 따뜻한 정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은 이사장 일면 스님과 연예인 홍보대사들이 독거어르신을 찾아 동계물품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



따뜻한 정 나누기 행사에 앞서 진행된 전달식에서 생명나눔 관계자와 내외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물품은 배우 수지 씨와 팬사이트의 후원금으로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일면 스님과 홍보대사 등이 직접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소외이웃 위한 보시도 '생명나눔'입니다"



일면 스님이 독거어르신을 찾아 동계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노원구 중계 2 · 3동 소외이웃에게
솜이불 · 라면 · 즉석밥 등 전달
배우 수지 · 팬클럽 후원으로 마련
일면 스님 등 가구 방문해 위로
주민 "찾아줘 고맙다" 연신 감사

생명나눔 후원문의 (02)734-8050

본지 · 생명나눔 공동기획

생명나눔은 자비입니다

⑨ 생명나눔 따뜻한 정 나누기 현장

서울 노원구 중계 2 · 3동은 영구 · 장기임대아파트 단지가 넓게 형성된 곳이다. 아파트촌이라서 세대도 계층도 다양하다. 하지만 이런 곳에 보이지 않는 그늘이 더 짙다. 실제 중계 2 · 3동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형편이 어려운 소외이웃들이 많다. 그래서 추운 겨울, 후원의 손길이 더욱 그리워지는 곳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가 연말을 맞아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중계 2 · 3동을 찾았다.

생명나눔은 12월 3일 서울 노원구 중계2 · 3동 주민센터에서 '제6회 따뜻한 정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 같은 생명나눔의 자비나눔 행사는 후원자들이 보내준 사랑과 정성을 지역 소외이웃들에게 희망으로 회향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따뜻한 정 나누기' 행사는 처음에는 서울 마지막 달동네인 백사마을에서 동계용품과 쌀, 라면 등의 물품 나눔을 진행하며 온정을 전했다. 지난해부터는 중계 2 · 3동 영구 · 장기임대아파트에 독거어르신과 독거장애인이 많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동계물품 전달을 진행하고 있다.

중계2 · 3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스님을 비롯해 정현숙 후원회장, 박종우 홍보위원회장, 박원순 서울시장 부인 강난희 여사, 생명나눔 자원봉사자와 불암사 신도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가수 장미화 씨, 개그맨 엄용수 씨, 이광은 前 LG트윈스 감독, 재즈 피아니스트 진보라 씨 등 생명나눔 홍보대사들도 생명나눔이 펼치는 자비행에 동참했다.

이날 생명나눔이 전달한 물품은 추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한 솜이불과 컵라면, 햇반, 물티슈 등의 생필품들이며, 물품은 중계 2 · 3동 주민센터를 통해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 총 200가구에 전달됐다.

특히 이번 나눔 행사의 물품은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SBS 드라마 '배가본드'에서 열연을 펼친 배우 수지 씨가 1500만원을 후원해 마련됐다. 또한 수지 씨의 팬사이트인 'DC갤러리 수지', '배꽃마을' 등에서 200만원을 기부 ·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백사마을에서 시작된 생명나눔의 정 나누기 행사가 독거 어르신 · 장애인들이 많은 중계 2 · 3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배우 수지 씨의 보시행으로 온정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정성으로 마련된 후원 물품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숙 생명나눔 후원회장은 "매년 수지 씨가 마음을 내서 동계물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 가구 등 총 200가구가 선정돼 물품이 전달된다. 나눌 수 있음에 항상 감사하며, 물품을 받으신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시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 부인 강난희 여사는 "올해는 유독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면서 "이럴수록 나눠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 나눔으로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곳이 불국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대표 인사들의 감사 인사도 이어졌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노원구을)은 "국민의 어려움은 나라가 다 책임지기 어렵다. 생명나눔에서 매년 지역을 찾아 봉사와 기부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경철 노원구의회 의장은 "연말연시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이 같은 자비의 손길이 있어서 사회가 따뜻하게 유지되는 것 같다"면서 "오늘 전달되는 이불과 라면은 단순한 공산품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이다. 지역을 대표해 생명나눔과 일면 스님에게 감사드린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주민센터 전달 기념식 직후 이사장 일면 스님과 홍보대사, 자원봉사자들은 직접 물품을 들고 소외계층 가정을 방문했다.

예상치 못한 스님과 연예인 홍보대사의 방문에 지역 주민들은 감사 인사를 전했다. 불자인 박연임(82) 할머니는 스님의 방문에 합장을 하며 연신 고마움을 표했다. 박 할머니는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스님의 도움으로 추운 겨울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찾은 김정순(84) 할머니는 오래 전 수술한 발꿈치가 악화돼 다시 수술할 처지에 있었다. 김 할머니에게 일면 스님과 연예인 홍보대사 엄용수, 진보라 씨는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사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등의 안부 인사를 전했다.

한임숙(79) 할머니 역시 감격하며 "이불만 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라면과 쌀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 대표인 전병달 중계 2 · 3동장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전병달 동장은 "어려운 이웃이 많은 동네라고 했지만, 공동체 사업 참여도가 높고 소외이웃에 대한 기금을 더 많이 내는 정이 가장 많은 동네이기도 하다"며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곳이다. 이곳에 부처님의 따뜻한 가피를 전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 나눔 행사에 대해 이사장 일면 스님은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정 나누기 행사가 올해로 6회를 맞았다. 작은 후원이지만 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자비 · 보시행도 '생명나눔'이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정성을 나눠달라"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국내에 1명뿐인 희귀병을 앓고 있는
내 아이를 전 포기하지 않아요 !

국내에 오직 1명밖에 없는 극 희귀병인 '알런허든더들리증후군'을
앓고 있는 준서는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국가의 지원금만으로
홀로 준서를 돌보고 있는 엄마에게는 고액의 치료비가
너무나도 버겁고 힘겨운 상황입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소외계층 환자들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아픈 환자들을 위해 많은 관심과 따뜻한 보시의 손길을 나눠주세요.

환자돕기 후원계좌
농협 053 - 01 - 243778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울산 정토사, 어울림합창단 정기연주회

회주 덕진 스님 "장엄한 화엄세계 같은 화음"



울산 정토사 불자들이 아름다운 화음으로 부처님을 찬탄했다.

정토사(회주 덕진)는 12월 1일 울주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4회 정토어울림합창단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사진> 음악회는 정토합창단, 정토어울림혼성합창단, 행원합창단, 관현악단 등이 무대를 장식했으며 현악 3중주의 버터플라이 왈츠, 어울림합창단의 불교성악곡, 연꽃향기, 브라보 아코디언 앙상블 파리의 하늘아래 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사했다. 음악회에는 주지 증관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정토사 회주 덕진 스님은 "꽃들의 개성이 어우러져 장엄한 화엄의 세계를 만들듯 합창단의 화음이 연꽃송이 돼 묘음의 바다가 된다"며 "쉼 없는 정진으로 힘들고 지친 모두에게 복된 소리 공양 올림에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주지 증관 스님은 "정토사 가족을 비롯한 모두가 하나 되는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세계유산 표지석 세운 안동 봉정사

높이 2.3m, 너비 4.3m, 무게 30톤 규모



안동 봉정사(주지 도륜)와 경북미래문화재단은 11월 29일 봉정사 주차장에서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봉정사' 표지석을 제막했다.<사진> 안동시가 주최하고 봉정사와 경북미래재단이 주관한 제막식에는 봉정사 주지 도륜 스님과 개목사 주지 각현 스님, 권영세 안동시장, 이재업 제16교구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봉정사에 들어선 표지석은 높이 2.3m, 너비 4.3m, 무게 30톤의 대형바위로 서예가 정현식 선생이 글을 썼다.

주지 도륜 스님은 "봉정사는 현재 다큐멘터리 제작과 학술대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계유산 봉정사의 가치를 알리는 일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영세 안동시장은 "봉정사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내년부터 종합정비계획을 세워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안동시 문화유산이 세계유산, 기록유산, 인류문화유산 등 유네스코 카테고리에 모두 등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음악으로 되새긴 송년 법회

대구 해운정사 송년음악회



대구 해운정사(주지 청명)는 12월 1일 경내에서 제10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송년회 및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해운정사 주지 청명 스님과 (선)승가회 스님, 일심비구니 스님 및 이태훈 달서구청장, 조태흠 해운정사 총괄회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사진>

주지 청명 스님은 개막식 인사에서 "묵은 한 해를 보내고 마무리하는 '송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시기이자 지난 기간 끝내지 못한 것을 마무리하는 때"라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생각하고, 끝남에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내일을 다짐하는 시간을 보내자"고 당부했다.

송년회 및 작은 음악회에서는 해운정사 신도회가 이태훈 달서구청장에게 인재육성 기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어 황기순 희극인 사회로 해운정사 합창단과 임직원 화합 한마당, 불자노래자랑을 비롯해 가수들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고시생 생활공간 '고담정' 개원

천불정사, 현판식 봉행… "고시생 좋은 결과 있길"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절 입구 주택 매입 리모델링
현재 고시 준비생 12명 입소
월 250만원 임대료 사찰 부담
"천불정사 후원에 공부 매진"



천불정사 인근 주택을 매입 후 개조해 고시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난 고담정. 천불정사 주지 고담 스님과 내빈이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부산 천불정사가 고시생을 위한 숙소 '고담정'을 개원했다. 천불정사는 행정고시와 기술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합격을 기원해 인재불사 도량으로 인정받고 있다.

천불정사(주지 고담)는 12월 2일 경내 고담정앞 마당에서 '고담정 개원 현판식'을 봉행했다. 고담정은 천불정사가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편하게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하는 공간이다. 천불정사는 절 입구에 위치한 2층 주택을 매입해 학생들이 거주하기 편하도록 리모델링을 마친 후 12명의 고시생을 맞았다. 이번 현판식을 통해 정식 운영을 알리고 학생들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후원할 예정이다. 고담정은 2층 주택으로 각 층에 방 3개 2인 1실로 구성돼 있다. 남학생 6명과 여학생 6명이 입실해 경제적 부담을 잊고 학업에 매진 중이다. 고담정 개원으로 천불정사는 부산대학교에 월 250만원의 임대료를 10년간 무상으로 지원한다.

개원식에는 천불정사 주지 고담 스님, 이기영 부산대 사회과학대학장, 강재호 행정학과 교수 및 학생들과 불자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해 축하했다. 개원식은 삼귀의와 경과보고,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으며 입시생의 감사인사도 이어졌다.

주지 고담 스님은 무엇보다 운영하다 여건상 문을 닫아야 했던 기존 고담정을 떠올리며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후원할 수 있어 뜻 깊고 기쁘다"고 말했다.

천불정사는 2006년 부산대 근처에 건물을 매입해 무료기숙시설을 운영해오다 2014년 문을 닫은 바 있다.

주지 고담 스님은 "부산대 북문 근처에 고담정을 개원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며 "오늘 그 인연들을 다시 만나 학생들을 위해 고담정 문을 열 수 있어 기쁘다. 고시를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영 부산대 사회과학대학장은 "천불정사가 물심양면으로 학생들을 지원해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왔다"며 "주지 고담 스님을 비롯해 학생들을 격려해 주시는 모든 불자님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인사를 올린다"고 말했다.

김경민 고시생은 "부산대 행정고시반에서 공부하다 고담정에 인연이 닿아 들어오게 됐다"며 "열심히 공부하고 집중해야 할 이런 시기에 천불정사의 후원이 얼마나 감사하고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 진심으로 감사하며 열심히 공부해 좋은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천불정사는 고담정 숙소 운영뿐 아니라 부산대 사회과학대 내 위치한 학습공간 신목정을 후원하고 있다. 신목정은 5급 국가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다. 매년 부산대 신목정에서 공부한 행정고시 합격자들은 천불정사를 방문해 고담 스님에게 감사인사를 올리고 있다. 이번 개원식에는 올해 5급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영민 씨가 방문해 감사인사와 함께 후배들에게 격려사를 남겼다.

이영민 씨는 "그동안 천불정사의 격려와 후원으로 힘들 때마다 힘을 얻고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다"며 "여기 고담정에서 생활하시는 모든 분들 좋은 성과를 얻고 다시 한 번 더 스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천불정사는 개원식 후 소외이웃을 위한 자비의 쌀 20kg 50포대 총 1000kg을 금정구 장전동주민센터에 전달했다. 자비의 쌀은 49일 수자령 기도 회향법회를 맞아 마련됐으며, 천불정사는 매년 4차례 나눠 백미 4000kg을 소외 이웃에게 나누고 있다.

빛고을 광주, 화엄사 포교당 짓는다

구례 화엄사, 광산구 하남지구 지상 4층 규모의 포교당 착공

조계종 제19교구본사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가 광주에 도시포교 활성화를 위한 포교당 건설에 나선다.

화엄사는 12월 2일 광주 하남지구에 '화엄사 빛고을 광주포교당' 건립 착공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을 비롯해 화엄사 교구 말사 주지스님들과 배홍석 광산구의회 의장, 김홍식 구례군의회 의장, 박봉주 기아자동차 노조 광주지회장, 정광학원 임직원 등 200여 명의 대중이 참여해 착공식을 축하했다.



구례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이 광주포교당 착공식에서 포교당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착공식은 불교의례에 이어 경과보고, 합창단 음성공양, 인사말, 축사, 시삽식이 이어졌다. 이날 착공한 빛고을 광주포교당은 지난 1990년 화엄사 주지였던 종원 스님이 발원해 추진됐다. 당시 화엄사는 광주에 포교당을 건립하려는 원력으로 광주 금호지구에 토지 200평과 시주를 받은 100평 등 총 300평을 마련해 놨다.

이후 30여 년간 미뤄진 불사는 덕문 스님이 신임 주지로 오면서, 2018년 11월 금호지구 토지를 매각하고 하남3지구에 895㎡를 매입하면서 다시 본 궤도에 올랐다. 이후 2019년 1월 교구종회의 의결을 통해 마침내 착공식을 개최했다. 빛고을 광주포교당은 2021년 3월 개원 예정이다.

덕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화엄사는 호남을 대표하는 교구본사임에도 지리적 여건상 도심포교에 소홀했다. 하지만 오늘 화엄사 사부대중 모두가 도심포교의 상징인 광주포교당 건립이라는 서원을 세우고 일심으로 노력해 기공식을 맞게 됐다"며 "광주포교당 기공식이 화엄사의 또 다른 천년을 위한 새로운 걸음이자 도심포교와 전법의 백년대계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광주에서 가장 사찰이 없는 곳으로 알려진 광산구 하남지구에 들어설 화엄사 광주포교당은 895㎡의 대지 위에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연면적 1,638㎡에 대웅전과 관음전, 시민선방, 문화교실 등이 들어서 지역포교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부처님오신날 도량장엄등 설치 • 유지관리



연등 자동승강장치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 등



위 패



법당용 연등



공단연등



아크릴한지등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전선, 전구등 공사자재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강의실 중계 불일인문학

‘훈민정음 秘事’ 규명, 불교 시대 과제

주제 : ‘법련사와 월인석보’

정진원 동국대 세계불교학硏 연구교수



정진원 연구교수는… 홍익대에서 〈석보상절〉과 〈월인석보〉를 주제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동국대에서 삼국유사를 주제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로 있다. 정 교수는 주로 〈훈민정음〉으로 이뤄진 불경에 대한 연구와 〈삼국유사〉의 대중화 및 세계화를 위한 국내외 강의, 저작에 힘쓰고 있다. 저서로는 〈중세국어의 텍스트언어학적 접근 방법〉 〈삼국유사, 여인과 걷다〉 〈삼국유사, 자장과 선덕의 신라불국토프로젝트〉 등이 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련사 불자이자 불일합창단원 정진원입니다. 평소 제 자리는 저쪽 합창단 자리이지만 오늘 영광스럽게 이 자리에 승진했습니다. 오늘 법련사와 인연이 된 제 책 〈월인석보, 훈민정음에 날개를 달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 법련지에 연재하였던 내용 중 함께 읽고 싶었던 내불당과 법련화 보살 이야기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자랑할 일이 있습니다. 이 〈월인석보, 훈민정음에 날개를 달다〉는 책이 올해의 불서 우수상에 선정되었습니다. 모두 법련사의 가피입니다.

법련사와 경복궁 내불당

월인석보와도 관계가 있는 세종이 지었다는 경복궁 내불당은 지금 법련사 자리와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내불당은 세종이 경복궁 안에 지은 대궐 안 절이라는 뜻입니다. 곧 억불숭유의 조선에서 왕실의 불교신앙을 위하여 창건된 미스테리한 건축물인 것이죠. 내불당의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석가모니의 진신사리(眞身舍利) 4매와 두골(頭骨)·패엽경(貝葉經)·가사(袈裟) 등을 흥천사(興天寺) 석탑에 안치하였는데, 1418년(세종즉위년) 세종이 내불당을 창건하고 이들을 옮겨 봉안하였다.’

내불당은 억불숭유 시기였던 조선시대 왕실에서 불교의 명맥이 이어온 하나의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이런 상징성이 바로 현재의 법련사에도 이어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련사와 법련화 보살

서울에는 송광사 분원인 절이 두 군데 있습니다. 절묘하게 각기 동시대를 살다 간 두 보살의 보시로 이루어진 절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1996년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길상화 김영한 보살(1916~1999)이 창건공덕주가 된 길상사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주인공 법련화 보살(1920~1973)의 보시로 1973년 이루어진 법련사입니다.

이 법련화 보살의 이름은 김부전. 황해도 출신으로 1920년에 태어나 1973년까지 살다갔으니 54세의 짧은 생애였습니다.

전해지는 첫 번째 이야기는 김부전, 법련화 보살이 스물두 살 때인 194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금강산 정양사에 들른 법련화 보살은 〈금강경〉의 한 구절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以生其心)’, 곧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한 마디에 평생 그를 실천하며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송광사 공덕비에 따르면 한국전쟁이 끝난 1952년, 재산을 희사해 불교양로원을 설립했으며 2년 뒤에는 경기도 의정부에 광명보육원을 건립합니다. 양로원과 보육원은 각각 6~7년 운영한 것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 **억불숭유 시대, 왕실의 불교 관심**
> **훈민정음 경전으로 분명히 드러나**
> **뒷받침하는 역사 기록 부족하기에**
> **훈민정음 비사 연구 불교가 힘써야**

법련화 보살의 보살행은 1950년대 종단 정화불사 한축을 당당히 담당하는 데서 빛을 발합니다. 당시 불교계는 숭유억불의 조선시대를 거쳐 일제 치하 35년 동안 대처승이 대세를 이루는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청정한 전통 수행가풍을 지키려는 불교정화 운동은 ‘동산 스님, 청담 스님, 효봉 스님, 금오 스님’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절마다 대처 스님들이 주지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비구 스님들은 뒷방에서 참선 수행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따라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련화 보살은 정화 본부가 안국동 선학원에 있을 때 금강심 보살, 보현심 보살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후원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세수 67세의 효봉 스님이 1년 동안 선학원에 주석하며 승단 정화불사에 전념할 때 법련화 보살과의 만남은 법련화 보살이 실질적인 발심을 하게 된 커다란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법련화 보살은 서울 선학원에 마야부인회를 발족해 승단을 외호하고 마지막 재산인 자신의 집을 희사해 법련사를 건립하였습니다.

당시 그는 법련사, 단성사, 피카디리 극장 일대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경제력을 바탕으로 스님들을 적극 후원했습니다. 기록을 찾아보면 ‘숨은 알부자, 여걸, 여장부’ 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운허 스님께서 쓰신 ‘청신녀 김법련화 공덕비문’를 보면 법련화 보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공덕비문에는 ‘여기 남달리 신심이 견고하고 희사를 좋아하는 장한 청신녀가 있으니 그가 곧 법련화(法蓮華) 김부전(金富全) 여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법련화 보살은 이렇게 지나가던 길손이었던 저를 불러 법련사와 인연을 맺게 하고 이리저리 남순동자처럼 편력하게 한 뒤 다시 저를 불러 조근조근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시의 마음을 낼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회향할 것인가’ 등등을 말입니다. 이 곳 법련사에는 법련화 보살이 아직까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곳곳에서는 수많은 법련화 보살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말 대향연 〈월인석보〉

처음에 이 강좌를 열고 연재를 할 때만 해도 전혀 예상치 못한 성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안 쓰는 글자들이 눈에 쉽게 들어오지 않아 건성건성 넘어가지는 않을까 하는 노파심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만 아니면 우리는 세종과 세조의 노벨문학상감 글을 육성으로 맛보는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훈민정음에 대한 매뉴얼이라 할 수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세계기록유산으로 선정되었지만 우리는 그 문자의 원리나 체계의 정확한 가치는 정작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한글이 과학적이고 독창적이라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사료가 훈민정음 창제 1년도 채 못 돼 만들어진 24권의 방대한 〈석보상절〉과 그를 시로 지은 〈월인천강지곡〉이라는 것도 아는 사람들이 드물 것입니다.

이 둘을 수정 보완 합편한 것이 〈월인석보〉인데 세종과 세조의 합작품으로서 서두에 훈민정음 축약본까지 들어 있어 일석삼조의 공부를 할 수 있는 텍스트라 할 수 있습니다.

〈월인석보〉 발간의 원동력

소헌왕후는 세종의 부인이자 수양대군의 어머니입니다. 일찍 세상을 떠난 소헌왕후를 위하여 남편과 아들이 극락왕생을 비는 것이 어쩌면 이 책을 출간한 직접 이유일 것입니다. 만든 기간은 1년이 채 안 되지만 조선시대까지 유통되고 가장 많이 회자된 불교 경전,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경, 율, 론’ 삼장을 망라하여 엄선 또 엄선한 요체들을 모아서 ‘각별히’ 만든 책이 바로 〈월인석보〉입니다.

〈월인석보〉 서문에 저간의 사정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12부 수다라를 섭렵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12부 수다라’ 는 〈12부경〉이라고도 하는 석가모니의 교설을 12가지로 분류한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세종과 세조도 불교에 조예가 깊고 세상이 다 아는 박학다식한 천재들이지만 〈석보상절〉 뒤에는 김수온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월인석보〉 뒤에는 신미 대사가 서 있는 모습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김수온은 신미 대사의 동생으로 1446년 ‘증수석가보’ (增修釋迦譜)를 지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월인석보〉에는 훈민정음 창제부터 깊이 관여하고 왕들이 스승으로 추앙해 신하들의 질시를 한 몸에 받았던 신미 대사의 자취가 남아 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지 신중하게 앞으로 훈민정음 불경을 차근차근 천착하며 밝혀내야 할 우리의 숙제입니다.

법련사, 내불당, 〈월인석보〉

억불숭유의 시기에 세종은 불교를 좋아하는 군주가 되어 아들 세조와 함께 〈월인석보〉를 짓습니다. 이 모든 작업이 경복궁에서 이루어집니다. 내불당과 연관이 깊어보이는 법련사에 어쩌면 제가 찾아오게 된 것도 예정돼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련화 보살의 자비희사로 이루어진 법련사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내불당이 되어야 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내불당이 되어 안팎으로 어지러운 나라를 지켜주는 황룡사탑이 되고 외국인이 더 많이 다니는 중심사찰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삼청동 법련사에 〈훈민정음〉과 〈월인석보〉가 날개를 달고 대중들 곁에서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법한 법당에서 기도하면 행복해진다는 주지스님 말씀대로 더 많은 도반님들이 날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법련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 힘닿는 대로 법련화 보살의 보시 정신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영화 ‘나랏말싸미’ 로 일어난 신미대사의 한글창제에 대한 논란은 세종과 세조 당시 훈민정음으로 지어진 경전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런 가운데 12월 1일 법련사 대웅보전에서는 ‘법련사와 월인석보’를 주제로 한 불일인문학 특강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진원 연구교수는 경복궁 내불당 위치와 법련사와의 연관성, 법련사 창건공덕주인 법련화 보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월인석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훈민정음 비사 규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리=노덕현 기자**

제 56회 골굴사 청소년 화랑수련회 겨울캠프

원효스님의 열반 성지! 신라 화랑들의 기상이 담긴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에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신수련을 위한 제56회 화랑수련회 겨울캠프를 개최합니다.
21세기 새로운 리더를 양성하는 신화랑 캠프!
자연 속에서 공동체 수행생활을 체험하며, 호연지기를 기르고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청소년 화랑수련회와 함께 하세요.



■기 간 : 1월 5일(일) ~ 1월 18일(토) 2주 (각 1주간 또는 총 2주간 신청 가능)
■대 상 : 초등학생 및 중학생 (각 주차별 60명)
■수련회비 : 1주 – 42만원 / 2주 – 84만원 (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계좌안내 : 국민은행 823301-01-476572 (예금주: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홈페이지 : www.sunmudo.com
■화랑수련회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sunmudoschool
■예약 및 문의 : 054-775-1689, 744-1689

2020년 동해 해맞이 템플스테이 접수

호연지기와 인성 함양 프로그램
· 선무도 수련과 힐링 명상, 승마/국궁
· 나를 찾는 108배, 예절교육(다도 등)
· 불교 강의와 발우공양 지도

원어민과 함께하는 캠프
· 원어민 영어 회화 수업
· 영어로 배우는 선무도 수련 (원어민 사범지도)

문화 유적지 답사를 통한 현장학습
· 동경주 유적답사 : 기림사. 감은사지. 문무왕릉. 주상절리

다양한 놀이 및 체험 학습
· 전통 과자 및 먹거리 만들기
· 놀이를 통한 마음나누기
· 효도 마사지. 호신술 배우기

본 프로그램은 종교를 초월한 청소년 인성교육을 목표로 합니다

1500년 전통사찰 · 외국인 7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 선무도 화랑학교

종교상담사 자격 교육
수 강 생 귀장술비법 모집안내

찾아온 (시간 · 일진)으로 왜 왔는지?
현재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내방자의 사주만 가지고 궁금증을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육임보다 쉽고 더 확실한 점술학...
(명리학을 잘 몰라도 됩니다)

제1기 종교상담학과 개설
☆ 개강 2020년 1월 6일(화) 오후2시~4시
☆ 강의일시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2시~4시
☆ 선착순 30명 접수 ☆ 강사 : 도호스님

3개월완성으로 상담 가능하며. 누구나 쉽게 배우고, 완벽한 과학적 상담이 가능합니다

수강특전 해동불교대학원 종교상담과 수료증 수여 (총장 명의)

해동불교대학원 서울 종로구 종로17번길45
문의안내 02)741-0495~6

‘무소유’ 전하는 종교 화합의 원찰



김경집의
사찰 속 숨은 이야기
㉓ 서울 길상사



길상사는 한 여인의 깨달음과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이 만나 현재의 모습을 띠게 됐다. 사찰이 아니었지만 사찰로, 현재는 사찰을 넘어선 유형공간으로 변화하는 곳이다.

대원각과 길상화 보살

어느 시인이 표현하였듯 성북동 비둘기는 채석장 소리에 놀라 그곳을 떠났고, 인간은 그 공간에 큰집을 세웠다. 그런 집들 사이로 절인 듯 절이 아닌 듯 들어선 사찰이 있다. 10년 전까지 법정스님이 회주로 있던 길상사이다.

이곳은 처음부터 사찰로 지어진 것이 아니어서 일반 한옥풍이다. 사찰로 변모하기 전까지 매일 밤 음주가무가 질펀하게 열렸던 요정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이권을 좇아 불나방처럼 달려들었다. 인간의 탐욕이 사교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고 이익과 출세를 위한 술잔이 허공에서 부딪쳤다. 서로의 의리를 치켜세우며 결의를 맹세했지만 또 다른 탐욕으로 등 돌리며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치를 떨은 사연도 셀 수 없이 많았다.

불교에서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을 삼독(三毒)이라 한다. 그 가운데 탐욕이 제일 앞선 것은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성냄과 어리석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눈, 귀, 코, 입, 몸, 그리고 마음에 드는 대상을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다. 남들 보기에 이미 충족한 삶이지만 제어하지 못한 탐욕 때문에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한다.

부처님은 교단을 세운 후 사의법(四依法)으로 수행자들을 이끌었다. 식사는 걸식을 하고, 가사는 시신을 쌌던 헝겊인 분소의였으며, 잠은 나무 밑에서 자야 했다. 수행자가 지닐 수 있었던 것은 소 오줌을 발효시켜 만든 진기약 뿐이었다. 모두 탐욕을 경계한 무소유의 실천이었다. 그렇지만 부처님 열반 후 이 법은 유지되기 어려웠다. 결국 지키려는 보수파와 바꾸려는 진보파로 나누어졌고, 분열은 20부파가 생길 때까지 계속되었다.

세간사에도 탐욕은 분쟁을 야기한다. 예전 어른들은 조상 제사를 모신다는 명분으로 장남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었다. 한쪽으로 치우친 상속은 형제들의 분별심을 자극한다. 지분을 요구하는 아우들의 청을 거절한 형 때문에 송사로 가는 일도 많다. 분쟁은 결국 형제들의 왕래를 끊어버린다. 창업한 재벌가의 노쇠와 죽음으로 상속문제가 시끄러운 것도 인간의 탐욕 때문이다.

주지육림이 난무하던 대원각이 부처님을 모신 사찰로 변모하였다. 이곳 주인은 김영한이었다. 뒤에 길상화(吉祥華)란 법명을 받았다. 1916년 서울 관철동에서 태어난 그녀는 가난한 탓에 15살에 시집갔지만 남편이 일찍 죽었다. 살길이 막막했던 그녀는 1932년 조선 권번에 들어가 기생이 되었다. 미모가 뛰어난 덕분에 금방 서울의 권번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기생이었지만 삼천리문학에 글을 발표할 정도로 재능이 뛰어났다. 글씨는 물론 그림에도 일가견이 있었다.

그녀의 재주를 눈여겨 본 신윤국이 1935년 일본으로 유학을 보냈다. 공부하던 중 스승이 투옥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귀국하였다. 함흥 감옥에 갔으나 스승은 만나지 못했다. 그렇지만 한평생 가슴에 품은 사랑을 만났다. 함흥 영생여고보 교사들 회식 장소에 나갔다가 영어 교사 백석을 만나게 된 것이다.

달콤한 사랑은 운명적으로 시작하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운명적이고 달콤한 사랑은 대부분 가슴 아픈 사연을 끝나고 만다. 백석은 부모가 반대하자 만주로 떠나자고 제안하였다. 그녀는 백석을 생각해 가지 않았다. 잠시 떨어져 있으면 될 줄 알았던 헤어짐이 6.25사변으로 영원한 이별이 되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잊기 위해, 또한 자신의 생계를 위해 음식점을 냈다. 그렇게 시작한 사업은 날로 번창하여 우리나라 제일의 요정이 되었다. 대원각을 드나들던 남자들은 미모가 출중한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넌지시 전해보았다. 늘 백석뿐이었던 그녀의 마음속에 다른 남자들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었다. 1999년 83세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사랑하는 남자 만을 그리워하며 삶을 보냈다.

죽음이 임박해지자 김영한은 자신이 운영하던 요정을 법정 스님에게 맡겼다. 아무런 조건 없이 천억에 가까운 재산을 넘긴 것이다. 그녀는 천억이란 돈이 백석의 시 한줄 만도 못하다고 하였다. 이 정도면 방하착의 경지이다.

무소유 정신이 깃든 길상사

이런 거액을 받은 법정 스님 역시 무소유의 수행자였다. 1932년에 전남 해남에서 출생해 목포에서 성장하였다. 한국전쟁을 겪으며 삶과 죽음에 대한 고뇌를 시작하였다. 1953년 전남대 상과대학에 입학하였지만 공부가 들어오지 않았다. 진리의 길을 찾아 떠돌아다니다 1954년 효봉 스님을 만났다. 대학 3년 수료 후 1956년 통영 미래사에서 효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였다.

부처님 법답게 살고 싶었던 그는 세간의 소유를 떠나 출세간에 왔는데 출세간에서 소유한다면 그건 불교의 수행자가 아니라 생각했다. 그래서 사찰의 주지를 비롯하여 이익에 탐하지 않는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겠다고 서원하였다.



가톨릭 성모상 분위기의 길상사 관음상.

길상화 보살의 참 깨달음
무소유 정신 만나며 변화
승속 · 종교간 不二 알려

그의 이력을 보면 그 흔한 사찰 주지를 지낸 적이 없다. 비구계를 받고 서울 봉은사에서 운허 스님과 역경사업을 시작한 이래 1970년대까지 그 일에 헌신했다. 세간에서 말하는 직책을 가져본 적도 있다. 불교신문 편집국장과 역경국장, 송광사 수련원장 및 보조사상연구원장 등이다. 세칭 돈되지 않는 자리였다.

무소유의 삶을 지향하였지만 세상과의 소통은 지속하였다. 4.19와 5.16을 겪으면서 독재화가 지속되자 여러 사회 인사들을 가까이 하면서 민주수호국민협의회와 유신철폐 개헌서명운동에 참여하였다.

바뀌지 않는 사회와 자신의 출가에 대한 검증을 위해 1975년 송광사 뒷산에 불일암을 지어 20년을 홀로 수행자의 삶을 살았다. 속세를 멀리하자 자연이 눈에 들어왔다. 가슴으로 느낀 자연에 대한 서정을 글로 세상과 소통하였다. 그런 마음이 모아져 1994년 순수 시민운동 단체인 ‘맑고 향기롭게’ 를 만들 수 있었다.

무소유의 삶을 살았던 그에게 최대의 고비가 찾아왔다. 1997년 대원각 주인이 무주상 보시를 한 것이다. 천억에 이르는 재물이었다. 사람들의 이목이 성북동에 쏠렸다. 평생 무소유로 살았던 스님은 보란 듯이 시주받은 대원각을 길상사로 탈바꿈 시키고 회주로 지냈다. 2003년 12월 그마저 던져버리고 강원도 산골로 들어가 참선하며 지냈다. 한 달에 한번 법회 때만 길상사를 들렀다.

2010년 3월 입적한 그는 생전에 남긴 유언에도 무소유를 강조하였다. 첫 번째가 상좌들 수행이었다. 깨달음에 이르도록 열과 성을 다해 이끌어 주지 못함을 미안해하며 다음과 같이 부탁하였다. 맏상좌는 앞으로 10년 동안 제방 선원에서 수행에 전념하며, 해제 때에는 불일암에서 수행하여 사제들을 이끌 것을 당부하였다. 상좌들 모두 신의와 예의로 서로 존중하고 합심하여 맑고 향기로운 도량을 이루고 수행할 것을 바랐다.

또한 평소 성격대로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한 모든 출판물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며,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하였다. 말미에 어리석은 탓으로 자신이 저지른 허물은 앞으로도 계속 참회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번거롭고 부질없는 검은 의식을 행하지 말고, 사리를 찾으려고 하지도 말며, 관과 수의를 마련하지 말고, 편리하고 이웃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서 지체 없이 평소의 승복을 입은 상태로 다비할 것을 부탁하였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다면 모두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에 주어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활동에 사용하기를 당부하였다

종교화합의 상징 길상사 관음상

준 자와 받은 자 두 분이 떠난 길상사에는 미소를 머금은 관세음보살상이 불자들을 반긴다. 가만히 보면 전통적인 관음의 상호가 아니다. 어딘지 모르게 가톨릭 성모상의 분위기가 풍긴다.

이 관음상을 조각한 작가는 천주교 신자 최종태였다. 서울대 미대교수를 역임한 그는 천주교 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술가로 꼽힌다. 전국 유명성당과 성지 수도단체에 한국적 순교자상과 성모상 등을 봉안한 작가였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지만 불교와 인연도 남달랐다. 대학시절 서울 대각사에서 3개월간 반야심경과 금강경 등 불교 교리를 집중적으로 공부해 불경에 대해 눈이 열릴 정도였다.

불교문화에 관심이 많은 그였지만 실제 관음상을 조성해달라는 법정 스님의 청을 듣고 많이 고민하였다. 가톨릭 원로신부로부터 교리적으로 문제될 게 없으니 흔쾌히 하라는 말을 듣고 마음을 굳혔다. 젊었을 때부터 한국미술의 원류가 불교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그는 신앙의 본향은 가톨릭이지만 오랫동안 천착해온 한국적 예술의 본향은 불교였다. 젊은 날 불교미술을 접하면서 백제관음의 미소를 재현하고 싶은 열정을 숙원처럼 품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좋은 작품을 이룰 수 있는 인연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관음에 대해 잘 몰랐던 작가는 법정을 만나 머리에 쓰고 있는 관과 손에 들고 있는 병 그리고 손바닥을 펼쳐 올린 까닭을 물었다. 스님이 화관(花冠) 정병(淨甁) 그리고 세상의 괴로움을 구제(救苦)라고 답했다.

짧은 물음에 외마디 답이었다. 작가는 ‘꽃 관, 맑은 물, 세상고통을 구한다.’ 는 세 마디 말을 듣는 순간 작품은 마음속에 만들어졌다. 다음은 좋은 돌을 구해 조성하는 일이었다. 마음에 느낌이 온 일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법이다.

이렇게 완성된 관음상은 전통적인 양식보다 현대적 조형미를 갖추고 있다. 백제관음의 숭고미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아름다움이 베어있다. 부드럽고 긴 곡선의 목선 위로 보이는 얼굴은 중생의 고통을 안은 삼매의 미소가 깃들어 있다. 정병을 감싸 안은 손이 불상의 중앙에 자리 잡아 안정감을 주며 단조로움을 잊게 해준다. 아래 부분은 옷의 잔주름을 제거, 현대적 감각을 최대한 살렸다. 작가 스스로 한국적 아름다움의 진수를 담은 관음상을 재현했다는 점에서 흡족하며, 불교와 가톨릭 양쪽에서 환영을 받아 기쁘다고 술회하였다.

그렇게 조성된 관세음보살상은 길상사 앞마당에서 불자들을 반기고 있다. 점안식 날 법정 스님은 “관세음보살과 성모마리아는 그 상징성이 같다”고 말했다. 작가는 “땅에는 경계가 있지만 하늘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종교가 울타리를 허물면 한마당이 될 것입니다”고 화답하였다.

종교의 가치는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다. 신의 뜻으로 구원받던 무소유를 실천하여 스스로를 구원하던 간에 목표가 동일한 점에서 두 분의 소리는 不二이다.

길상사에 가면 참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한다. 사랑, 무소유, 그리고 종교 간의 상생. 세속적인 주제에서 불교정신 그리고 종교 간의 화합까지 간단한 단어이지만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다. 탐욕에 물들고 세상사에 지친 우리의 정신을 맑고 향기롭게 하는 사찰이다.

〈동산불교대학 사찰역사문화연구회 지도교수〉





또 하나의 시간을 매듭지으며…



남혜경의
Buddhist Coaching

㉓ 나의 속도에 맞는 인생



그림 · 박구원

그 계절이 또 왔다. 찬바람에 옷깃을 여미어도 마음이 움츠러드는 세밑. 달력의 마지막 장을 들추고는 손가락 사이로 흘러간 시간을 아쉬워하며 한 해를 매듭짓고 또 새로운 해를 맞아야 한다. 그날이 그날인데 그어놓은 금을 넘으면서 나이라는 숫자는 늘어가고 눈 밑의 잔주름도 몇 개는 늘겠지. 책상 위 다이어리나 수첩 한 귀퉁이, 아니라면 마음 한 구석에 새겨놓았을 2019년 정초의 계획은 몇 개나 완성되었을까. 이제 새로운 다짐으로 그 자리를 메워야 하는 건지 마음이 허허롭다.

세월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질량과 부피의 시간이다. 그래서 흘러가는 시간이 안타깝다. 나에게만 있는 고유의 인생 시계가 있다면 모두의 세월에 맞추느라 힘겹지 않을 텐데 말이다.

인경씨 코칭 스토리 '내 생애 최고의 해'

대학의 비정규직 강의 전담교수인 인경씨는 자신이 기억하는 지난 20여 년 간 한결같이 시간에 쫓기며 살았다.

"공부를 계속 해 학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대학 신입생 시절부터 둘째가 대학 입학한 그날까지 단 하루도 시간에 쫓기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박사과정을 마치느라 보따리 시간강사를 하며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웠어요. 그러고도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가 되기 위해 연구논문에 학회활동에 수첩의 일정이 늘 빼곡했지요."

그녀의 매일은 헉헉대며 간신히 넘어갔지만 하나씩 경력이 늘고 아이 둘이 커가는 재미를 보상으로 알고 견디었다.

"그런데 2년 전, 정말 이대로 계속 살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50대가 되면서 몸이 못 버티어냈고 우울증까지 왔어요."

늘 해야 하는 일이 쌓여 있는 일상에서 초조함과 불안이 늘어났다. 잠자리에 들면 뭔가 빠뜨리고 놓친 것 같아 불안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할 일을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 초조했다.

말과 행동이 빨라지고 조급해져서 누군가 길게 말을 하기만 해도 참고 듣기가 힘들 정도였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으로 나이를 먹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본 태도를 바꾸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녀가 초조와 불안을 느끼는 그 압박감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찾아가보는 질문과 답이 이어졌다.

- 20년 넘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이 결핍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 젊은 시절의 목표를 이루고 나면 내 인생은 완성되는가?

- 그 목표가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와 비중을 차지하나?
- 지금 인생의 방향키를 돌린다면 잃는 것은 무엇이고 얻는 것은 무엇일까

그녀는 대학생 때부터 목표로 했던 대학교수의 꿈을 완전하게 이루어내지 못하면서 늘 결핍과 패배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보상심리로 자신을 여러 방법으로 혹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녀는 정규직은 못되더라도 그럴 듯한 학자라는 명함을 갖고 싶어 했고, 아이 둘은 명문대학에 보내고 싶었으며 한편 결혼생활도 성공하는 워킹맘이 되고 싶었던 것이다.

인경 씨는 더 이상의 사회적 성공을 바라는 욕망을 과감하게 포기했다. 대신 자신의 마음과 몸의 건강을 돌보면서 진정한 만족을 찾고 조금씩 성장하는 자신만의 인생 속도를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녀는 그 해 12월에 새해의 목표를 설계하는 그룹코칭에 참가했다.

지니 S. 디즐러의 〈내 인생의 최고의 해〉 컨셉을 모델링한 이 그룹 코칭은 한 해의 목표를 분명히 하면서 올해 집중할 자신의 역할과 10대 세부목표를 완성하는 액티비티 위크숍이었다.

소박하고 성실한 3가지 지침

참가자들은 지난 1년간 자신이 성취한 일과 이루지 못했던 일을 기억하며 새 해의 지침을 정했다. 지침의 성격이나 가짓수는 모두 각자의 목표와 속도에 따라 정한다. 크고 대단한 성취와 새해 목표만 있는 건 아니었다. 예를 들면 '지난 한 해 동안 이룬 일로 몸무게가 더 늘지 않았다.' '적자 없이 살림을 꾸렸다.' '300만 원 이상 저축했다.' 등 소박한 성취도 있었다.

한해를 돌아보는 시간
각자의 내면 기쁨 참구
인생시계의 계획 필요

그리고 5년 후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그린 뒤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찾고 올해 자신이 집중할 역할과 거기에 따른 세부 목표를 정해나갔다.

인경씨는 해마다 눈에 보이는 뚜렷한 성과와 목표를 세우던 지난해와 다르게 자신의 삶의 들여다보고 성찰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세워나갔다. 그녀가 지금 시점에서 원하는 것을 적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세운 새 해의 지침은 단 3가지였다.

- 한 달에 책을 한 권 이상 읽기
- 하루 1시간씩 걸으며 사색하기
- 매월 마지막 날 가족모임을 갖고 한 달을 어떻게 보내고 무엇을 느꼈는지 나눔 하기

"목표라고 하면 크게 마음먹고 결심해야 하는 거창한 것인 줄 알았거든요. 소박하지만 매일 성실하게 지켜야 하는 작은 지침을 만들고 나니 마음이 따뜻하고 뿌듯해졌어요. 오랫동안 새해가 되면 해야 할 리스트를 쫙 뽑아놓고 마라톤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었습니다."

인경씨는 해마다 '내 생애 최고의 해' 워크숍에 참석했지만 진정한 '내 생애 최고의 해'는 2년 전 그날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지배당하지 않고 주인이 되는 붓다의 시간관리

티벳불교의 정신적 구루이며 불교학자인 라마 수리아 다스는, 저서 〈붓다의 시간관리〉에서 지신만의 속도로 인생시계를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 말한다.

"불교는 시간과 그 운용 방법을 심오하게 다루는 학문"이며 "필연적이며 멈출 수 없는 시간의 행진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알게 해준다"는 것이다.

"꽉 짜인 일정과 계속되는 변화 속에서 더 이상 우리가 희생자가 아니라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과 자신만의 속도를 통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고요하게, 쫓기거나 지배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려 주고 싶다. 기억하라. 우리가 맞닥뜨린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멈추고, 호흡하고, 우리의 중심을 발견하고, 점검할 때 그 모든 순간은 무한대의 가능성과 기회를 갖는다."

라마 수리아 다스는 제한된 시간의 개념에 스스로가 얽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엇을 진정 원하고 있는지를 알고 자신만의 속도를 찾아야 단순하고 집중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법문한다.

자신의 속도로 시간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의 선택이 필요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생각할 일은 무엇인가. 어떤 시간을 부여잡고 어떤 시간은 흘려버릴 것인가. 모두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아닌 자신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붙잡는 선택을 하면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

자신 속도로 균형 잡힌 삶 찾는 시간관리 코칭

삶에서 느끼는 초조함과 불안, 삶에 대한 중압감의 원인을 바라보고 이를 통해 자신의 인생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며, 궁극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안다는 라마 수리아 다스의 관점은 코칭과 바로 맞닿아 있다.

시간을 붙잡고 의미 있게 쓰는 일은 코칭의 주요한 이슈 중의 하나이다. 시간관리 코칭은 시간을 쪼개서 많은 일을 하기보다 원하는 일로 자신의 시간을 채우도록 내면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우리는 여러 역할을 해내면서 인생을 꾸려간다. 그러다보면 정작 자신이 원하는 일은 뒷전으로 미뤄지기도 한다. 여러 역할이 자기에게 주는 각각의 기쁨과 의미가 무엇인지 조화와 균형을 잡으면서 일상의 가치와 목표를 세워나가는 과정이 시간관리 코칭이다.

새로운 해의 인생지침을 만들 때 우선순위의 역할을 찾고 싶다면 현재 자신의 역할에서 변화를 가장 많이 주고 싶은 하나를 고르면 된다. 부모, 자식, 학생, 직장인, 누군가의 파트너인 역할 중에서 단 하나 새롭게 바꾸고 싶은 역할을 찾는다. 그리고 그 역할을 실천할 때 지켜야 할 행동지침을 몇 가지 정한다.

거기서 시작되는 변화와 성장이 자신의 인생시계를 찾아가는 길을 보여준다.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제야의 종소리가 들릴 때 다가오는 새로운 시간을 자신의 속도로 걸어 나가 맞이하기를!

〈한국코치협회 전문코치〉

동국대학교 미래융합 대학
정행스님의 융합명상 가족세우기

– 불교의 새로운 상담기법과 실천법 –

각 사찰에서 신도분들과 운영할 수 있고 정확하게 작동하는 융합명상 치유상담기법

융합명상 **가족세우기 특강**

교육내용 · 부모 자녀 관계 회복
· 부부 관계 회복
· 가족 관계 회복 상담치료
강의기간 12월 21일(토) ~ 2020년 1월 18일 (5주)
강의시간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 (8시간)
강 사 가족세우기 15년, 상담 30년 정행스님
접 수 동국대 미래융합대학 학술관 010-8634-7851

■ **대 상** : 누구나 관심있는 분
■ **장 소** : 서울 동국대 미래융합 대학 학술관 279호
■ **시 간** : 지도자 과정 – 매주 화요일 19시 ~ 21시
집중수업 – 매월 둘째 일요일 10시 ~ 17시
(내담자 접수순 참여)
■ **문 의** : 010-8034-7851 (정행스님)

융합명상 아카데미 **동대구**
– 매월 둘째 금요일 시간 미정 –
주소 대구시 동구 안심로251 (서호동)
(지하철 반야월역 1번출구 할리스 커피 옆건물 2층)
접수 010-9568-7447

융합명상 아카데미 **부산수영**
◈ 가족세우기 속성반 1년과정 (수시모집) ◈
개강 11월 24일 오전10시 ~ 오후 5시까지 (매월 넷째주 일요일)
주소 부산시 수영구 남천서로19번길 14 학마을 명상선원
(지하철 남천역 2번, 4번 출구 남천초등학교 앞)
접수 010-8634-7851

융합명상 아카데미(학마을) 정행 합장

종교인과세 신고대행 안내

2018년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납부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우리 사찰에서 신도에게 받는 시주금(기부금)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아니고,
스님이 사찰에서 매월 받는 보시금(급여, 개인적인 생활비)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납부하라는 것입니다.
일반 직장인처럼 회사에서 월급받고 세금을 납부하고,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연말정산하고, 관련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절차가 신설된 것입니다.
스님이 한 분 계시는 단위 사찰도 해당이 되며, 세무서에서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오는 것이 아니고,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종교인 과세관련 신고 납부일정을 알려드리오니, 우리 사찰에서는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셔서 세법상 불이익이 없기를 바랍니다.

■ 2019년 종교인 과세 신고 납부일정

· **2019년 7월 10일까지** : 2019년 상반기 종교인 과세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2020년 1월 10일까지** : 2019년 하반기 종교인 과세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2020년 2월** : 종교인 연말정산 실시
· **2020년 2월말** : 지급명세서 제출

※ 공익법인출연자산보고, 세무조사대행,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등 사찰관련 세무신고대행하고 있습니다.
※ 유튜브 검색창에서서 "박성욱 세무사"를 검색하시면 사찰 종교인 과세관련 동영상강의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 전화 : 051-996-0308 / 010-9878-5716 박성욱 세무사**
*** 주소 : 부산 동래구 동래로 3, 태림빌딩 3층(온천동)**
※ 전국 어디서나 신청가능합니다.



세무사 박성욱 사무소

12연기, 우주 생멸 근본 이치



김성규의
緣起 이야기

㉓ 영원한 진리 '12연기'

데카르트는 〈방법서설〉에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했으며, 에드워드 윌슨 하버드대 생물학과 교수는 〈컨실리언스(Consilience, 통섭)〉에서 "나는 설명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고 했다.

연기론은 부처님께서 설명한 존재론이다. 12연기는 연기의 시간적 측면과 공간적인 측면을 통합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내 이제 너에게 이야기할 것이니 잘 들어라. 12연기는 무명 · 행 · 식 · 명색 · 육입 · 촉 · 수 · 애 · 취 · 유 · 생 · 노사를 말하며 사성제의 고집성제로써 고의 원인을 말한다' 고 설한 바 있다.

12연기의 구성

12연기는 무명 · 행 · 식 · 명색 · 육입 · 촉 · 수 · 애 · 취 · 유 · 생 · 노사로 이루어져 있다. 끊임없이 윤회하고 있는 이 몸을 만들어서 죽고 태어나는 과정은 바로 12가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아난아 만일 어떤 사람이 어떤 인연으로 늙고 죽음이 있느냐 하고 물으면 생(生),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태어남의 인연으로 늙고 죽음이 있다고 말해라. 어떤 인연으로 태어남이 있겠는가? 어떻게 해서 이 몸을 받아 태어나느냐고 물으면 유(有), 우리가 존재하는 것. 이 유의 인연으로 태어남이 있다고 말하라. 어떤 인연으로 유, 존재가 있느냐고 물으면 취. 바로 취득하는 것. 취의 인연으로 유가 있다고 대답하라."

이와 같이 취는 애를 인연으로, 촉은 육입을, 육입은 명색을, 명색은 식을, 식은 행을, 행은 무명을 인연으로 한다. 우주에 존재하고 생멸하고 있는 근본 원인과 이치를 밝힌 것이 12연기이다.

차제성과 실상

시간연기는 연기하여 일어난다고 했다. 시간의 관점에서 연기를 이해한다면 항상 앞에 선행하는 것이 있어야 뒤에 따라오는 것이 있는 것이다.

오온 연기는 앞의 것에 상관없이 색 · 수 · 상 · 행 · 식이 그냥 그대로 함께 있는 것이다. 덩어리와 형상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래서 몸뚱이를 이룰 수 있는 근거가 오온 연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12연기가 성립하는 근거는 차제성과 실상이다. 무상과 무아를 아는 것이 연기이므로 12연기가 성립하는 근거는 명이다. 명은 '비드야(vidya)' 이며, 실존하는 것이며, 밝히는 것이다. 밝게 아는 것이 바로 12연기의 성립 근거가 된다. 결국 안다는 존재의 실상을 바로 알고 제대로 밝히고 철저하게 인식하는 것이 명이다.



그림 · 강병호

연기는 산스크리트어로 '프라티이트야 삼우뜨파다(pratityasamutpada)' 이다. '프라티' 는 '~에 대하여' '~을 향하여' 이며, '이' 는 '가다' 이며, '트야' 는 '~하여, ~향하여 가서' 이다. '삼' 은 '함께' , '우뜨' 는 '위로 일어남' , '파다' 는 '가다' 를 의미한다. 그래서 '프라티이트야 삼우뜨파다' 는 기대기도 하고 함께 올라가기도 하는 것이다.

색과 무명이라는 것

명색이라는 말이 생소하지만 색 · 수 · 상 · 행 · 식에서 색은 몸뚱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명은 우리의 정신이며, 색은 육체를 가르킨다. 정신과 육체가 바로 명색이다. 명색이 조금 더 분화된 것이 육입이다. 육이라 하면 육근, 육경이 떠오른다. 육입이라 하는 것은 육근과 육경과 육식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시간연기로 연결되어 촉 · 수 · 애 그 다음 취가 나오고 유가 나오고, 생 · 노사가 나온다.

생으로부터 시작했을 때 태어나는 것 다음에서 막혀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그래서 태어남 다음엔 왜 유인가? 이 존재를 이해하는 것 보다 거꾸로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다. 무상과 무아를 모르는 것을 무명이라 했다. 그러면 무명으로부터 출발해 보자.

오온의 색, 수에서 무엇이 나왔는가? 모르는 것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불안이다. 불안을 극복해가는 방법은 '자기화' 이다.

> 12연기 성립 근거 차제성 · 실상
> 무상과 무아 아는 것이 곧 연기
> 밝게 아는 것 12연기 성립 근거
> 존재의 실상 바로 인식함이 '明'

'자기화' 는 변화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불안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방법이다. 불안이라 하는 것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움직임이다. 불안 자체가 변화하는 것을 막아 자기에게로 끌어다 붙이는 행을 만들어낸다.

명의 속성은 바로 '성성적정' 이다. 고요함이 잠들어 있고 죽어 있는 고요가 아니라 끝없이 깨어있는 '고요' 이다. 그래서 깨달음을 표현할 때 '성성적정' 이라 한다. 명의 속성은 '성성적정' 이다.

그런데 무명은 근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다. 불안과 공포가 결국은 자기화로 만들어간다.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움직임이 있고 행동이 있어 결국은 무명이 행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행이라는 것

무명 다음에 오는 행은 변화를 막으려는 결합생성작용이다. 존재의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결합행위가 바로 행이다. 무명이 없으면 행은 발생하지 않는다. 무명 때문에 몸뚱이를 만들어졌듯이 무명 때문에 행이 발생한다.

부처님께서 깨치시고 난 다음 제일 먼저 갈파한 것은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있다"이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다는 것이다. 바로 무명이 있음으로 행이 있다는 것이다. 12연기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면 '연기의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음으로 이것이 있다' 를 이해할 수 있다.

무명이 있음으로 행이 있고 행이 있음으로 무명이 있다. 이것이 없음으로서 저것이 없어지고, 무명이 없음으로 행이 없어지는 것이다. 12연기를 제대로 알 때 비로소 연기가 탄생하게 된다.

행은 '상스카라(samskara)' 라 하며 '존재가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결합행위' 이다. 어떤 경우에는 행과 무명이 함께 올라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무명에 의해 행이 생기면 무명은 시간적인 관점에서 없어져버리고 행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기도 한다.

식이라는 것

식은 결합된 것(행)과 결합되기 전의 것(무명)을 완전하게 다르게 판단하는 것이다. 식(識, Vinnana)은 행동을 일으키는 생각, 즉 인식작용 또는 인식판단의 주관으로 6식을 말한다.

행이 있으면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움직임이 있다.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결합된 것, 즉 불안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인식을 형성해야 되는데 이때 새로운 식이 발생한다. 식은 6근과 6경이 부딪힘으로 생기는 식이다. 식은 행이 결합된 것이다. 결합되기 전은 무명으로 행과 무명을 완전히 다르게 인식하는 것이 바로 식인 것이다.

식은 '뷔즌야나(vijnana)' 라고 하며 '변화의 전후법을 다르게 인식하는 분별작용' 이다. 식의 근본 속성은 모든 것은 항상 다르게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어떤 것도 똑같이 인식하는 것은 없다.

수백 명 수천 명이 어떤 하나의 현상을 볼 때 그것을 똑같이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다 다르게 인식한다. 자기에게 누적되어 있는 업의 형태만큼 식을 인식한다. 이 식이라는 것은 결합된 것, 행과 결합되기 전의 것, 무명을 완전히 다르게 판단하는 것이다.

오온에서는 색 · 수 · 상 · 행 · 식으로 끝났다. 식이 오기까지는 색 · 수 · 상 · 행 · 식이 있어서 식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식이 있기까지는 앞에 색부터 시작해서 색 · 수 · 상 · 행 · 식까지 생기는 것이 식이다. 오온에서의 식이 제일 먼저 시작해서 여기서 만들어진다.

명색이라는 것

명색이라 할 때 몸뚱이가 색이고 명은 정신이다. 정신과 육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식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색이 만들어진다.

모든 색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름은 색이 사라져도 남아있다. 모든 색이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은 형상이 있는 말이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사람의 이름이 홍길동이다. 홍길동을 이렇게 알고 나면 다른 사람들도 그를 홍길동으로 안다. 홍길동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홍길동은 없어져도 홍길동이라는 이름은 남는다.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홍길동을 떠올리면 그에 대한 여러 생각들을 할 수 있다.

우리의 생각은 이생이 끝나 다음 생에 가더라도 한 번 인식 한 것은 내 속에서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수억 겁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한 번 본 것은 모두 업 속에 저장되어 있다.

색이 사라져도 인식은 내 안에 남아있다. 사과를 보면 침을 흘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얼굴을 찡그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색은 사라져도 이름은 남아서 그 이름만 들어도 형상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식과 명색이 함께 몸뚱이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이다.

태아가 엄마 몸속에 있을 때 처음에는 형체도 없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형체를 만들어간다. 형상을 만들어가듯이 명색이 육입을 만든다. 정신밖에 없던 것이 이제 구체적인 형상인 육입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영남대 의대 교수〉

목사의 설교는 스토리텔링으로

강한 카리스마의 고음대에서 설교하며 1년 설교 중에서 한 번만 재탕해도 시비가 있어 늘 새로운 설교 작성에 심혈을 쏟음

염불은 청아하고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음율에 염불을 실려야 하며 천수경을 수 천번 반복해도 절대로 재탕 시비 안하는 원인은 오직! 소리 가락에만 심취하기 때문!

검증법 : 중대형 사찰들이 복잡하게 잔뜩 채워 나열한 몇천 음향시설들과는 정반대로 가격 $\frac{1}{10}$ 의 간단한 디지털 견본과 소리비교시 정확하게 장난감 소리의 차이를 확인!

본품의 장점은 원하는 소리를 만들어 냄으로 설법은 성우소리! 염불은 마이크와 2m 멀리서 장엄하고 은은한 소리를 만들어 내는 음향세계 지각변동제품!

염불의 운명을 바꾸는 시스템 소개 (방문시 1억대 마이크를 스마트폰으로 소개)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로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완벽시설까지 290만원이면 명산대찰 억대의 시설보다 염불소리 하나만은 확실하게 월등함. (방문시 방생용, 각종 마이크 구경, 장기할부 가능)

▣ **소리 구경 조건으로**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HITEC 하이텍 미디어 **하이텍사운드전자** 대표 박 공 희

부처님의 마음을 빗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 인 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

보기 싫은 사람과도 함께 살아야…



新 불교사자성어

㊹ 원증회고(怨憎會苦)

불교에서는 인간의 고통을 크게 여덟 가지로 구분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원증회고(怨憎會苦)'이다. '원증회고'는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데서 오는 심적(心的)인 고통을 말한다.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면 될 것 같지만, 인간사회는 '독불장군'이라는 말과 같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부모, 형제, 가족, 선후배 등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간다.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자존심이 상해도 배짱이 뒤틀려도 참아야 한다. 간혹 TV를 보면 인적 없는 산속이나 왼 딴 섬에서 혼자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역시 극심한 고독과 싸워야 한다. 고독에는 강자가 없다. 보기 싫지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괴로운 일이다.

그와는 정반대인 애별리고(愛別離苦)가 있다.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 이별할 수밖에 없는 데서 오는 고통. 이 두 가지는 극과 극이다. 어쩌면 인간은 행복과 불행이 교차하고 사랑과 증오가 교차하는 애증의 구조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왠지 자주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조금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 특정한 이유 없이 그냥 정서적일 때도 있고 이해관계 때문에, 또는 이런저런 일로 인간관계가 꼬여 버린 경우도 있다. 생각해 보면 인간관계는 상대적이어서 자신의 탓도 적지 않다. 필자도 살다가 보니 그런 경우가 한두 번 있었는데, 돌이켜 보면 내 잘못이 더 많았다. 문득문득 후회가 된다.

일본 도쿄에서 열차로 한 시간 남짓 거리에 있는 가마쿠라(鎌倉)는 수국과 선종사찰로 유명한 곳이다. 6월이 되면 전국에서 몰려든 수국 인파로 길이 터진다. 그곳에 가람과 문화가 그림 같은 엔가쿠지(圓覺寺)가 있고 철길 건너 맞은편에 '도케이지(東慶寺)'라는 절이 있다. 13세기 말 당시 가마쿠라 막부의 권력자였던 호조 가문의 도키무네가 죽자 그 아내는 남편이 묻혀 있는 엔가쿠지 맞은편에 절을 창건해서 비구니로 여생을 마쳤다. 그 절이 비구니 절인 도케이지다.

도케이지(東慶寺)는 에도시대 남편들에게 학대받던 여성들의 유일한 해방구였다. 과거 일본은 남자들은 마음대로 이혼할 권리가 있었지만, 여성들은 그 어떤 이유로든 이혼할 권리가 없었다. 남자가 이혼해 주지 않으면 두들겨 맞으면서도 한평생 살아야 했다. 못된 남편들의 폭력, 욕설, 술주정, 학대 등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여성들은 시대를 원망했다.

그러나 그런 여성들에게도 다행히 한 가닥 해방구, 탈출구가 있었다. 남편의 폭력 등으로 인해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으면 '도케이지'로 도망을 쳤는데, 그곳은 남자들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치외법권 지역으로, 신변 보호가 되었고 남편들의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여성들이 도망하여 그곳에서 3년만 지내면 이혼이 허락되었는데, 문제는 여성들이 어떻게 남편들의 추격에 붙잡히지 않고 도케이지 정문 문턱을 넘는가였다.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붙잡히면 도케이지 측도 손을 쓸 수 없었다. 여자는 도케이지 정문을 코앞에 두고 다시 남편의 손에 끌려가야 했다.

아마 에도시대에는 도케이지 정문 앞 계단은 도망가는 여자를 뒤쫓는 남편, 붙잡히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해 도망가는 여성들로 슬픈 광경을 이루었을 것이다.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다시 붙잡혀서 남편에게 질질 끌려가는 광경은 차마 보기 힘든 인간사의 한 단막이기도 했다. 그래서 도케이지 측은 여자가 신발 한 짝 만이라도 벗어서 정문 안으로 던져 넣으면 일단 들어 온 것으로 인정하였다. 그래서 여성들은 급박해지면 신발 한 짝이라도 벗어들고 죽을힘을 다해 던졌다.

그렇다고 무조건 여성 편은 아니었다. 도케이지 측은 '연절사법(緣切寺法)'을 만들어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고, 이혼을 성립시킬 때는 남편도 불러서 진술을 받았다. 물론 초록색은 거의 같았다. 에도막부에서도 정식으로 연절사법(緣切寺法)을 인정했고, 도케이지는 메이지 유신 직전까지 이혼 재판소 같은 역할을 했다. 인연을 맺어주는 것이 인간 세상의 미덕인데 악연을 끊어주는 곳이라고 하여 '연절사(緣切寺)'라는 별명이 붙었다.

도케이지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손녀인 센히메(千姬)가 만년에 남편 두 명과 사별 후 세속과 인연을 끊고 살았던 절로도 유명하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콧구멍도 말문도 막고 전신토기?

〈轉身吐氣〉



격절록 강설

㊹ 무업망상 2

[評唱 2]

又問 "如何是祖師密傳底心印" 祖云 "大德正開在 且去別時來" 師纔出 祖召大德 師回首. 祖云 "是什麼" 師便頓悟 乃禮拜. 祖云 "跋跟阿師 禮拜作什麼" 雲居錫云 "什麼處是汾州正開處" 後來答話 只云莫妄想 如此者二十年.

(무업이 마조에게) 또 물었다.

"어떤 것이 조사가 은밀히 전한 심인(心印)입니까?"

마조가 말했다.

"대덕이 정말로 시끄럽게 구는구나! 일단 갔다가 다른 때 오라."

국사가 막 나가려는데, 마조가 "대덕!" 하고 불렀다.

국사가 고개를 돌리자(回首), 마조가 말했다.

"이것이 무엇인가(是什麼)?"

국사가 바로 단박에 깨닫고는 절을 했다.

마조가 말했다.

"(남의) 발뒤꿈치나 쫓는 스님아! 절은 해서 뭐해."

(이이 대해) 운거 석(雲居錫)이 말했다.

"어디가 분주가 시끄럽게 군 곳인가?"

뒤에 (누군가 물으면) 답하기를 다만 "망상 떨지 말라(莫妄想)!"고 했으니, 이와 같이 하기를 20년이나 했다.

一日院主云 "和尚 休得也未" 他即云 "院主" 主應之 他云 "這回休得也未 直至死 亦只云 休得也未" 若道禪真箇有一句教人端的參 如問佛問祖只一般 答何故一百箇 答做一百般. 只這無業老漢也大漏逗.

하루는 원주가 말했다.

"화상께선 쉬지 않으십니까?"

국사가 말했다.

"원주!"

원주가 "예!"하고 대답했다.

국사가 말했다.

"이번에 쉬지 못하면, 죽음에 이르러서도 단지 '쉬지 않으십니까?' 라고 할 것이다."

만약 선에 정말로 일구가 있다(禪真箇有一句)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분명히 참구하라고 한다면, 부처를 묻고 조사를 묻는 것은 단지 하나일 뿐인데 답은 어째서 일백 개나 되는 것인가? 백 가지로 답을 해서 그런 것인가? 다만 이 무업 노인이야말로 낭패(漏逗)가 클 뿐이다.

雪竇下一句語 極有作略. "如何是佛" 他云 "莫妄想" 雪竇云 "塞却鼻孔" "如何是佛" 云 "即心是佛" 雪竇云 "拄却舌頭" 正當恁麼時 舌頭又拄却 鼻孔又塞却 還有轉身吐氣處也無. 便打.

설두의 일구어(一句語)에는 대단한 계략이 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라고 묻자, 무업이 "망상 떨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 설두가 "콧구멍을 막아버렸다"고 하였던 것이다. 또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라고 묻자, 무업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고 한 것에 대해 설두가 "말문을 막아버렸다"고 하였던 것이다.

바로 이러할 때 말문도 막아버리고 콧구멍 또한 막아버리고 전신토기(轉身吐氣)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선상을) 쳤다.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㊹ 이해의 길 24

대승 초기 공사상 유행 이유

우리나라 불자들은 〈니까야〉나 〈아함경〉과 같은 근본경전보다는 〈금강경〉이나 〈화엄경〉, 〈법화경〉과 같은 대승경전을 더 좋아한다. 이러한 대승경전은 대승불교가 성립한 BC 1세기경부터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지는 13세기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시기에 따라 유행하는 경전과 사상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대승 초기(BC1세기~AD3세기)에는 주로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을 중심으로 공사상(空思想)이 유행하며, 중기(3세기~6세기 중엽)에는 불성(佛性)과 여래장(如來藏), 유식사상(唯識思想)이 유행한다. 이슬람의 침입으로 불교가 소멸되는 후기(6세기 중엽~13세기)에는 주로 밀교(密敎)가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다.

그렇다면 대승 초기에 공사상이 유행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무엇보다 공사상이 부파불교의 실재론을 타파하는 매우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이다. 붓다의 근본 가르침은 연기와 무아, 무상이 핵심이다. 그런데 부파불교에 이르러 붓다의 사상이 왜곡되기 시작한다.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처럼 부파의 이름에서 그 의도를 대놓고 드러내기도 한다. 글자 그대로 일체가 있다는 것을 설하는 부파라는 뜻이다. 그들은 나는 공하지만 나를 이루고 있는 5온(蘊)과 같은 법(法)은 있다(有)고 주장하였다. 이를 '아공법유(我空法有)'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붓다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기고(因緣生) 인연이 다하면 소멸하는(因緣滅) 다이내믹한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5온'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반야심경〉에서 '5온이 모두 공하다(五蘊皆空)'고 강력하게 외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관자재보살은 공이라는 무기로 5온에 대한 집착을 타파하고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난(度一切苦厄) 것이다.

둘째로는 공사상이 유행한 이유를 부파불교의 해탈론(解脫論)론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를 '단혹증리론(斷惑證理論)'이라 하는데, 글자 그대로 미혹, 번뇌를 끊고 진리를 깨친다는 뜻이다. 그들은 번뇌를 끊기 위해 이를 세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10가지 근본번뇌(十惑)가 있고 이로부터 108번뇌와 같은 지말번뇌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런 분석을 통해 그들은 근본적으로 번뇌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들은 치명적인 오류에 빠지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번뇌를 실체시하는 것이었다. 번뇌를 끊고 행복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번뇌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공사상은 이런 입장에 날카로운 메스를 가한다. 그들이 번뇌를 실체시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번뇌 또한 공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해 걷다가 전봇대에 머리를 '꽝!' 부딪쳤다고 해보자. 순간 눈앞에서 별이 반짝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런 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착각이고 망상일 뿐이다. 어찌 보면 별을 없애기 위해 있지도 않은 별의 실체를 연구하고 있는 지도 모를 일이다. 술이 깨면 자연히 사라지는데 말이다. 이런 일이 우습고 바보 같이 보일지 몰라도 중생들의 삶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공사상은 붓다가 보여준 연기의 진리를 재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공은 부파불교의 실재론을 타파하는데 연기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이었다. 연기가 상대를 향해서 날리는 짧은 주먹이라면 공은 상대의 공격을 한 방에 무너트리는 강력한 카운터펀치라고 비유하면 어떨까싶다. 부파불교가 실재론이라는 한 방을 날렸는데, 대승에서는 이를 부정하면서 공이라는 펀치로 받아친 셈이다.

대승불교를 일으킨 사람들은 부파에서 붓다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번뇌에 집착한다고 보았다. 붓다의 가르침은 단순했다. 모든 것은 공하기 때문에 번뇌 또한 공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실을 전하기 위해 대승 초기에 600부나 되는 방대한 경전군(群)인 〈반야경〉이 만들어졌다. 이 경전들은 공의 이치를 깨친 손오공(孫悟空)이 번뇌, 망상이라는 요괴를 만날 때마다 사용한 여의봉(如意棒)이었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페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페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진성 스님, 자원봉사 국무총리 표창

"멈추지 않는 봉사로 정진해 보답"



전북에서 활발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는 진성 스님(태고종 전북종무원장 · 사진)이 2019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진성 스님은 12월 5일 건국대 새천년기념관에서 열린 자원봉사대상 시상식에서 진안지역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된 자원봉사활동과 태고종 나누우리 봉사활동, 전주교도소 교정교화활동, 갑룡장학회 운영 등에 적극 동참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진성 스님은 "더욱 많은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라는 가르침으로 알고 멈추지 않는 나눔과 봉사로 열심히 정진해 보답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진성 스님은 마이산 탑사 회주 혜명 스님을 이어 전주교도소 교정활동과 어르신 경로잔치를 개최하고 있으며 태고종 나누우리를 통한 베트남 초등학교 식수대 설치 등 해외봉사활동과 진안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연탄나눔, 자비의 쌀 나눔, 김장김치 나눔 등 자원봉사활동, 탑밴드와 함께 음악봉사활동 등 활발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불교산우회 오대영 회장 취임

임기 2년 "모범적 산행조직 만들 것"

광주불교산우회는 12월 1일 광주 수자타 2층에서 제5대 오대영 회장 취임식을 열고 새로운 산행포교의 첫발을 내디뎠다. 광주불교연합회 산하기관인 광주불교산우회는 산행과 기도를 진행하는 단체로 매월 정기 산행과 사찰기도 및 문화유적 답사를 통해 포교활동을 이어온 단체다. 취임식은 광주불교연합회장 동현 스님, 수석부회장 도계 스님, 보응 스님을 비롯해 광주지역 주지스님 20여 명과 회원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취임한 오대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저희 단체는 다양한 산행프로그램과 참여자의 정성, 나눔, 봉사 등이 어우러진 조직이다. 임원단이 정성스러운 산행준비를 하고 회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한다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산행조직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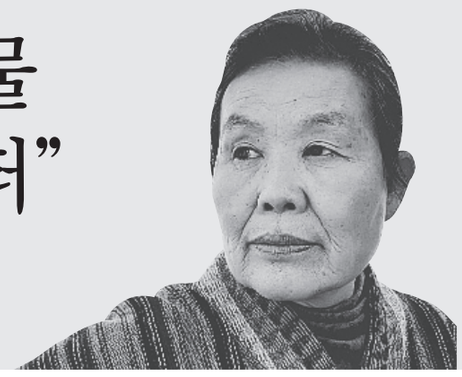
동현 스님은 축사를 통해 "산행을 통해 내 스스로가 어느 정도 변화되고 발전하였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며 "힘든 사회생활의 고난을 산과 자연을 통해 치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산행을 임하면, 내 삶은 정화되고 산행의 시간은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대영 회장은 2년 임기동안 산행과 기도, 유적답사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산행에 나선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교 속 숨겨진 보물 소설로 행복 전할 터"

Interview

제4회 법계문학상 수상자 강영애 씨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법계라는 말은 제게 아주 특별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법계지만 오래 전 중학생 아들의 입에서 나온 단어였죠. 그 인연으로 제가 법계문학상을 받게 됐으니 불교 속에 숨겨진 보물을 캐내 소설이라는 멋진 향로에 담아 행복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4회 법계문학상 수상자로 〈블루마운틴〉을 쓴 강영애 씨가 선정됐다. 법계문학상 운영위원회는 〈블루마운틴〉 〈인더스 강의 뱃사공〉 〈산동애가〉(이상 장편소설), 〈이상한 옷 대여점, 수레바퀴〉 〈할머니를 찾아서〉(이상 장편동화) 등 본심 작품 5편을 심사한 결과 강영애 씨의 〈블루마운틴〉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12월 4일 밝혔다.

〈블루마운틴〉은 한 사찰을 중심으로 우연히 만난 세 남녀가 서로를 통해 육체적 ·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는 한편, 애증의 집착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과정을 차분하면서도 감동적으로 그렸다는 평을 받았다.

〈블루마운틴〉은 도시의 보통 여인이 남편의 사업 실패와 자신의 투병을 극복하고자 백운사 공양간에 들어온 뒤 새 인생을 찾는 이야기다. 백운사에서 담연선사를 비롯한 여러 스님과 불자들을 만나고, 부처님의 발자취를 느끼면서 각자의 블루마운틴을 찾아간다. 블루마운틴은 저자 마음속 진리의 산이다. 말로 형용할 순 없지만 누구나 마음속에 품고 사는 이상향과 같다. 강영애 씨는 독자들이 이 소설을 읽고 블루마운틴을 향해 걸어갈 힘을 얻길 바라는 마음이다."블루마운틴을 딱 잘라 '이것' 이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네 가슴속에 언제나 오르고 싶은 마음의 보물산은 있기 마련이죠. 블루마운틴은 어쩌면 자장가와 닮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조그맣게 말해 봐도 노래처럼 울려오는 산이거든요."

인물들 애증의 집착 벗어나 새 삶 살아가는 〈블루마운틴〉 "누구나 마음속 보물산 있다"

강 씨는 이번 소설을 쓰면서 불교수련회에 참석했던 아들의 모습을 떠올렸다. 당시 중학생 아들은 수련회에서 다른 아이들을 대표해 "어법계 일체중생 밝게 시봉할 수 있기를 발원합니다"라고 원을 세웠다. 불교의 '불' 자도 모른다고 생각한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강 씨에게 충격이었다. 그 아들은 20년이 지나 출가해 스님이 됐고, 강 씨는 또 20년이 지나 법계문학상을 수상했다.

"저는 평범하게 부처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모든 사람들처럼 불교를 접해왔습니다. 그게 생활이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죠. 법문을 들으러 절에 가고, 불서를 읽고, 스님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리 살며 배운 것을 소설이란 그릇 속에 담았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져 기쁩니다. 이제 오래전 아들의 발원처럼 어법계 일체중생을 밝게 시봉하는 소설을 쓸 수 있길 발원합니다."

한편 강 씨는 경남 함양군 산두마을에서 1947년 태어났다. 연세대 사학과를 다니며 민영규 교수에게 불교적 감화를 받았다. 결혼 후 30년간 대전에서 예술전문서점 '솔거책방' 을 운영하다 2017년 경희사이버대학교 문예창작과에 편입했다. 현재 장편소설 창작동아리 '청맥회' 에서 활동 중이다.

경기도민 함께한 불교예술제

경기북부불교사암연합회 2019 행복드림 효콘서트

제15회 경기북부음악예술제 2019 행복드림 효콘서트가 '효, 자비 그리고 평화' 라는 주제로 12월 1일 파주시민회관에서 열렸다.〈사진〉 이 행사는 경기북부 11개 시군의 불교사암연합회 연합합창단과 예술인들이 참가, 부처님 자비와 화합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소통하는 문화축제다. 행사는 경기북부불교사암연합회(회장 초격)가 주최하고, 파주시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성)가 주관했으며, 1부 법요식과 개막식, 2부 음악예술제로 나눠 진행됐다.

식전행사로는 이광호 서예가가 '효 자비 평화' 를 무대에 펼쳐진 화면 위에 춤추듯 써내려가며 관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어진 법요식에서는 파주사암연합회장 혜성 스님이 7명의 체육꿈나무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경기북부사암연합회장 초격 스님은 봉행사에서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에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피해농가의 빠른 안정과 살처분에 동원된 종사자들의 아픔이 치유되길 기원한다"며 "아무것도 모른 채 희생된 생명들도 왕생극락하길 축원한다. 앞으로 연합회는 문화포교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 행사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부 음악예술제는 10개 사찰합창단원 120여 명으로 구성된 경기북부연합합창단의 찬불가로 문을 열었다. 이어 팝페라 가수 송우주, 퓨전국악그룹 '케이페라린' , 4명의 남성성악가로 구성된 '케이페라 너울' 의 공연이 펼쳐졌으며, 연합합창단과 전 출연진이 '아름다운 나라' 를 합창했다. 마지막 무대는 가수 홍진영이 장식했다. **윤호섭 기자**

세대 간 화합 위한 음악회

천태종 삼학사, 자비성금 · 장학금 기탁



천태종 마산 삼학사(주지 월도)는 11월 29일 창원 성산아트홀 대강당에서 '세대 간 화합과 교류를 위한 음악회' 를 개최했다. 이날 삼학사는 창원 · 김해지역 연합합창단의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는 한편, 자비성금 2000만원을 천태종복지재단에 기탁하고 청소년 장학금 각 30만원을 총 10명에게 전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불교기자협회, 불교기자상 시상

12월 2일 시상식, 대상 BTN 정준호 기자 수상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김현태)는 12월 2일 서울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더뷔페에서 '2019 한국불교기자상 시상식' 을 열고 '포교, 부처님 법 꽃을 피우다' 를 기획연재한 BTN 불교TV 정준호 기자에게 대상인 선원빈상을 수여했다. 아울러 '불교언론과 뉴미디어' 를 쓴 현대불교신문 신성민 · 노덕현 기자에게 기획해설부문상, '불교 자주성 박탈 세계유산관리법' 을 쓴 법보신문 최호승 기자에게 취재보도부문상을 전달했다. **윤호섭 기자**

정목 스님, 동국대 2천만원 기부

11월 28일 전달… "로터스관 건립에 써달라"



인터넷 방송 유나방송 대표이자 정각사 주지인 정목 스님이 동국대 로터스관 건립을 위해 2000만원을 쾌척했다. 정목 스님은 11월 28일 동국대를 찾아 윤성이 총장에게 로터스관 건립기금으로 2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기금은 정목 스님이 지난 11월 15일 제15회 대원상 시상식에서 수상한 특별상 상금 1000만원이 포함돼 의미를 더했다. **신성민 기자**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272호 | A13 | 전면광고

잘 길들여진 코끼리는 아무리 무거운 짐을
나를지라도 그 때문에 지치는 일이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잘 닦인 보살은 모든 중생의
무거운 짐을 나를지라도 지치지 않는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보적경》에서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간암, 묘터, 유산낙태 조상영가, 교통사고, 이혼수, 직장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명리구성학, 육임학, 성명학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 찰 행 사 전 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튜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허리병 고치는 법 받을분 배울분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 • •
창원 문수사 공양주,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사찰운영 및
운전가능 하신분
• • •
창원시 합포구 교방남4길
95-8 문수사
010-3132-9666

찰라지간에 성불하는 비법안내!!

- 해인삼매를 터득하면 즉신성불한다.
- 믿음은 법신불에 대한 믿음이다.
- 발 보리심은 법신불로부터 받는 것이다.
- 시공을 초월한 신통력자가 된다.

•• 안내서를 보내겠습니다. ••

010-7131-7084

★책-검색★

①**인생최고의 깨달음**(참불교)
②**천기소설 예언자**(현존불)
③**기도와 명상**(최상수행법)
④**천등산**(신통해탈기도비법)
⑤**출세의 기술**(성공출세술)
⑥**운타이밍재테크**(평생부자)

위 책이름검색 / 1권 구입해보세요
문의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270-8260

아는소리 공개강좌

(3개월 단기교육 완성)

"스님의 말씀이 곧 법문이
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3개월 교육비 : 5백만원**
- **교육시간 : 주2회 (2시간씩)**

※ 영점이나 점성술이 아니고 정확한 명리학 통계 데이터(공식)입니다.

010-2480-5677
(아는소리 명리학당 총무)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184번길 48 공단상가 4층
한국불교태고종 지성선원 석지성 합장

사찰화재 보험

●목조건축물 OK!!●

전국 최다 사찰 가입

010-7344-1881

재의식 속성 지도도량

49재 천도재 속성지도합니다.

사찰 포교원 암자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없이 염불소리로 재의식을 여법하게 진행할수 있게 속성으로 지도합니다. 관심있는분 연락바람.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까지 (4주완성)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204
중앙시장내 법공스님
010-4382-3448

충북 감곡 봉은사 공양주 모십니다

60세이상 가족같이 지내실분

봉은사에서는 스님분들 염불, 음치교정, 전통가요, 민요, 관음시식, 체계적으로 강의

문의 010-5883-2255
010-5893-3705

• • •
부 전 스 님
모 십 니 다
• • •
010-2078-9595

• • •
부산 도심 산에있는
암자입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 •
010-2168-2800

전문 상담사 양성 무료교육

◎ **대상** : 종교인, 장애자, 극빈자 ◎
◈ **출장전문 무료교육내용** ◈
철학, 한의학, 심리학, 점술, 신경성질환, 성교육, 부부문제 암, 우울증 극복, 성격분석
◒ **본원** : 서울, 경기양주, 심리철학관 ◒
正翰 李東起 010-4078-7810

비 법

구하는 게 틀림없이 얻어진다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후공부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함

문의: 054-753-8228, 010-8852-0075

단원 정통 명리학

- 교육 : 수시접수 | 초급, 중급, 연구(격국)반 접수 | 1년 과정 — **수강료 : 360만원**
- 단원 정통 명리학 : 실증철학 정규과정 수강생 접수 — **단원역리학협회 법인 자격증 제도**
-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 학문

지현명리연구원 : 역학전문교육처 志晛 : 韓 基子(恩炅)
명리학 / 작명학 / 육효학 / 간지체성론과 육십갑자론(특허)

주 소 서울시 종로구 명륜4가 54-1 3층 웹사이트 cafe.daum.net/3332han cafe.naver.com/3332han

단원역리학협회 010-4470-6314

수강생 모집(그림)

-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 **매주 화요일, 수요일 주 2일 [월 8일]**
- **수강료** : 월10만원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 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청곡 이한동 화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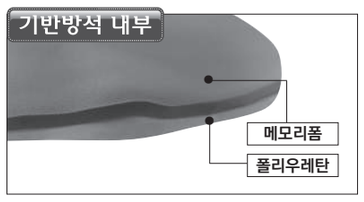
02)2004-8216 / 010-3747-8692

세 계 최 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TEL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국제 붓다 평화봉사단

국내외 활동 자원 봉사자 환영합니다

지구촌 그늘진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온 여성 불자 봉사단
입단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02-733-5665



매듭으로 뭘 만들까요?

모던하고 멋있는 장신구는 물론,
108염주, 인테리어 소품, 단주,
묵주도 만듭니다.

◈ 매듭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드립니다. ◈

지도 성낙윤 010-5282-8431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 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 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의 한 종류로,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 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희담석 108염주 세트 40,800원(무료배송)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계좌 안내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02)2004-8216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구입 문의 | 02-2004-8216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명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 때 꼭 필요해요.



다보명차 (유기농 야생녹차)

최고의 향, 맛, 빛깔, 효능으로 머리 시원, 몸 따뜻
수행 짱! 아랫배 단전에 기운 모여 손발 따뜻!
우수한 제조 비법 100℃ 물에 차잎 생생~ 떫은 맛 NO!



氣 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 힐링베개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 장단지, 허벅지, 엉덩이, 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 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2019년 12월 11일 수요일 | 불기 2563년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

불자정보

1272호 | A14 | 전면광고

법을 들으면 그 뜻을 잘 살펴보아야 하느니, 그 참뜻에 의거하고 문자에 의거하지 마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대보적경》에서

삼보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 대지 : 8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가액 : 2억 8천

◎ 위치 : 인천
◎ 대지 : 101평
◎ 법당 : 34평
◎ 요사 : 34평
◎ 가액 : 12억

◎ 위치 : 부산
◎ 대지 : 196평
◎ 법당 : 30평
◎ 요사 : 35평
◎ 가액 : 6억 8천

❖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 사찰, 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이 이용하시여 뜻을 이루시고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절대 비밀보장 ●
전국사찰 급히 구합니다.

문의전화 010-6722-2211

포교원 전세 안내

-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루원시티(인천전철2호선 5분거리, 서울7호선 연말개통)교통편리
- 주변재래시장 인근 유동인구 최다, 20년 운영중인 포교원
- 3층건물 : 반지하 1층 요사채(방2개, 공양간, 야외화장실), 2층 주지실, 상담실겸 서재, 거실. 3층 법당, 제반시설 완벽하고(삼존불, 신중탱화, 칠성, 산신, 소불, 인등)
- 주차장 및 도시가스 시설 완벽, 몸만 오세요
- 전세 사신 후 저렴하게 양도가능, 투자가치 확실
- 전세보증금 : 2억(절충가능)

문의전화 010-5002-7392

강남건물 안내

- 가액 : 41억
- 위치 : 서울 서초구 논현역 1분, 신사역 5분
- 대지 : 78평(3층) 연면적 : 165평
- 규모 : 지상1층 ~ 5층 2009년식, 승강기

010-5334-9814

광진불사

◎ 위치 : 서울
◎ 대지 : 200평
◎ 법당 : 50평
◎ 요사 : 60평 외
◎ 매가 : 27억 5천

◎ 위치 : 강원도
◎ 부지 : 7000평
◎ 법당 : 30평,외
◎ 요사 : 60평,외풍광보장
◎ 매가 : 20억 5천만원정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채권 채무상담 받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 임대합니다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근처에 있는 사찰
- 대지 700평 : 대웅전. 지장전. 관음전. 산신각. 요사채
- 전세 5천만원 / 월 50만원
- 공양주가 있어야 함

010-3636-6477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사찰 안내

- 위치: 경남 산청군
- 대지: 600평, 주차 30대 가능
- 주건물: 대웅전(53평), 요사채, 선방, 화장실, 부속건물: 삼성각, 용왕각, 선방, 요사채, 삼층사리탑, 일주문, 창고, 화장실, 기타
- 가액: 답사 상담후 결정 (인연있는 스님께 크게 내려 양도)

010-8957-8089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4층 건물에 3층, 40평
- 법당, 상담실, 방2, 주방, 화장실, 주차장, 옥상에 창고사용, 도시가스
- 보증금 1500만원 / 월세 50만원 (시설비 협의)

010-8695-6537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큰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 1층 요사. 2층 법당.삼성각 약 20km. 원주시청.충주시청.문막읍
- 가액 : 6억 5천
- 답사 하실분만 전화요망

011-371-5567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내 대단지 아파트 뒤 산속. 차량 진입 불가
- 3만평 중 5천평 지분 등기가능
- 가액 : 4억 6천(조정 가능)
- 무허가 건물 ●종무소.삼성각. 용왕전. 다실. 창고 각각 한동
- 1층 화장실(해우소)/2층 공양간 / 3 층 법당(큰법당)

011-9394-8511

토굴(급)안내

- 위치 : 부산금정구 지하철2분,버스2분 거리
- 골프장옆, 법당.요사.주방50평, 산신각3평
- 대형마트 은행 병원 시장 전부 다 있음
- 오르막 없는 평지에 주차 공간 넉넉함
- 전월세 가능(보3천/월35만, 시설비無)
- 인연 닿는 스님께서 먼저 전월세로 살아 보신 후 양도도 가능 합니다.

010-7121-3030
010-3574-3303

사찰건물 안내

- 위치 : 서울 성북구 정릉동 등산로 접함
- 주차가능, 공기맑고 텃밭있음
- 건평 : 30평, 국유지 90평
- 보증금 5천만 / 월 50만

010-3885-8989

멋진 2층상가 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 대지 : 총 217평
1층 : 상가 약 45평(방6개)
2층 : 주택 약 35평(방3개.거실. 화장실)잔디마당 및 조경좋음
- 가액 : 3억에서 5천 빼드림(조정가능)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별장같은 토굴

- 위치 : 경북지역 일월산자락 아담한 현대식 목조건물
- 앞마당에 계곡물 흐르고 스님 공부하시는데 아주 좋은 도량
- 대지500평.농지500평.건평 30평.법당은 토목공사 완료
- 가액 : 2억3천(가격 절충 가능)

010-5424-4969

사찰 안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근교
- 법당 : 38평 ● 요사 : 65평
- 대지 : 1천평 ● 임야 : 4천평
- 가액 : 11억

010-4547-4990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 4층건물 2층, 30평, 법당, 삼존불, 방3개, 식당, 화장실2개
- 보증금 1천만 / 월 60만
- 시설비 500만
- 스님 건강때문에 급매

010-3884-0122

사찰·터(암자,포교당)상담전문

살분⟷팔분

- 전문 중개한 경력이 많음
- 전국 보유하고있는 정보 많음
- 비밀보장, 일 처리가 원만합니다.
- 성심성의로 상담합니다.

(불자업소)공신공인중개사

010-3382-0555

포교원안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4층 건물 내 2층(45평). 시설 특A급
- 법당 : 칠보 삼존불(석가, 관음, 지장) 천수천안. 신중단. 영단. 수미단 3단
- 소불 : 550불. 법당, 요사, 공양간, 창고
- 촛대, 향로, 불기, 다기(전체 방자) 등 320개
- 보증금 1천만원 / 월 35만원
- 시설비 : 3천 5백만원

010-8424-0042

사찰·기도(터)안내

- 위치 :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주록리 148-2번지, 북여주IC. 동곤지암IC에서 10분거리 기도터로 좋은 대지.전답(650평)
- 토지 : 2148㎡
- 건축물면적 : 135.49㎡
- 가액 : 4억5천

010-9506-2549

사찰안내

- 위치: 경남 하동군(지리산 청학동)
- 부동산 양도
1. 한옥: 건평 155평, 대지 1,180평 / 15억 5천만원.
2. 유스호스텔: 건평 230평, 대지 600평 / 9억원
3. 전답: 700평 / 평당 35만원
- 블로그: https://blog.naver.com/ree3101

010-3835-7137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 2층건물에 2층, 약 80평 쏙뜸방 약 20평 겸업, 고정수입 있음.
- 삼존불 봉안, 호신불, 108불
- 보증금 250만 / 월 35만
- 시설비 4000만
- 역학하시는 분이나 법사 환영

010-9422-1233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2억 5천(가격절충가능)

010-5421-1536

토굴안내

- 위치 : 영덕군 창수면 소재 토굴양도
- 법당, 산신각, 요사채 각 1동
- 가액 : 3천8백만원
- 문중땅 도지세 1년 20만원

010-5714-7872

포교당 안내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 전세5천만원/월세50만원
- 시설비 1천 5백만원
- 도로변 상가건물 2층
- 132㎡(40평) 법당, 접견실, 방1, 주방, 화장실

010-2535-9910

스님을 모십니다

- 부산북구 재래시장 근처 신협~농협중간
- 건물2층 60평 냉온난방, 보안, 주차시설
- 포교원을 운영하실 스님 연락 주세요!
- 월세30만/관리비10만

010-4535-2568

암자안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 시설비 4,850만원
- 월 20만원

010-7289-0059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북 익산 부근
- 평수 : 절터 900여평, 법당1, 요차채2, 종각, 종중땅, 전450평, 답 2400평, 국유지대지 250평, 승계 ● 타인에게 농사 맡겨서 쌀80kg 20가마 수입
- 가액 3천 9백만원

010-7182-7646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버스정류장 앞, 옥상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1,900만원
-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99만원

02-957-0824
010-7409-0490

◑ 입종안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불교조계종대학림 02)511-1080

불교조계종(총무원) Tel 02)511-2026~7 | Fax 02)511-2028

사찰안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6억(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쪽

010-3128-2399

사찰(급)안내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만수소방소 건너편)
- 평수 : 단독건물, 지하1층, 지상3층, 건평 110여평
- 건물 : 지하1층-창고형,1층-공양간 (방3개,화장실), 2층-방3,화장실, 3층-법당,3존불,지장불상,칠성,산신
- 가액 : 3억3천5백(사찰연력:40여년)
- 답사 하실분만 연락요망

010-8360-8259

포교당 안내

- 위치 : 충남 공주 계룡
- 평수 : 약 50평. 큰방. 거실. 중간방 2개. 마당. 기름보일러 별채 : 큰방1. 거실1. 화장실1
- 독채 전세. 위치 좋음
- 역학이나 무속신앙 하시는 분도 가능
- 가액 : 3500만원

010-3293-1705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태국 비구니승단 복원 '고군분투'

담마난다 스님, 비구계 반대에도 끝없이 노력

김민재 객원기자

비구니 계맥이 끊긴지 오래된 태국에서 비구니계를 복원하려는 비구니 스님이 화제다. 보수적인 비구승단의 방해와 사회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굳센 서원으로 정진하는 담마난다 스님(75)을 지난 11월 21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특별 보도했다.

태국은 전통적으로 불교국가로 유명하다. 어디에서나 샤프론색 가사를 수한 스님을 쉽게 볼 수 있고, 아침마다 탁발을 나가거나 사원에서 기도하는 모습은 전통적인 태국불교의 모습이다. 그러나 출가자의 99% 이상이 남성인 비구승단이다. 전통적으로 여성출가자들은 정식 출가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평등한 상황에 놓여있다.

한편 이러한 상황 속에 비구니승단을 복원하려는 담마난다 스님은 1998년 스리랑카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담마난다 스님은 "스리랑카도 비구니를 인정하는 흐름이 생겨난 것은 최근의 일이지만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현재 나는 태국 최초의 테라와다 비구니"라고 웃어보였다.

현재 태국에서는 1928년 태국불교 승가최고위원회(Sangha Supreme Council)가 여성출가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생긴 후 '여성수계금지법'을 제정해 80여 년간 태국여성의 출가를 막아왔다. 승가최고위원회가 금지법을 제정한 이유는 전통 불교 교단사에 따른 것이다. 교단사에서는 부처님의 입멸 후 '끊어지지 않은 계맥'을 가진 비구와 비구니에 의해서만 수계 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스리랑카는 수계를 위해 계사를 미얀마에서 모셔온 역사가 있다.

1928년 여성수계금지법으로
비구니 존재할 수 없는 태국
스리랑카서 계 받는 일 늘어
1000여 비구니 · 사미니 탄생

담마난다 스님은 "스리랑카도 미얀마 승단의 도움으로 불교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다른 나라의 계맥을 이어받아 비구계가 부활할 수 있었는데 왜 비구니계는 될 수 없는가 생각해 태국에 적용했다"고 스리랑카에서 계를 받아온 이유를 설명했다.

담마난다 스님을 따라 태국 여성출가자들이 스리랑카를 통해 비구니계를 받으면서, 현재 태국에는 자체적으로 수계식을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비구니 스님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앞선 여성수계금지령 때문에 태국 비구승단에서 계사를 초청할 수 없었다. 결국 담마난다 스님은 2014년 스리랑카의 비구 계사를 초청해 태국에서 8명의 비구니 수계를 이뤘다.


태국 테라와다 불교의 최초 비구니 담마난다 스님. 사진출처=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이 일은 승가 최고위원회의 신경을 건드렸고 그해 말에 여성 수계에 대한 새로운 금지령이 발표됐으며, 태국 내에서의 자체적인 비구니 수계가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현재 승가최고위원회는 비구니 수계를 금지하지만 여성 행자와 사미니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 담마난다 스님은 이점에서 2008년부터 매년 두 차례 임시 사미니계단을 열고 있다. 담마난다 스님은 "위원회는 모든 면에서 우리를 막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항상 가능한 방법을 찾아낸다"고 말했다.

승가최고위원회의 지속적인 훼방에도 불구하고 현재 태국에는 대부분 스리랑카에서 계를 받은 285명의 비구니스님과 태국에서 수계한 800명의 사미니가 존재한다. 또한 해외에서 공부한 태국 지식인층과 진보적인 사회계층에서 비구니 승단에 대한 꾸준한 지지를 보이고 있다. 진보적인 사회 비평가로 유명한 술락 시바락사는 "현재 태국불교계 내에서 진행 중인 몇 안 되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담마난다 스님의 노력을 평가했다. 현재 태국의 전체 77개 주 중 30개 주에서 담마난다 스님의 비구니 승단을 지원하는 신도들이 산재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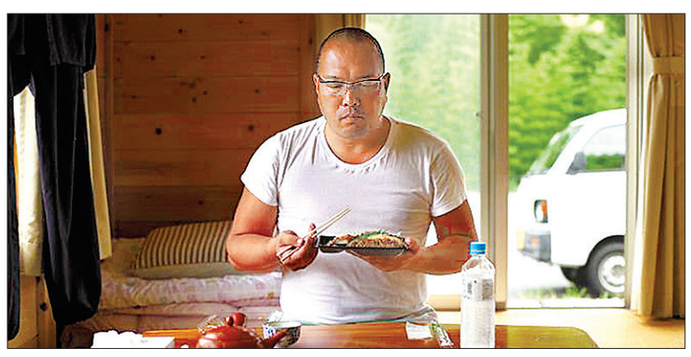
칸 영화제, 불교 다큐멘터리 주목

日 류코 쿠라시마 스님 출품작
'전좌-후쿠시마의 승려(Tenzo)'

세계적인 영화제 칸 국제영화제에 출품된 불교 다큐멘터리가 큰 주목을 받아 화제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12월 2일, 칸 국제영화제에 출품해 호평을 받은 영화 '전좌-후쿠시마의 승려(Tenzo)'에 대해 보도했다.

'전좌-후쿠시마의 승려(Tenzo)'는 자연과 조화로운 음식에 대한 성찰을 통해 선(禪)과 진리에 관한 물음을 던지는 영화다. 영화의 제목인 전좌(典座)는 사찰에서 대중을 위해 공양거리를 준비하는 소임자를 뜻하는 선종용어다.

시텐노지(四天王寺)의 주지이자 감독인 류교 쿠라시마(Ryugyo Kurashima) 스님은 2017년, 일본의 조동종과 묵조선을 대표하는 단체 '전일본조동선불교협회'의 회장이 된 뒤 영화를 제작하기로 결심했다.


영화 '전좌-후쿠시마의 승려(Tenzo)'에서 연기하는 류교 쿠라시마 스님. 사진출처=아사히신문

이 영화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가족과 절을 잃은 승려 치켄과 심한 견과류 알레르기로 때문에 과자만 잘못 먹어도 목숨에 위협을 받는 아들을 키우는 승려 류교, 두 출가자의 고통스러운 삶을 담아냈다.

영화 속 장면 중 출가자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포함한다는 이유로 조동종의 일부 보수적인 신도들은 영화제작과 상영에 강력히 반대했다. 그러나 쿠라시마 스님은 "현대인들은 모든 성직자들이 성자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종교적 삶의 좋은 면만을 보여준다면 그 종교는 결코 대중의 공감과 이해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끈기 있게 설명함으로써 반대 세력을 가까스로 설득할 수 있었다. 스님은 "종교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뒤집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칸 영화제에 출품한 의의를 밝혔다.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 불교계에서도 영화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다. 티베트불교 지도자 달라이라마는 "이 영화는 현대사회에 기여하는 지금의 일본 출가자의 삶을 묘사하고 있다"며 영화를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기쁨을 표현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지난 10월, 쿠라시마 스님은 이슬람교가 우세한 튀니지에서 열린 영화제에 참석했다. 스님은 주최 측의 요청에 따라 가사와 장삼을 수하고 레드카펫을 밟았다. 쿠라시마 스님은 레드카펫에서 "영화는 우리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이 바로 영화가 전하는 바"라며 영화를 통해 불교가 가진 가치를 세계인들과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中 불상 철거작업 전역 확대

"불상 없애면 믿음 포기"… 철거비용만 수백만 달러

중국 전역에 설치된 종교 상징물을 제거하는 작업이 전국적인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중국 내 종교 상징물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불교가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중국의 종교 자유와 인권문제를 다루는 온라인 매거진 '비터 윈터(Bitter Winter)'는 12월 4일 "중국 전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불교적 상징물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신도들을 탄압하는데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14일 내몽골 자치구 우하이시(市) 관음사에 있는 21m 높이의 관음상은 "동상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지방정부에 의해 강제 철거됐다. 철거작업은 열흘 동안 진행됐으며 약 56만 달러가 소요됐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100여 명의 경찰관을 현장에 파견해 철거 중 관음사를 감시했으며, 10여명의 신도들이 철거를 막기 위해 대치하는 상황에서 한 명이 체포됐다. 지역주민은 인터뷰에서 "약 42만 달러의 기부금으로 건립된 관음상은 전 세계 신도와 관광객들이 보러 오는 불상이었다"고 덧붙였다.

정부 소식통은 "당국이 올해 초 불상을 철거하라고 지시했고, 사찰 책임자가 이를 구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이 사건은 은폐됐다"며 "현재 종교국 관계자는 정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해 해임됐으며, 상부에서는 9월 25일 이전 이 불상을 철거할 것을 요구했고 그렇지 않으면 우하이 시장을 해고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폭로했다.

헤이룽장성(省)에 위치한 휘롱관 국립산림공원은 관음, 미륵불, 석가모니불 등 대형 야외불상들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이다. 휘즈 절벽에 있는 26.8m 높이의 린하이 관음상은 축복을 기원하러 오는 방문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 6월 지방정부는 "관련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비종교적인 장소에서는 야외 불상을 설치할 수 없다"면서 세 동상을 강제 철거했다. 철거 비용은 약 14만 달러가 소요됐다.

이 같은 중국 정부의 철거작업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즉, 종교적 상징물을 없애면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비터윈터는 "중국 정부의 행위는 어떤 형태의 종교든지 짓뭉개버리겠다는 궁극적인 목표가 깔려있다"며 "옥외 불상을 철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정 명령을 내려 가리는 작업을 하는 등 어떻게든 없애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틱낫한, 건강검진 위해 태국 방문

플럼빌리지 "폐렴 치료되는 동안 머물 예정"

영적 스승으로 추앙받는 틱낫한 스님이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태국을 방문했다.

틱낫한 스님이 만든 수행공동체인 플럼빌리지 소식에 따르면 스님은 11월 28일 건강검진을 위해 방콕을 방문하고 남은 기간 여행을 하는 등 순조롭게 일정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플럼빌리지는 "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스님은 똑바로 앉아 창문 밖 경치를 감상하는 등 별 무리 없이 이동했다"며 "50명의 제자들과 학생들이 태국에 도착한 스님을 맞이했다"고 전했다.

건강검진을 받은 스님은 방콕에서 175㎞ 떨어진 카오야이 국립공원에 있는 태국 플럼빌리지를 방문했다. 플럼빌리지는 "전문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따스한 햇볕과 건조한 공기를 즐기며 폐렴 회복에 전념할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로 93세를 맞은 틱낫한 스님은 2014년 11월 뇌출혈로 건강이 악화됐다. 이후 2015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가 전문 재활치료를 받았으며, 그곳에서 뇌졸중 이후 처음으로 부분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되찾았다. 그 후 프랑스로 돌아온 스님은 2016년 12월 베트남 생가와 더욱 가까운 태국으로 건너가 생활하다 고향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며 베트남에서 대외활동을 자제한 채 머물고 있다.


지난 11월 건강검진을 위해 방콕에 온 틱낫한 스님. 사진출처=플럼빌리지

이보형 객원기자

빛나는 금니불화의 탁월한 장엄성!
면발광 LED인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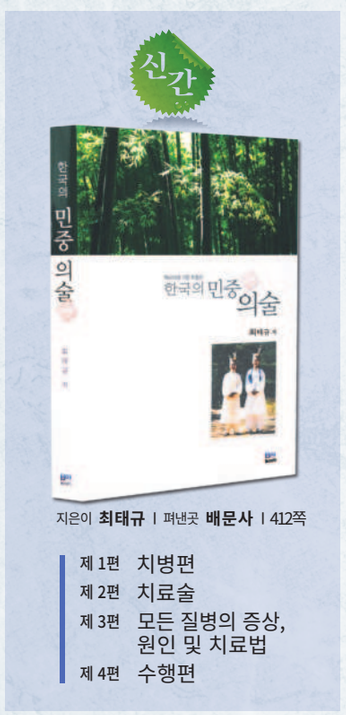


면발광LED인등
발명특허 제10-2350047호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



盛拂園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문화재수리기능 8826호 양학모.양희곤 父子합장
수미단 닫집 영단 인등 경락 위패 기타 법당장엄일체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일반적이지 않은 틀 깨는 작업



김성수의
글쓰기 명상과 자기상담

㉓ 논리가 중요치 않은 글쓰기



어휘 · 맥락 중요한 일반 글쓰기
나이 들며 길들여진 결과물일 뿐
종잡을 수 없이 횡설수설하거나
오감 옮겨 적는 글도 가치 있다

횡설수설(橫說竪說) 글쓰기

'횡설수설 글쓰기'는 여행으로 치면 '의도적인 길 잃기'다. 길을 걷는 사람이 의도치 않게 길을 잃으면 실종된다. 하지만 걷던 길을 의도적으로 버리면 '탐험'이 된다.

언어의 활용 중 '횡설수설'은 사람 입에서 나온 노폐물 취급 받는다. 횡설수설은 취객의 씨불임이나 인지부조화의 언어, 호들갑 떨거나 깜짝 놀란 사람의 말 따위에서 볼 수 있다. 횡설수설은 말 그대로 '비루하고 못난 사람의 종잡을 수 없는 말'이니 어휘의 맥락이나 품격이 있을 리 없다. 그렇다고 의사전달의 절박감조차 사라진 것은 아니다. 설사 그가 거짓을 말한다 하더라도 그는 뭔가 절박하게 표현 중이다.

횡설수설 글쓰기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 세상의 언어 질서를 관찰해보면 알 수 있다. 세상의 언어질서는 당신의 의식을 횡대와 종대로 줄 세워서 길들여왔다. 도덕과 윤리, 예의범절, 소통과 친절의 언어, 상하관계의 언어 등으로 분류된 횡대와 종대이다. 언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규범 질서의 그물망이다. 당신의 언어의식은 거대한 그물에 갇힌 정어리 떼처럼 알게 모르게 포획돼 있다. 자의든 타의든 사회적 동물로서 당신은 언어 규범이라는 그물망 안에서 헤엄치고 있는 셈이다. 그것은 평소 어린애에게 쓰던 말을 스무 살쯤 많은 어르신에게 써보면 확인할 수 있다.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은 그 분에게 '미안하지만, 자리 좀 양보해줄 수 있겠니?'라고 말해보시라. 보이지 않던 언어의 그물망이 홀연히 드러나서 당신의 목덜미를 옥죌 것이다.

세상의 모든 글쓰기 또한 마찬가지다. 자신이 직접 쓰고 폐기하는 글쓰기명상의 방식이 아니라면, 당신의 글은 타인에게 전달되는 체계에 놓인다. 당신이 쓰는 단어는 기본 맥락을 유지하면서 생각을 드러내야 한다. 객관성과 전달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의미와 맥락의 언어들이 이어달려야 한다. 일정 부분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의미와 맥락은 사라지고, 횡설수설이 된다.

그런 점에서 '횡설수설 글쓰기'는 언어라는 사회 질서에 대한 모반이다. 의미와 맥락과 일관성을 뒤집거나 도발하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알고 보면 당신의 언어는 애당초 의미와 맥락, 일관성이 없었다. 당신 언어의 일관성은 히말라야 계곡길처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다. 그럼에도 당신의 유년기 언어를 기억하기는 어려울 터. 분명한 것은 그 당시 언어는 맥락이나 의미 따위를 머금지 않았다. 엄마가 그냥 당신의 신호를 알아들었을 뿐이다. 유아의 표정, 장난감 같은 손짓, 고양이 잠꼬대 같은 옹알이만으로도 소통은 충분했다.

한 살이 되고, 두 살이 되고, 세 살이 되면서 당신의 언어는 종대와 횡대의 사회적 제식 훈련에 노출되었다. 갑갑해도 할 수 없고, 귀찮아도 할 수 없고, 재수 없어도 할 수 없었다. 언제부턴가 당신의 가족, 놀이, 음식, 노래, 운동, 그 어디에서고 '종잡을 수 없는 횡설수설'은 허용되지 않았다. 당신의 의식과 언어는 그렇게 길들여졌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 언어는 반드시 질서정연하고, 의미 전달이 명확하고, 문법 안에서 견뎌야 하는 도구인가. '횡설수설'이야말로 나의 최초 언어이자, 이승의 마지막 언어일 텐데. 지나고 보면 그 모든 게 횡설수설이었음을 죽음의 순간에 깨우치게 될지 모른다. 나는 왜, 언제 그런 유희와 의식의 자유를 포기했을까. 도대체 세상 어디에 언어처럼 교묘하고 집요한 강제 질서가 또 있단 말인가. 우리는 왜 논리성, 개연성, 합리성, 근거 따위를 이고지고 여기까지 왔을까. 끔찍한 언어 포획망에서 벗어날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을까. 언어는 인류의 의식이 낳은 옥동자이지만, 이제 언어와 의식이 서로 묶고 묶여서 자유로운 횡설수설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횡설수설이 왜 이렇게 낯선 일이 되고 말았는지.

- 어떤 말이든 '지금' 나오는 대로 쓴다. 그 다음에는 '의도적으로' 다른 의식 영역의 말을 적으라. 욕설이 나오면 욕설을 적었다가, 몸 감각을 적고, 그 다음에는 기억을 적고, 그 다음에는 감정을 적어보라. 전혀 연결성 없는 말을 '의도적으로' 적어간다.

- 친구, 연인, 옛 스승, 상사, 부하 등을 떠올리면서, 술 취한 사람처럼 횡설수설 써보기.

- 자신의 잠꼬대를 받아 적는다고 믿고 적어가기.

- 자신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서, 여기저기 나뒹구는 단어나 의미를 명사형으로만 적어보기.

긴 세월 잘 다져진 길을 버리고 누구도 걷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두렵고, 어렵고, 의미 없어 보인다. 전 국민 대상 사회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성장한 글쓰기는 의미의 일관성과 형상화를 좋아하지만 '횡설수설 글쓰기'는 그런 글에 낙제점을 준다. 세상의 언어 질서를 뒤집어서 말길이 막히고, 럭비공 같고, 종잡을 수 없을 때 횡설수설은 그다워진다. 그런 점에서 맑은 정신에 '횡설수설'은 당신의 두뇌를 쥐나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의식의 탐험임을 잊지 않는다면, 당신은 의식의 새 길을 열기로 한 모험가 반열에 선 것이리라. 당신은 때로 횡설수설할 권리가 있다.

오감(다섯 감각)동원 글쓰기

당신의 한 순간을 색과 맛과 냄새와 소리와 촉감으로 체험할 수 있다면, 그 순간의 삶은 평면일까 입체일까. '오감 동원 글쓰기'는 밋밋하고 건조한 삶의 결을 정성껏 매만지는 글쓰기이다. 2차원의 평면적 삶을 3차원으로 일으키는 일이다. 당신의 존재성과 긴밀하게 연관되는 다섯 느낌을 매만지는 일이다. 사소한 일 한 가닥에서도 풍성함을 맛보는 일이다. 관찰 대상의 해상도는 높아가고 존재는 섬세해지며 맛과 향기가 싱싱해지는 글이다. 납작하게 눌러 붙은 마른 빵이 부풀고, 코끝이 데일 것처럼 김이 모락거리며 달콤한 단팥 내음이 혀에 감기는 일이다.

당신은 당신의 다섯 감각 기관이 무언가를 접촉하면서 생명이 되었다. "나 빼기 눈, 귀, 코, 혀, 피부"를 산수 해보면 금세 알 수 있다. 무엇이 남는가. 당신의 근본 두려움은 바로 이 다섯 감각기관의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다. 보는 능력이 사라지고, 듣는 능력이 사라지고, 냄새 맡는 능력, 맛보는 능력, 감촉하는 능력의 소멸은 실질적인 죽음이다. 그런 점에서 오감의 생동은 생명력 자체다. 당신은 이 다섯 감각 기관을 통해서 세계의 정보를 얻고, 이해하며, 그 이해를 기반으로 다시 세상을 보고 접수한다. 오감의 작동과 정보 수집, 판단과 이해의 과정 안에서 발생하는 물적, 정신적 행위가 '삶'이다.

당신은 같은 사안을 두고 평면적 설명에 치중하는 글을 쓸 수도 있고, 다섯 감각기관을 활용하는 글을 쓸 수도 있다. '창 밖에 눈이 내린다'는 말은 '눈이 내리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이와 같은 설명 한 줄을 '오감 동원해' 표현해본다고 하자.

눈의 입장에서는, 창 밖에 하얀 알갱이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다. 코를 중심으로 쓴다면, 첫 눈이 내리는 거리를 내려다보며 어린 시절 엄마의 분내음을 맡는다고 쓸 수도 있다. 귀의 입장에서, 바람이 걷는 소리가 들려온다고 표현해도 누가 시비하지 않는다. 내리는 눈에 대한 혀의 입장은 어떨까. '혀를 내밀어 맛을 보다가 문득 여섯 살 시절의 나를 만났다'고 할 수도 있다. 피부는 눈이 닿자마자 녹아서 무슨 느낌인지 알기 어렵다. 그럼에도 '눈이 내 몸을 외할머니처럼 쓰다듬는다'라고 형용할 수 있다. '창 밖에 눈이 내린다'는 한 마디는 다음과 같은 입체적 상황으로 묘사될 수도 있다.

'흰 눈이 내린다. 첫 눈이었다. 눈은 대로변 양버즘나무를 지울 듯이 내린다. 건너편 비오자이네 호텔의 배기구에서 하늘거리던 흰 연기는 쏟아지는 눈발에 뒤섞여 연기인지 눈인지 구분되지 않는다. 거리의 소음이 쏟아지는 눈에 파묻혀 일순 정적의 세계가 펼쳐진 듯했다. 해랑길 4차선 아스팔트에 쏟아져 내리는 눈은 까맣고 번들번들한 도로 위에 닿으면서 사라졌다. 그는 방금 흰 알갱이들로 있었던 것과 사라진 것을 지켜보았고, 잠시 그것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등 부위 어딘가, 참기 힘든 간지러움을 느꼈다. 왼손을 등으로 갖다 대 중지를 곧추세웠지만, 간지러운 부위는 잡히지 않았다.'

'오감 동원 글쓰기'는 평면으로 놓여있던 판자 하나를 텐트나 집으로 입체화시키는 글쓰기이다. 직설적이고, 근거 명확하고, 결론만 짧게 쓰는 글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오감 동원 글쓰기'가 힘겨운 장애물 같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처음에는 아주 단순한 사건 하나만을 잡아 적어가보라. 숨어 있던 의미와 새로운 발견, 풍성한 감각의 세계가 당신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 밥 한 숟가락 먹는 모든 순간을 오감 동원 글쓰기로 적어본다.

- 당신이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오감을 동원한 글쓰기를 해본다.

- 지금 일어난 '한 생각'을 적고, 그것에 대해 오감을 동원한 글쓰기를 해본다.

- 최근에 가장 강력했던 감정에 대해 오감 동원 글쓰기를 해본다.

- 어떤 사람에 대해 오감을 동원하여 묘사해본다.

- 어떤 현상이나 물질에 대해 오감을 동원하여 묘사해본다.

좋은 산문이나 소설을 유심히 읽어보면 알 수 있다. 감각 기관이 다양하게 동원되는 소위, 묘사 글쓰기를 자주 볼 수 있다. 다섯 감각 기관을 활용하여 하나의 사물, 하나의 사건을 적어간다는 것은 글쓴이의 감각 안테나를 높이 세우는 일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미각으로 그려보는 일, 소리를 모양으로 형상화하고, 이미지를 냄새로 표현하고, 추상적인 대상을 혀로 맛보고, 보이지 않는 대상을 감촉으로 표현하는 글쓰기는 자연스레 의식의 확장과 풍성함을 담는다.

'오감 동원 글쓰기'는 통상적이지 않은 글쓰기 방법이다. 오늘처럼 정보 전달과 효율성 중심 사회에서는 소모적 글쓰기로 비칠 수 있다. 오감 동원 글쓰기가 낯선 당신은 어쩌면 학술용 글쓰기에 젖어 있을지도 모른다. 학술용 글쓰기는 곧 '무슨 말인지 알면 되는' 글쓰기이다. 전달 내용을 알기만 하면 장땡인 사회는 건조하고 단단한 사유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 '오감 동원 글쓰기'는 신속함이나 적확함, 효율성, 정보 집약성 면에서 취약하다. 하나의 사물, 하나의 사건에 대한 여러 감각기관의 접촉은 그만큼 '느림, 기다림 통찰, 비효율, 깊음, 고요'와 같은 명상적 행위와 닮았기 때문이다.

지금 사는 삶이 재미없거나 말라빠졌다는 느낌이 들곤 하는가. 그럴 때는 사사로운 사안 하나를 들고 '오감 동원 글쓰기'를 해보라. 젓가락을 손가락 사이에 끼고 앉아 그것을 찬찬히 바라보기. 눈, 귀. 코, 혀, 피부 감각을 동원하여 그 젓가락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감각적 사유를 적어가보기. 그 작은 행위 하나에도 평소 보지 못했던 것이 있고, 듣지 못했던 소리가 있고, 맛보지 못했던 맛이 있고, 낯선 내음이 있고, 신선한 감촉이 있다. 다적은 후 다시 한 번 읽어보고, 잘게 찢어 없앤다 한들, 무슨 문제겠는가.

〈마음과학연구소 대표〉

그림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卍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쟈못쟈'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80,000원	
	사찰용 65×145cm 가정용 45×110cm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특별증정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대행 스님

근본에다 맡기고 관하는 것이 그대로 내가 죽는 방법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조복받으려면

질문 : 우리는 내 몸과 마음을 가지고도 왜 내 맘대로 안 될까요? 내가 나를 자유롭게 굴리고 싶은데 잘 안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몸과 마음을 조복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그래서 얘긴데 이 모든 것을 만약에 '길을 지나가다가도 천도재를 한다.' 이 뜻은 뭐냐? 천도를 한다는 겁니다. 소나 말이나 돼지나 어떠한 사람이나 가다가 보면 그 속을, 남의 속을 다 아니깐…. 남의 속을 다 아는 것, 타심통이 도가 아니다 이런 것이 뭐냐 하면 타심통을 안다면 즉시 실천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도'입니다. 실천 없는 거는 도가 아닙니다. 오신통은 그릇을 만드는 거고 또 우리가 실천은 그 그릇대로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지 마세요. 육으로다가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놓는 거보다도 이 정신계의 참자기, 자기란 수억겁을 거쳐 온 아주 보배입니다. 그래서 내 몸은 그 억겁을 거쳐 온 그 주인공이, 즉 말하자면 주장자가 주인이고 나는 그냥, 몸은 시자인 것입니다. 시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반가워서 악수를 할 때에 마음이 가니깐 손이 덩달아 따라간 거지, 마음이 안 가는데 손이 악수를 하려고 덩달아 따라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마음이 움죽거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움죽거리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따라서 매여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매인 몸은 공했다. 매인 몸이기 때문에 공했다. 찰나찰나 물을 마셔도 내가 마셨단 말을 못 한다. 왜? 이 지구와 같은 이 몸속에도, 이 한 개체도 생명체들이 얽히고설키고 많이 있음으로서 어떤 것이 먹는다고 할 수 없으니깐 "내가 먹은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냉정히 따지고 보면 그 중생들이 달래서 나는 심부름만 한 거지, 아래로는 중생들의 심부름, 위로는 그 부처님의 시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아래의 중생들을 모두 흡수해야 된다." 이러는 거는 조복을 해야 된다. 한마음으로 조복이 돼야 내가 마음먹는 대로 한마음으로 따라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의식들이 다 보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자기 마음을 그대로 천차만별로 보살행을 하게끔 자유권을 줬습니다. 자유권을 준 게 아니라 자기가 자유권을 가졌기 때문에 자유권이 있게끔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휴! 내가 이거 뭐, 중생인데 이렇게 허공에 발을 떼어 놓을 수가 있겠나?' 이러지만 우리는 그냥 거기다가 맡기고 관하고 이러는 게 그대로 내가 죽는 방법이요, 내가 함이 없이 하는 방법이요, 둘 아닌 도리를 아는 방법이요, 구경계에 이르는 방법이요, 전부가 아니 되는 게, 아니 하는 게 없는 방법입니다.



그림 · 최주현

예를 들어 여러분 친척이 만약에 미국에 사는데 미국에서 급하게 기별이 왔다고 합시다. 그럼 어떡해야 되겠습니까? 그쪽의 마음도 이쪽의 마음도 둘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길다 짧다, 악이다 선이다 이거를 전제하고 무조건이었습니다. 무조건이십니다. 우리도 무조건입니다. 이유를 붙이지 않아야 됩니다. '너는 고렇게 얄밉게 했으니깐 넌 그렇게 해도 싸.'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는 도저히 부처님의 그림자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직껏 수차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리고 실천을 하라고 그랬죠. 이거는 어떠한 거를 거기 집어넣고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인공에다가 그냥 '둘 아닌데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자기 주인공에 관하면 그 주인공으로 그냥 나투게 됩니다. 나투게 돼서 그것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급하니깐 그랬지만 가까운 데서 그럴 때는 데리고 와서 관하는 것도 알려 주고 이러면서 가르쳐 줘야 자기가 자기 발로 걸어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깐 가까운 데 사람은 조금 공부를 가르치는 편이고 또 가깝지 않고 멀리 있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줘야 합니다. 아셨죠?

그게 바로 무심 도리요, 바로 공용의 도리요, 공체의 도리요, 공식의 도립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뭐든지 내줄 수 있는 여건이라면 다 내준다 이런 거 말입니다. 내도 내도 줄지 않고 또 넣어도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수만 이 허공을 다 집어넣는대도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그건 체가 없는 까닭입니다. 체가 없는 데다가 체가 없는 걸 넣으니 이 천차만별의 생명들을 다 집어넣어도 두드러지는 법이 있겠습니까, 어디? 없죠. 그러니깐 인간에게는 다 자유권을 줬는데, 마음을 자유권으로 쓰라고 줬는데 자유스럽게 쓰질 못해요. 이게 작다 크다 판단을 하기 때문이죠. 속으로는 이게 적다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만약에 급한 일에는 판단도 필요 없습니다, 그게.

예전에 6 · 25 때 모래톱에서요, 총이 막 날아오니깐 총알을 다리에 맞아서 다리가 그냥 이렇게 저거 했는데도,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막 그냥 뛰는 거 있죠. 마음이란 그렇습니다, 마음이 급하면. 마음이 느긋하면 좀 천천히 걸어가게 돼 있고, 또 아프다고 그냥 꾀를 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게으르지 않은 사람은 아파도 그냥 '일어나야지. 할 건 해야지.' 하고 마음이 그렇게 돌아갈 때 바로 일어서집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하다 뭐하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이 차차분해선 그냥 깔아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면 '난 이제 죽는다.' 이런 거 있죠, 왜. 그런 거 많지요. 그런데 자기 마음이 죽으니까 이 몸속에 있는 생명들도 다 죽는 거예요. '인젠 죽었다.' 하는 거요. 이 몸속에서 작용을 해 줘야 할 생명들이 '나는 죽었다.' 하니 그게 살 수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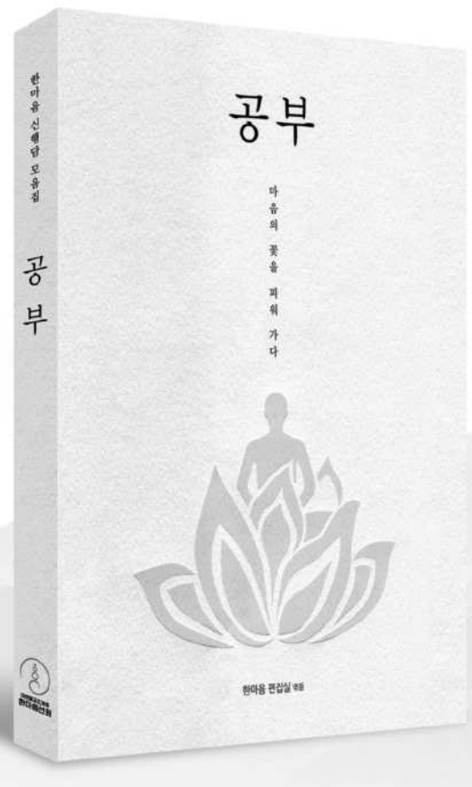
생각을 해 보세요. 위 공장의 책임을 맡아 가지고 있는 관리인 또는 간장 관리인, 소장 관리인, 대장 관리인, 콩팥 관리인, 방광 관리인, 척수 · 척추 관리인, 그 모두 이 두뇌는 모두의 관리인들이 다 폭삭 그냥 죽는 거예요. 마음이 말입니다. 의욕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아이, 이건 첫째 선두자가, 앞에 선 선두자가 마음이 '야, 이건 다 죽겠구나. 인젠 죽었다.' 이러면 그 밑으로 쭐쭐 내려가면서 다 죽겠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살리고 죽이는 거는 그 주장자에 매여 있으니 그렇게 남이 이러는 대로 쓸리지 말고 저러는 대로 쓸리지 말고 내 주장을 세워라 이겁니다. "악하고 선한 거를 다 놔야 된다." 이런 원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 거기에 한데 합해서 돌아가죠.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면서 정히 급하고 그럴 때도, 이 국난에 이렇게 처해 있을 때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이런 걸 알고 '회사가 어떠한 지경에 놓여 있게 된다. 이렇게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할 때에 벌써 미리미리 이걸 처리를 해야 되겠죠. 다 인제는 꺾어지고 다 저거 한 연에 이걸 일으켜 세우려니까 힘들죠. 모두 가정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부부지간에 싸우고 헤어지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싸우는 거거든요. 내가 없다면 뭐가 싸울 게 있습니까? 부부지간에 만난다 하더라도, 자식의 인연을 짓는다 하는 것도 다 끼리끼리 만나는 인연입니다. 금은 금대로 모이고 인연이 되고, 무쇠는 무쇠대로 인연이 되고, 시장에 가면 사과는 사과대로 인연이 되고, 배는 배대로 인연이 되고 이렇게 인연이 된 사람들끼리 한 가정이 됐다면 그 가정에서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러니 모두 각자 내 탓으로 돌리고, 둘 아니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부드러운 말 해 줄 수 있고, 부드러운 행동 해 줄 수 있다면 그 집은 아주 화합이 되고 부유하게 늘어 가고 안 되는 일이 없이 그렇게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지, 왜 만날 그렇게, 그렇게 좁게 그냥 자기 마음을…. 꿈을 꾸구도요, 허, 그것도 맘대로 못

☞ A18면으로 계속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운주사 02-3672-7181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

마음을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은 팔자 운명이 붙지를 않아요

☞ A17면에서 계속

해요. 아, 그거 그냥 주인공에다 탁 놓고 '그것도 거기에서 화해서 보이는 거니깐 거기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 하고 탁 놓으면 될 거를 '이게 꿈이 나쁘니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깐 일이 생기고 마는 거죠. 그게 팔자 운명이에요. 마음을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은 팔자 운명이 붙지를 않아요.

이 모두가 살아나가는 방법이 그렇게 부처님의 그 뜻의 길을 좇아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방편의 길! 이것이 바로 씨를 여물게 하고, 즉 말하자면 '귀신 방귀씨를 얻어서 귀신 방귀털을 먹여서 잘 길러 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귀신 방귀씨라니 그게 뭔가? 귀신 방구털이라니 그게 뭔가?' 이러죠. 체가 없으니 그것이 다 귀신 방구털이지 뭡니까? 체가 없는 것이 체가 없는 것을 먹여 키워야 그게 정상적으로 키워지지, 체가 있는 것이 체가 없는 거를 키우려면 키워집니까, 그게? 그러니까 마음, 이 마음이 그렇게 여기서 점프하듯 그냥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물리가 터지고 그래서 불교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되죠. 아는 사람이 된다면 그건 함이 없이 모든 일대사의 인연을 다 짓는 겁니다. 함이 없이 하는 도리.

육신의 고통이 무서워요

질문 :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머리가 아프고 소화도 안 되는데 병원에서는 신경성이라고만 합니다. 저는 정말 힘든데 우리 인간은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요? 저는 이런 고통이 너무 무서워요.

답변 : 예를 들어서 댁의 몸뚱이 속에 들어 있는 생명체들이 전체 살고 있는데 댁은 그 살고 있는 생명체들의 관리인이며, 즉 말하자면 집합소밖에는 될 수 없죠. 그런데 항상 내가 산다고 하니까 거기서 돌봐주지 않는 거예요. 한마음이 돼야 이게 작용을 해 줄 텐데 한 마음이 돼 주지 않는다면 대뇌로 통신이 되질 않아요. 대뇌에 통신이 돼야 중뇌에서 책정을 내려서 사대(四大)로 통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마음법이 대승법(大乘法)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의 행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한계가 따로 없어요. 우주가 한계가 있다, 삼천대천세계가 한계가 있다 이런 것도 없고, 넘어가면 넘어가는 대로 넘어가고, 넘어간다는 소리조차도 붙일 수 없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우리가 제일 시급한 게 지금 마음을 그렇게 넓게 쓰면서, 나쁜 게 들어왔을 때는 '나쁜 게 들어오게 한 것도 너니까 좋게 들어오게 하는 것도 너다.' 하고 거기 놓아라. 또 잘돼서 들어오는 건 '아, 참 감사하구나.' 하는 거를 느끼면서 거기 놓아라. 그래야 컴퓨터에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지면서 새로이 자꾸 나온다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근본이 뿌리라면 싹은 몸입니다. 이 싹은 이 뿌리로 인해서 전체가 삽니다. 그런데 뿌리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분이나 수분이나 철분 모두를 갖다 흡수해서 에너지를 올려보내게 돼 있습니다. 이건 자동적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온 이 몸 자체는 바로 공기력과 태양력을 흡수해서 또 밑으로 내려보내는 거죠. 즉 말하자면 우리 몸에 정맥과 동맥이 서로 돌아가면서 살고 있는 거와 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관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자기 뿌리를 믿어서 '뿌리야, 너 요만큼 에너지를 흡수할 거를 이만큼 좀 흡수해서 올려보내 다오.' 하는 거나 진배없는 겁니다. 용도를 너무 잘 아니까 말입니다. 싹이 생각하는 거를 뿌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몸뚱이 하나가 턱 쓰러졌다 이런다면 그냥 발광을 합니다. 침착하게 '네가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려! 살리는 것도 너, 죽이는 것도 너다. 죽을 때가 됐으면 애나 어른이나 다 죽는 거지마는, 죽게 하는 것도 너고 살게 하는 것도 너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하고 그냥, 죽는 거를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한데 그냥, 그 빈 손과 빈 발이 그냥, 송두리째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죠. 그래서 온몸의 모든 의식들을 작용케 해서 낫게 해야 할 텐데, 이거는 뭐 금방 '아이고, 주인공!' 이랬다가 금방 '아이구, 이거 어떡하나?' 저 누구 부르고 누구 찾고 허,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있다면 지켜보고 있는 거죠. 지켜보고, 예를 들어 여러분한테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면 변호사한테 가서 청하지 않고 일이 됩니까? 청하지 않고도 됩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잘못됨과 잘됨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대화를 나누지도 않고 일이 됩니까? 밥을 짓지 않고 생쌀로 놓아두면 그냥 밥이 됩니까?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쌀을 넣고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그냥 밥통은 지키고만 있는 거죠, 그냥. 그거와 같습니다. 변호사는 건수가 와야 할 텐데, 건수가 안 오니까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거와 같아요. 생각 없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송장이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다고 집착만 하지 마시고 전체 주인공에, 말하자면 전체 주인공의 일이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댁의 몸뚱이 한 덩어리에 생명체들이 헤아릴 수 없이 산다면 한 덩어리가 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어떤 한 개체지 혼자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 좀 마음을 넉넉히 써서 '네가 끌고 가는 거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 좀 맡겨 봐요. 그리고 죽는다 산다를 떠나 봐요, 좀. 네? 죽이든지 살리든지 제가 끌고 가는 거 제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제삼자인 내가 그렇게 애씁니까? 아, 생각해 봐요, 글쎄. 자기가 형성시켜서 자기가 끌고 가는 집이 헐어졌으면 집주인이 고쳐야지, 왜 집이 걱정을 해야 합니까? 이 집이 헐어졌으면 이 집 지은 사람이 고쳐야지, 왜 이 집이 걱정을 해야 합니까? 안 그래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신이 왜…

질문 :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절에 열심히 기도하러 다니면서 정성들 들이던 분인데 언제부턴가 정신이 좀 이상해지더니 그의 자식도 뭔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던 분에게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답변 :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여여하게 살면서도, 떼어 놓는 사이 없이 발길을 떼 놓으면서도 불법을 따로 찾으니 이렇게 난감한 노릇이 어딨겠습니까. 떡이나 해 놓고 밥이나 해 놓고 이 신 저 신 찾으면서 이렇게 해갈을 하고 다니는 이런 여러분이 요다음에 얼마나 누가 되는지 그걸 짐작도 못 하실 겁니다. 지금도 얼마나 고초를 받는 사람이 많은지 아십니까? 그렇게 온 절을 지어 놓고 정성을 지극히 들이던 사람들이 정신이 돌아가지고서는 헤매고 다니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또 물을 떠 놓고 산기도 드린다고 다니면서 그렇게 해 가지고 미친 사람을 내가 많이 봤습니다. 또 부처님을 집 안에다 모셔 놓고선 정안수 떠 놓고선 빌던 사람이 정신이 돈 거, 자기만 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대로 내려가면서 그것이 풀리지 않으니, 자기 한 생각 잘못해 가지고는 그냥 그 손손이 내려가면서 그 곡경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러고서는 귀신을 그저 무슨 신 무슨 신 끌어다 대기만 했지,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해결을 못 했으니 그게 바로 그 어머니 아버지라면 그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온통 자기가 마음으로 만들어서 신들을 해 놓고서 그 신들을 해결을 못 하니까 대대로 내려가면서 그냥 그렇게 연관성이 생기고 유전성이 생기고 얽히고설키고 인과로서의 벌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다 말로 다 하리까.

그리고 또 기복으로써 절에 다니면서 정성을 지극히 하던 사람 자손들이, 어머니나 부모가 하듯이 잘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그거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극히 기복으로 다니던 사람들의 자손들이 시대가 변하는 대로 잘못하는 게 많지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자식도 그렇게 기복으로 부모가 그랬다고 해서 자식도 그럭하고 다니라는 법이 어딨습니까? 그러면 그 자식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 폐단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 마음으로 지어놓은 신들, 귀신의 신들이 그 폐단성 주는 건 말도 못 합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귀신이라면 모두가 귀신이고 내가 바로 선신이라면 모두가 선신인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지어 놓고 귀신을 만들어 놓고 그 귀신에 말려 가지고 대대로, 몇 손 대대로 내려가면서 그러다가 그냥 아주 시신도 없이 그냥그냥 거리로 나앉게 되는 사람들을 많이 봤고, 자손들이 폐병이 들어서 대대로 그냥 그렇게 앨 쓰는 사람도 봤고, 자식들이 홀딱 망해서 그렇게 그냥 5대 6대가 그렇게 되는 사람도 봤습니다. 또는 며느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딸이 그렇게 되고, 딸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누구가 그렇게 되고…. 연방 아들도 정신이 돌아서 그렇게 되고. 야,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그 무서운 그 일들을 잘 모르실 겁니다. 대략 짐작은 하시겠지마는 나는 그것이 너무 무섭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고 저지른 일이지마는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유전성으로써 유전되는 그 이치들이 너무나 무섭게 돌아간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중학생 아들이 말썽만 부려요

질문 : 저는 중학생 아들이랑 둘이 살고 있는데 이 아들 녀석이 자꾸 학교도 결석하고 남의 물건에 손 대고 말썽을 부려서 관도 해 보고 혼내도 보고 때려도 보고 나름 한다고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저는 장사를 하느라 하루 종일 애만 지켜볼 수도 없고 애 앞길을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답변 : 그게 끼리끼리 만난 인연들이란 얘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나 그런 걸 보는 사람이나 똑같은 인연이거든요. 똑같은 인연끼리 만났으니 어떻게 해야 그것이 없어질까요? 그러니까 '주인공, 아들 주인공하고 나하고 둘이 아닌 까닭에 당신만이 그거를 돌려놓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잖아. 딴 데서 해결 못 하니까 당신만이 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 놓으시라니깐요. 그냥 놓고 태평할 수 있는 마음의 성장이 됐다면 그거는 다 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체가 있는 것이 마음이 아닙니다. 체가 없는 것이 마음이지.

그러니까 그게 백 마디 천 마디 해도 다 소용없는 말입니다. 그 잘못된 것이, 과거로부터 온 것이 잘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온 거라면 과거에 살던 자기 주인공한테 모든 걸 관하시고 거기다가 그냥 편안하게 놓으세요. 그래야 해결이 납니다. 마음으로 지은 거 마음으로 갚아야 되지, 마음으로 해결을 해야지, 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고생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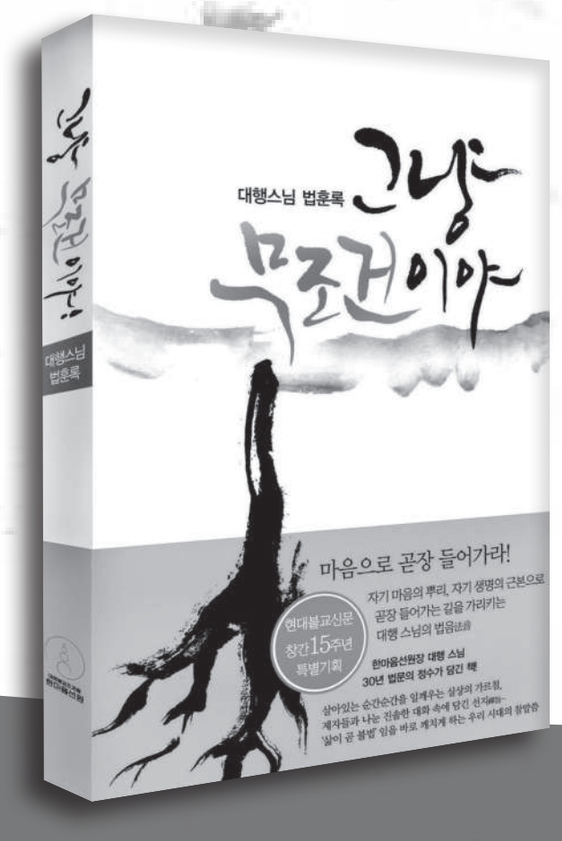
그 요량을 몰라서 그렇지, 자꾸 막다른 골목으로 자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면 정말이지 큰일 나는데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걸 보고도 주인공을 진짜로 믿는다면 아, 거기다 그냥 맘 편안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거기에서 마음의 기탄이 없고 걱정이 없으니깐 아이, 급하잖아요. 주인공이 자기의 영혼을, 영혼이 영혼을 시켜서 그 영혼을 끌어오니까, 마음이 끌려오니깐 육체도 끌려오죠. 그렇게 해서 착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 체가 없는 마음이 주인이고 체가 있는 몸은 체가 없는 자기에게 시자일 뿐입니다. 시자가 잘해야 그저 마음 따라서 하되 그 시자고 주인이고 그 가운데 내가 보고 듣고 하는 판단이 흐리면 안 되죠. 흐리게 하지 말고 무조건 거기다 맡기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잘해서 거기다 맡기고 나간다면, 무조건 물러서지 않고 패기 있게 그냥 그렇게 나가시면서 점프하시면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편안할 수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 마음공부를 열심히 하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 거기 가도 고만 안 가도 고만 마음공부 하는데 가면 뭘 해. 여기 집에서 하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러는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길에 오다 가다가도 배우는 수가 있는데, 이 스님네들한테 와서, 또 이 대중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토론을, 얘기를 하는 거를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것도 배울 수 있고 '저렇게 해야겠다.' 하는 것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그 마음공부를 잘하시면 덩달아 따라서 그거는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없어지나, 안 없어지나.

> 살리고 죽이는 거는 그 주장자에 매여 있으니
> 남이 이러고 저러는 대로 쓸리지 말고
> 내 주장을 세워라 이겁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현불 논단

‘화합과 혁신위원회’에 바란다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조계종서 출범할 ‘화합 · 혁신위’
한국불교 전체 미래상 디자인

민주 · 자주화, 불교계 앞선 과제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 찾아야
화합 · 혁신 키워드서 해답 존재해

‘화합 · 혁신’ 부처님이 걸어온 길
행복 실현위한 공동체 구성 목표

한국불교의 그랜드 디자인(Grand Design)을 도안할 ‘화합과 혁신위원회’가 출범한다. 그 위원회는 조계종에서 출범시키지만, 그랜드 디자인은 한국불교 전체의 미래를 그린다.

본격적인 출범에 앞서 출 · 재가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가 올 3월부터 수십 차례 회의와 워크숍을 하면서 한국불교의 방향과 목표, 전략과제를 사전에 준비하였다. 필자도 일원으로 고민을 같이 해왔는데, 현재의 시대 상황에 맞는 한국불교의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것이 힘든 과제였다.

어떤 사회든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체계가 존재한다. 그것을 ‘패러다임’이라고 한다. 한국사회의 1980~1990년대에는 ‘민주화’와 ‘자주화’가 우리사회를 관통한 패러다임이었다. 패러다임은 당대 한국불교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민주화와 자주화 패러다임은 그대로 한국불교의 패러다임을 형성하였다. 군사정권의 독재가 총무원장의 독재와, 미국에 대한 종속이 불교의 정권에 대한 예속과 결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총무원장의 독재를 종식시키는 것이 한국불교의 민주화로, 정권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한국불교의 자주화로 분출되었다. 이와 같이 민주화와 자주화는 그 시기 한국사회의 시대적 과제이자 한국불교의 시대적 과제였다.

그러나 이제 조계종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야만 한다. 그리고 그 패러다임은 조계종을 넘어 한국불교를 관통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화와 자주화라는 패러다임은 세속 사회에서는 절대적 이념이 될 수 있지만, 출세간의 불교교단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민주화와 자주화라는 세속의 이념이 불교교단에서 절대시되면서 초래된 세속화 현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두 이념 중에서도 민주화는 정치 과정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인데, 조계종에서는 그 기능과 권한을 중앙종회에 부여하였다. 과거에 무소불위였던 총무원장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정치기구인 중앙종회의 영향력이 종단 전반에 미치면서 승가의 곳곳에도 정치가 스며들었다. 종단제도의 세속화가 승가 운영의 세속화를 초래한 것이다.

지금은 1994년 개혁불사의 패러다임이 가진 ‘세속적’이라는 한계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어야 할 때이다. 그것이 한국불교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야 하는 ‘화합과 혁신위원회’의 시대적 과제다.

위원회의 명칭에서 ‘화합’은 1994년 개혁불사의 정신을 계승해온 종단이 화합하지 못하고 있음을, ‘혁신’은 그 종단이 새로이 혁신해야 함을 반증하고 있다. 화합하여 혁신함이 현재의 시대적 과제인 것이다.

이제 화합하여 혁신하는 길만이 조계종은 물론 한국불교가 살 길이다. 그 길은 부처님이 걸은 전법의 길과 다르지 않다. 부처님은 화합된 승가로서 교단과 사회를 혁신하였다.

이에 한국불교는 승가공동체와 사회공동체를 구현하여야 한다. 공유와 보살핌으로 화합하는 불교공동체를 만들고, 타자 중심의 보살행으로 융합하는 세계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이 공동체의 궁극은 ‘행복 실현’이다. 모든 생명이 삶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게 사는 세상, 이것이 곧 붓다의 공동체이다. 일체 중생이 갈등하지 않고 평화롭게 공생하는 세상, 그것이 또한 불교의 공동체이다.

앞으로 ‘화합과 혁신위원회’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모든 생명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그랜드 디자인을 그려내야만 한다.

社 說

원력, 한국불교 바꾸는 힘

조계종 제36대 집행부가 지난 4월 “하루 100원, 백만 명 원력이 불교 바꾼다”는 취지로 시작한 백만원력 결집불사가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최근 현대판 장자의 50억 원이라는 거액 기부에 이어 전국 각지에 배포한 발우 모양의 저금통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부산에 거주하는 설매 · 연취 보살의 50억 원 기부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8억5000만 원의 기금이 모연됐으며, 앞으로 6억5000만원의 약정금도 남아있다.

백만원력 결집불사 선포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 같은 사부대중의 원력은 주목할 만하다. 백만원력 결집불사 초기 조계종 안팎에서는 사업의 성공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건립,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입상, 계룡대 3군본부 영외법당 건립, 불교전문요양병원 건립 등 각 사업별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세간의 우려는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레 사라졌다. 전국 사찰을 비롯해 수많은 불자들이 함께 뜻을 모아 각자의 원력을 크고 작은 기금으로 전했다. 고사리손으로 동전을 모은 새싹불자들의 원력,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엄마의 원력, 더 나은 불교로 거듭나길 바라는 불자의 원력까지. 개개인의 풀뿌리 원력은 백만원력 결집불사라는 창구로 모여들었다.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은 ‘보시하는 자는 공덕을 얻고, 자비심을 지닌 자는 적이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악이 소멸되고, 탐욕을 떠난 자는 고뇌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더 나은 한국불교를 위해 사부대중 모두 육바라밀의 첫째인 보시를 실천하면서 원력을 보태자.

불교, ‘탈종교’ 대책 세워라

한국갤럽의 ‘한국인이 좋아하는 종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중 절반에 가까운 43%가 호감가는 종교가 없다고 밝혔다. 2014년과 비교하면 탈종교와 탈제도종교화가 확연하다.

물론 불교의 경우 가톨릭에 비해 조사결과는 양호하다. 2014년과 비교하면 좋아하는 종교로 불교를 답한 이는 1% 이내 차이에 그쳐, 5년 전과 거의 변함없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불교계 학자들은 계층별 니즈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나이가 어릴수록 나타나는 탈종교화와 탈제도종교화에 대해 추상적인 접근만으로는 미래가 어둡다는 것이다. 휴식 프로그램을 비롯해 상담과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세대별, 계층별 접근법을 다양화 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불교계는 개신교계에 비해 전법 포교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재정 지원이 열악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전법 포교를 위해서는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니즈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상황은 암담하다. 불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불교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는 불교사회연구소의 경우 최근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못하다. 포교연구실 등 다른 연구기관도 마찬가지다.

이번 한국갤럽의 조사를 계기로 불교계 기관들의 불자와 전법 대상에 대한 니즈 파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조사에서는 탈종교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한 탈제도종교화에 대한 부분도 다뤄져야 할 것이다.

불교의 생명은 전법과 포교에 있다. 부처님은 대기설법을 통해 다양한 이들의 니즈에 맞는 가르침을 남겼다. 불제자들의 새로운 과제는 불법을 접하는 이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음산책

타인에게 행복주기

황수경 동국대 겸임교수

문화공간 숨도에서 지원하는 대학생 행복프로젝트가 있다. 명칭은 다나 프로젝트인데, 다나는 보시를 뜻하는 ‘dana’이기도 하고, ‘모두가 다 나’라는 자타불이의 의미가 있다.

취지는 대학생들이 타인의 행복을 생각해보고, 남을 위해서 실천해보는 보시의 마음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방법은 여러 대학의 교수님들이 강의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5~7명 정도 그룹으로 나누어 각 팀당 동일한 과제를 준다. 과제 내용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 팀당 지원금은 10만원이고, 계획과 실천에는 약 3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이번 학기에 동국대 학생들 중 팀명을 ‘카르페 디엠(현재에 충실하라는 뜻)’으로 지은 팀은 학생 각자가 자기 마음에 다가온 좋은 구절이나 시 등을 넣어 소책자를 만들었다. 마음이 담긴 글을 넣어 법공양 책자를 만든 것이다. 그 책자와 함께 핫 팩을 하나씩 나누어주는 계획을 세웠다. 200명이 넘는 대상자들 중에는 가까운 사람이나 가족도 있었다.

한 여학생은 고민하다 부모님과 고3인 동생에게 전달했다. 평소 가족 간에 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했다. 동생은 현재 재수를 고민하고 있는데, 재수의 경험이 있는 언니의 진심어린 글과 핫 팩은 동생을 감동시켰다. 어머니는 항상 잘 하라고 다그치는 말씀 위주였는데, 뜻밖에도 답으로 장문의 카톡을 보냈다. “항상 엄마가 응원할게”라는 말을 평생 처음 들었다고 한다. 아버지 역시 처음으로 다정한 카톡을 보내왔다. “혼자가 힘들면 아빠를 찾고, 가족을 찾으렴.” 학생은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바라던 가족과의 친밀한 대화가 드디어 이루어지자 마음이 울컥했다고 한다.

다른 남학생도 별 기대없이 어머니께 드렸는데 환하게 웃으시는 얼굴을 보니 자신도 행복해졌다. 그 외 핫 팩과 마음글은 경비아저씨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할인받은 핫팩은 하나에 500원도 안 되는 가격이었다. 5000원을 주어도 이런 반갑고 환한 얼굴은 못 보았을 것이라고 한다. 학생들은 500원으로 이렇게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미처 몰랐다고 한다. 거기엔 값을 매길 수 없는 진심이 담겼기 때문이다.

팀명 ‘보리수 아래 주인공’은 독거노인들에게 김장을 해서 보내드리는 봉사에 참여했다. 학생들은 한 사찰에 가서, 집에서도 안 하는 김장을 직접 해보았다. 힘들기도 했지만, 꼭 필요한 분들께 전달할 생각에 미소가 저절로 나왔다. 취업도 어려워 힘들다고 생각하던 학생들은, 정말 외롭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감사하게 되었다.

일체유심조, 무엇보다 마음이 기본임을 다시 확인한다. 학생들의 마음책자에는 “세상 모든 사람을 돕기는 어렵지만 내게 인연 주어진 한사람을 도울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자리에서 좋은 마음을 보내보세요”라고 했다.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마침내 온 우주와 함께 하는 한마음인 것이다”라고 하신 법어가 떠오른다. 추운 날씨에도 남을 생각하는 따스한 자비심이 세상 모든 존재들의 아픔을 녹여주고 마음을 환히 밝혀주기를 기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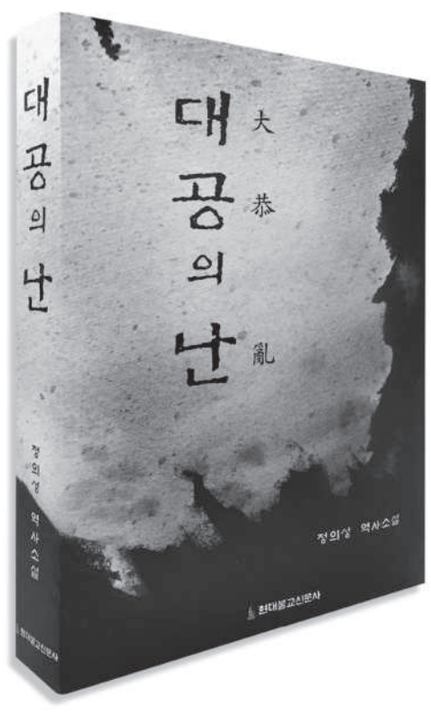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 친환경적
- 단열효과 탁월
- 구조변경 용이
- 시공비 대폭절감
- 습기에 강함
- 내구성 우수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 합니다.



☎ 문의 : 민성기업 (구,대진기업)
010-2628-9944

붓다의 가르침을 가장 원형에 가깝게 전하는 아함경!

한역 4부 아함의 온전하고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번역과 주석!

500질 한정판매

가까이 두고 하루에 단 한 줄만이라도 읽고 새겨야 할 소중한 가르침!

한산 김윤수 역주 『아함전서』 1~16 ★ 전집 구입시 별도 제작된 『전체 색인집』을 드립니다.

잡아함경(전5권)



1권~5권 3,270쪽 / 신국판 양장 / 케이스 / 세트가 150,000원

증일아함경(전4권)



1권~4권 2,252쪽 / 신국판 양장 / 케이스 / 세트가 120,000원

중아함경(전5권)



1권~5권 2,912쪽 / 신국판 양장 / 케이스 / 세트가 140,000원

장아함경(전2권)



1권, 2권 1,228쪽 / 신국판 양장 / 케이스 / 세트가 6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순례단이 다르마라지카 대탑 주위를 돌며 탑돌이를 하고 있다. 다르마라지카는 복합사원으로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 있었지만, 현재는 사원 터와 일부 훼손된 불상만 남아있다.

지극한 信心 묻어난 전륜성왕 발자취

특별기획 동서 문명 교차로 파키스탄을 가다

① 간다라문명 발상지, 페샤와르

② 아소카왕의 고향, 탁실라

③ 목숨 건 전법 여정, 길기트

대한불교조계종은 파키스탄 정부 초청으로 11월 17일부터 23일까지 파키스탄 내 불교 유적을 순례했다. 탁실라는 순례 6일차인 21일에 방문했다.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북서쪽으로 조금 떨어진 탁실라는 기원전 마우리아왕조부터 쿠샨왕조까지 불교와 간다라문명이 번영한 곳이다. 특히 전륜성왕인 아소카왕의 발자취가 남아 있어 불교적으로 의미가 크다. 아소카왕이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한 다르마라지카부터 고대 불교의 교육공간인 줄리안 사원, 이 지역 간다라유물을 한데 모은 탁실라 박물관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파키스탄=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석가모니 부처님이 슈라바스티(사위성) 제타숲에 있을 때다. 어느 날 이른 아침, 부처님은 제자인 아난과 탁발을 위해 성 안에 들어갔다. 길가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흙을 모아 집과 창고를 지으며 한창 소꿉장난을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멀리서 걸어오는 부처님을 바라보고 그 모습에서 무한한 공경을 느꼈다. 이 아이는 흙으로 지은 소꿉놀이 창고에서 곡식이라 이름 붙인 흙 한 줌을 쥐고 부처님에게 달려갔다. 보시하겠다는 순수한 마음이 이끈 걸음이다.

부처님은 발우를 낮추고 고개를 숙이며 아이가 건넨 정성스런 흙 한 줌을 받았다. 그리고 아난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내 처소 방바닥에 바르라." 탁발을 마치고 돌아온 아난은 부처님 말씀대로 처소 방바닥에 흙을 발랐다. 그러자 부처님이 다시 말했다. "아까 그 아이는 이 공덕으로 내가 열반한 지 100년 뒤에 국왕이 될 것이다. 이름은 '아수가' 요, 나를 위해 8만4000개의 탑을 세울 것이다."

〈현우경〉 '아수가시토품' 의 이야기다. 부처님이 '아수가' 라고 명명한 아이는 바로 기원전 3세기, 인도 마가다국 마우리아왕조의 세 번째 왕이자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아소카(Asoka)다. 아소카는 불교에 귀의하기 전까지 '피의 군주' 였다. 아버지 빈두사라왕의 장남인 수시마를 비롯해 99명의 배다른 형제와 자신을 반대하는 500명의 신하를 숙청하고 왕위에 올랐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냉혈한이던 아소카는 동부 해안 칼링가국과의 전쟁에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자 참회하며 불교에 귀의했다. 이때부터 모든 인간이 지켜야할 윤리 '다르마(dharma, 法)' 를 정치 이상으로 삼았다.



다르마라지카 대탑은 기단부가 잘 보존돼 있지만 상단은 훼손이 심해 현재 수풀이 무성하게 덮여 마치 무덤을 연상케 한다.



다르마라지카에 남은 불상 족상. 이교도 훼불로 인해 발목과 가사자락의 밑 부분만 남아 순례단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진신사리 모신 다르마라지카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북서쪽으로 조금 떨어진 탁실라(Taxila)로 이동하며 잠시 아소카왕을 떠올렸다.

아소카왕은 불교사에서 법의 수레바퀴를 굴린 왕, 즉 전륜성왕으로 평가된다. 인도를 통일해 전역에 사원을 건립하고, 부처님을 기리는 석탑을 세워 지역에 국한된 종교였던 불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거듭나도록 한 인물이다. 부처님은 어린 아소카의 장래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불교사에서 이처럼 위대한 업적을 세운 아소카는 어디서 태어났을까? 사실 기원전 3세기 인물인 아소카는 생몰연대조차 분명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소카왕의 고향도 확실하게 알 방법은 없다. 그럼에도 기자가 탁실라를 아소카왕의 고향으로 표현한 이유는 아소카의 삶에서 탁실라가 갖는 의미가 어느 지역보다도 남다르기 때문이다.

아소카왕의 할아버지이자 마우리아왕조를 창건한 찬드라굽타는 어려서부터 탁실라에서 군사전술 교육을 받으며 용병을 모아 힘을 길러 대중적 지지 기반을 확보했다. 그리고 아소카 역시 18세에 왕자 신분으로 탁실라를 다스렸다. 고위관료들의 편을 들던 수시마 왕자의 통치에 반란을 일으킨 탁실라 백성들은 아소카 왕자의 등장에 적극 환영했다. 아소카는 왕위에 오른 뒤 탁실라를 제2의 수도로 천명하고 자신의 아들인 쿠날라도 탁실라로 보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계모의 계략으로 아들이 두 눈을 잃자 계모를 비롯해 탁실라 백성까지 몰살시켰다. 이처럼 탁실라는 아소카왕의 삶 전반에 걸쳐 드러나는 주 무대다.

탁실라는 하나의 사원이 아닌 지역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오래 전 학문의 도시로서 많은 학자들을 배출하고, 간다라시기 수많은 승려들이 수학한 곳이자 중국과 서양을 연결한 실크로드의 지류로 경제 · 문화의 도시였다. 지금은 파키스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다녀간 곳이기도 하다.

탁실라는 산스크리트어 옛 이름 '탁샤실라(takṣa-śiras)', 즉 '잘린 머리' 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다. 부처님이 전생에 보살이었을 때 자신의 머리를 남에게 바쳤다는 의미에서 '탁샤실라' 라는 이름을 썼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B2면에 계속

INS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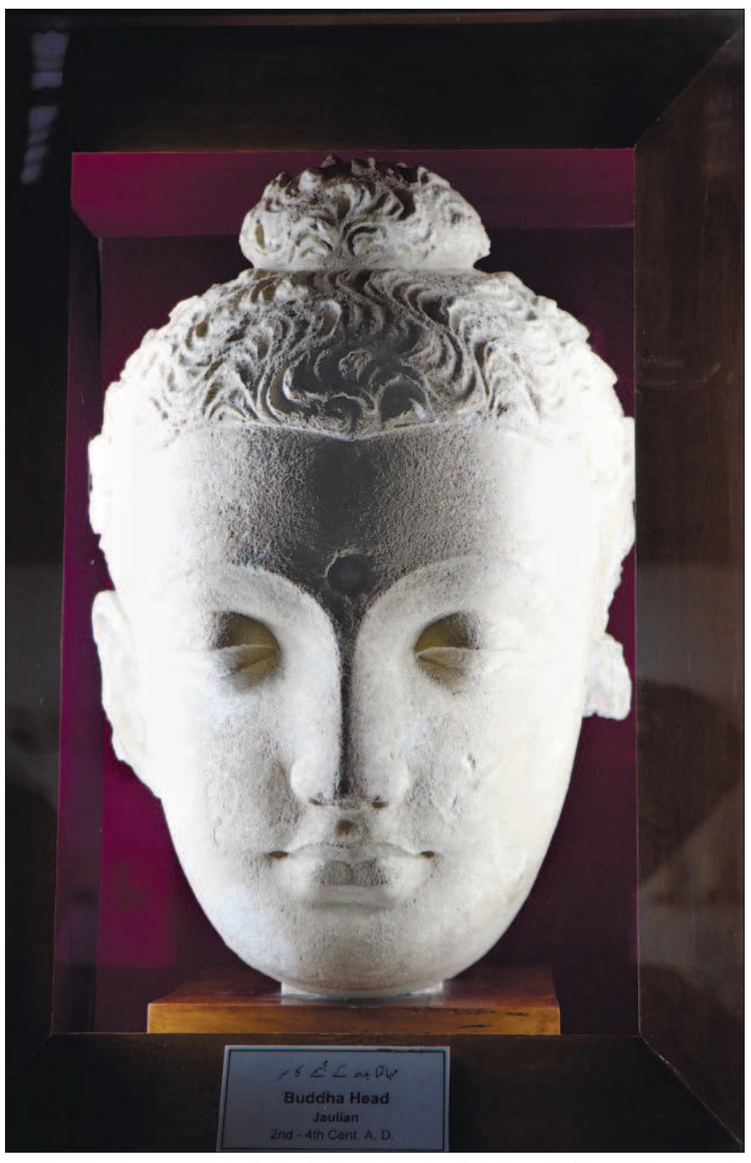
B3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미츠야마 지역 순례

B4
출판
서정형의 〈空 · 반야심경 읽기〉

B5
문화
뮤지컬 '삼국유사'



탁실라박물관이 순례단을 위해 특별히 공개한 부처님 치아사리에 예불을 올리는 스님들.



탁실라박물관이 소장한 불두. 전형적인 간다라불상이지만 어딘가 온화한 미소를 느끼게 한다. 불두는 줄리안 사원에서 발굴됐다.

원형 파괴한 이교도 훼불에 '탄식'



줄리안 사원에서 '힐링 붓다'라고 불리는 약사여래. 배꼽 부위에 구멍이 뚫려 있어 청교도들은 손가락을 넣고 질병의 쾌유를 빌었다고 한다.

인도 통일한 피의 군주 '아소카왕'
전쟁 일으킨것 참회하며 불교 귀의
인도 전역에 사원 · 불탑 세우면서
지역종교 불교, 세계적으로 알려

탁실라엔 아소카왕이 남긴 유산과
쿠샨 왕조의 불교 유적 다수 있어
원형 보존된 유물은 많지 않지만
부처님 치아사리 비롯한 성보들이
파키스탄 찾은 불제자를 반겨준다



줄리안 사원 수행공간. 당시 2층 규모로 지어졌지만 파괴되면서 현재는 1층만 남았다.

'파키스탄 탁실라' B1면에서 계속

하지만 산스크리트어 표기를 'takshaçila'로 한다면 '뱀족의 왕자'라는 뜻이 된다. 유네스코는 탁실라를 '뱀족의 왕자'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다. 고마타 싯다르타를 낳은 마야부인이 뱀족인 코리야족 출신이고, 싯다르타는 어머니와 같은 코리야족 여인 야소다라와 결혼했으니 부처님을 기리는 의미라면 '잘린 머리'보다는 '뱀족의 왕자'가 올바른 해석일 것 같다.

순례단은 아소카왕이 부처님을 기리며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대탑을 세운 다르마라지카를 찾았다. 이른 아침부터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졌지만 선조들의 발자취를 더듬는 순례단의 열의는 막을 수 없었다. 주홍빛 가사를 수한 채 계단을 오르는 스님들에게 현장견학을 나온 파키스탄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야트막한 언덕에 오르자 저 멀리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무덤 형태의 대탑이 눈에 들어왔다. 사실 좋게 표현해 '탑'이지 실제로 마주한 다르마라지카 대탑은 황량하기 그지없다. 다만 탑의 기단부 지름이 50m에 달해 과거 불교가 번성한 시기, 얼마나 위용을 떨쳤을지 짐작만 할 뿐이다. 대탑은 셀 수 없이 많은 돌을 하나씩 쌓아올려 만들었지만 지금은 무너진 채 수풀로 뒤덮여 알아보기 힘든 형태를 하고 있다.

순례단은 대탑 앞에서 간단히 예불을 올린 뒤 줄지어 탑돌이를 했다. 비록 탑은 파손돼 볼품없고 주위 시설은 무너져 내려 초라하지만, 순례단은 옛 수행자들이 진리를 추구하며 걸었을 길을 따라 한걸음씩 내디뎠다. 다르마라지카 대탑 주위는 작은 탑들이 둘러싸고, 그 밖에 스님들이 수행한 암실과 불상을 봉안한 공간의 터가 너른 부지 위에 자리한다. 훼손 없는 원형을 마주한다면 형용하기 어려운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다르마라지카 곳곳을 돌아보던 순례단이 일순간 멈춰 섰다. 부처님의 발목만 남은 족상 앞에서다. 발바닥 길이가 청소년기 아이들 키쯤 되는 족상은 발목과 부처님의 가사자락을 표현한 밑 부분만 남았다. 어떤 연유로 발바닥만 남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탈레반의 바미얀 석불 파괴를 떠올리게 하는 아픔이 느껴졌다. 게다가 석회암으로 만들어져 자연적인 훼손을 입은 대부분의 불상들도 한결같이 불두만 잘린 채 보존되고 있었다. 마우리아왕조를 시작으로 쿠샨왕조까지 이어진 간다라불교는 우상숭배를 금지한 이교도들의 소행 앞에 그렇게 스러졌을 것이다.

부처님 치아사리를 만나다

아소카왕의 유산을 뒤로 하고 줄리안 사원으로 이동했다. 줄리안 사원은 2세기 쿠샨왕조 때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언덕에 위치한 줄리안 사원은 중앙의 대탑을 기준으로 20여개의 작은 탑이 둘러싸고 있다. 이곳의 대탑은 다르마라지카보다 더 많이 훼손돼 기단부밖에 남지 않았다. 일부 사람들은 존경받는 승려들의 무덤으로 지어졌다고 말하는데 바로 옆에 사원터가 남아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

줄리안 사원은 탁트이바히, 다르마라지카처럼 언덕 위에 지어졌다. 2층짜리 건물로 각 층마다 28개의 방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은 2층이 파괴돼 남아있지 않지만 2층으로 올라가는 돌계단은 보존돼 있다. 각 방에는 램프를 넣는 틈새와 자연광이 들어오는 창문 공간이 있다. 독특한 것은 이 창문이 벽 바깥쪽은 좁게, 안쪽은 넓게 만들어 야생동물 보호에 신경 썼다는 점이다.

파키스탄에서는 줄리안 사원을 인도 나란다대학에 견줄 만큼 불교적으로 오래되고 중요한 교육시설로 평가한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역사를 정리한 대규모의 나란다대학과 비교하려면 줄리안 사원에 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 같다.

줄리안 사원 대탑 아래에는 훼손으로 배꼽부분에 구멍이 뚫린 약사여래불이 있다. 파키스탄에서는 이를 '힐링 붓다'라고 부르는데, 근대 청교도들이 손가락을 약사여래 배꼽에 넣고 질병의 완쾌를 기도했다고 한다. 하지만 줄리안 사원을 소개한 카이버팍툰콰(KPK)주 고고학부 관계자가 스님들에게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권유하는 모습은 결코 달갑지 않았다. 불교유적을 보존하기 위해 2년 전 대탑 주위에 보호구조물을 설치했다는 관계자 설명과 이슬람국가에선 중요문화재가 아닐지라도 불교도들에겐 성보인 약사여래에 손가락을 넣어보라는 아이러니라니.

다르마라지카와 줄리안 사원에 방문하기 전 순례단은 간다라불교의 산실인 탁실라 성보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탁실라박물관으로 향했다. 탁실라박물관은 부처님 치아사리 2과를 소장하고 있는데, 아소카왕이 세운 다르마라지카에서 발견된 것이다. 발굴 당시 총 4과가 나왔지만 2과는 발굴을 맡은 영국인 존 마샬이 인도에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탁실라박물관은 순례단을 위해 특별히 부처님 치아사리를 공개했다.

치아사리 등장에 순례단의 이목이 쏠렸다. 우윳빛과 갈색을 띤 치아사리는 조금 큰 것과 작은 것으로 나뉘었다. 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금빛 보관함에서 치아사리가 나오자 순례단은 감탄사를 내뱉었다. 스님들은 치아사리를 공개해준 박물관 측에 감사인사를 보내며 예불을 올리고, 불전을 모아 박물관에 전달했다.

탁실라박물관은 1~7세기 다르마라지카와 줄리안 사원 등 이 지역에서 조성된 간다라미술품을 대거 소장하고 있다. 다만 이교도의 훼불 이후 발견된 것들이어서 머리 없는 불상이거나 불두만 존재하는 게 많다. 그래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부터 열반까지 일대기를 표현한 작은 조각들은 제법 잘 보존돼 있다.

이 박물관에서 눈길을 끄는 불상은 줄리안 사원에서 발굴된 2~4세기 불두다. 전형적인 간다라 조각이지만 다른 불상보다 특유의 온화한 미소를 느끼게 한다. 오뚝하고 갸름한 콧날을 따라 눈썹이 가늘게 이어지고, 눈은 45도 정도 아래를 보는 듯 살짝 감겨있다. 크지 않은 입은 가볍게 닫혀 있는데 입꼬리가 살짝 패여 사실감을 더한다. 나발(螺髮)은 그리스양식의 바닷물결 무늬로 정수리 머리카락을 묶은 느낌의 육계가 도드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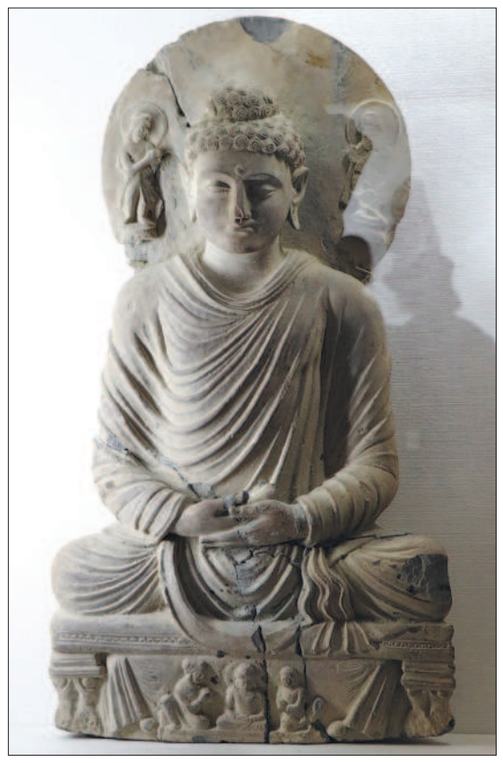
탁실라박물관은 수많은 불상을 통해 간다라미술의 시대변화를 엿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간다라초기 인물의 사실적 묘사와 석가모니 부처님을 단독으로 표현한 불상은 시간이 흐르며 신비주의가 조금씩 가미된다. 머리카락을 묶은 것 같은 바닷물결 모양의 나발은 다른 간다라불상에서 소라모양으로 변하고, 부처님의 귓불도 한층 더 길어진다. 또한 머리 뒤쪽에 커다란 광배가 조성되고, 그 안에 작은 화불(化佛)도 표현된다.

한동안 박물관을 둘러본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987년 중국 산시성 법문사에서 발굴된 부처님 지골사리가 2005년 우리나라에 전시된 적이 있다. 스리랑카 불치사에 있는 치아사리도 친견했었다"며 "아소카대왕이 전 세계에 진신사리를 보급하면서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을 기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탁실라박물관의 치아사리도 한국불자들이 친견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압둘 나시르 박물관장은 "탁실라는 기원전후 불교가 가장 번성한 곳으로 불법 전파를 위해 많은 불상이 이곳에서 제작됐다"며 "1999년 서울과 부산에서 3개월간 박물관 소장 유물을 전시한 적이 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대여를 희망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화답해 간다라유물의 한국전시 기대를 높였다.



다르마라지카에서 발굴된 부처님 치아사리. 전륜성왕 아소카가 봉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탁실라박물관 소장 불상. 이 불상은 나발이 소라모양이고 귓불이 더 길어져 간다라후기에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탁실라박물관에 전시된 간다라불교 유물. 많은 불상이 머리가 잘린 채 발견돼 아쉬움을 낳는다.

“인생은 헨로”… 순례는 끝나지 않았다

〈遍路〉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㉞ 미츠야마 지역 순례

산굽이 계곡 길을 돌아 쿠마고원을 내려오니 길이 일사천리로 이어진다. 쿠마고원 아래의 마츠야마(松山) 시내에만 8개소의 사찰이 모여있고, 또 사찰간의 거리가 멀어 봤자 10km 내외의 편안한 거리다. 심지어 46번 죠루리지(淨瑠璃寺)와 47번 야사카지(八坂寺)는 사찰간의 거리가 겨우 400~500m남짓으로 매우 가깝게 붙어있다. 그러다보니 차량으로 순례하는 단체나 개인들이 도보순례 체험을 위해 걷는 경우가 많다. 실제 도보순례자로서도 가까운 거리가 조금 낯설다.

더욱이 마츠야마시는 에히메현의 현청 소재지인데다 예로부터 도고온천(道後溫泉)으로 유명한 관광지라 종종 인파에 휩쓸리기도 한다. 순례길도 하필 온천 앞을 지나다보니 종종 길을 잃곤 하지만, 오히려 그간의 적막했던 순례길에서 떠들썩한 생기를 느낄 수 있다. 그러다보니 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에선 잠시 흰 옷과 지팡이를 내려놓고 온천을 즐기며 쉬는 경우가 많다. 필자역시 여러 차례 순례를 하며 이곳에서 만큼은 여유를 부리기 위해 일정을 배분 했다.

새벽 일찍 쿠마코겐을 내려오는 길. 33번 국도 옆을 걷다가 산길로 들어가 미사카도게 고개를 넘어 내려간다. 미사카도게 고갯길을 내려오면 오래된 민가가 하나 서있다. 중세에는 이 고갯길을 내려온 순례자들이 묵던 여관 ‘사카모토야(坂本屋)’ 다. 지금은 여관으로서의 기능은 없지만 순례자들에게 오셋타이를 하는 셋타이쇼(接待所)겸 휴게소로 쓰인다. 필자도 이곳에서 한 번은 간단한 식사를 받은 적 있다.

순례길 옆을 지나다보면 꽤 많은 곳에 옛 셋타이쇼의 자리나, 순례자들의 숙소로 쓰이던 민가들을 만날 수 있다. 이런 곳은 으레 순례자들이 감사의 의미로 오사메후다를 하나씩 남기고 간다. 어느 민가에선 이렇게 모인 오사메후다를 살펴보니 가장 오래된 것은 몇 백 년 전의 것도 있었고, 시코쿠 순례의 역사에 이름을 남긴 순례자의 것도 나왔다고 들은 적 있다.

46번 죠루리지는 규모가 작은 도량임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이 넘친다. 키가 큰 고목들에 둘러싸여 있고, 또 경내의 연못이 푸른 기운을 더해준다. 죠루리지는 또 필자가 순례 중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 잊을 수가 없다.

2011년 첫 순례에서 죠루리지를 참배하고 납경을 받기위해 납경소에 들어섰을 때의 일이다. 납경을 써주시는 보살 한 분이 한창 전화 통화를 하다 나를 보고선 급히 전화를 마무리 했다. 납경장을 펴서 건네주려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그 분은 손을 닦고는 목에 가사를 걸고서야 두 손을 내밀어 납경장을 달라고 했다. 나는 그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46번 사찰 죠루리지 대사당. 코보대사상에 가사와 장삼을 입혀둔 것이 특징이다.

미츠야마에만 8개 사찰 존재
첫 순례서 만난 납경소 직원
정성으로 납경한 모습 ‘감동’
명물 도고온천에 몸 담그니
다시 걸을 수 있는 힘 얻어

보통 시코쿠 88곳의 사찰을 돌다보면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납경소에서의 응대 방식이다. 흔히 시코쿠 순례 납경장에 받는 글과 도장이 기념품처럼 이야기 되곤 하지만 이는 큰 실례다. 시코쿠의 사찰들은 납경장에 순례자들이 받아 가는 것은, 곧 88곳의 본존불을 모셔가는 것이라고 설명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납경을 써주는 납경소의 응대방식과 담당자의 태도는 순례자들의 입에 자주 회자된다. 마치 기계처럼 성의 없이 납경을 해주는 곳이 있는 반면, 넉살 좋게 이야기를 붙이며 순례자들과 교류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이곳 죠루리지는 순례자 한 사람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 하던 일을 멈추고 여법하게 갖추어 글을 써주는 것이다.

그 뒤로도 몇 번 순례를 할 때 마다 그때 그 분이 계신가하고 내심 기대하며 찾았지만, 인연이 아닌지 뵐 수 없었다. 이 외에도 50번 한타지(繁多寺)에서 산소 호흡기를 달고 가쁜 숨을 몰아쉬던 노스님이 힘찬 일필지휘로 납경을 써주던 모습도 잊을 수 없다. 후에 여쭈어 보니 구순이 넘으신 나이인데도 납경소 소임을 맡아 나오시는 분이셨다.



미츠야마시의 명물인 도고온천 본관의 전경.

47번 야사카지에서 48번 사이린지(西林寺)를 향하는 길 중간에 몬쥬인(文殊院)이라는 작은 사찰과 만난다. 이곳에서 순례자들은 12번 쇼산지에서 만났던 ‘에몬 사부로 전설’을 다시 만나게 된다.

시코쿠 순례의 연기설화속 최초의 순례자인 에몬 사부로의 집이 바로 이곳 몬쥬인이라고 전하기 때문이다. 또 몬쥬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에몬 사부로가 오사메후다를 처음으로 공양올렸다는 대사당도 있다. 순례의 전체 여정 중반에서 순례의 시작과 관련된 장소들과 만나면서, 다시금 순례의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된다.

48번 사찰쯤 넘어서면 이제는 본격적인 마츠야마 시내에 들어선다. 빼곡한 주택가 한 가운데를 지나가고, 차량의 통행도 정신없이 지나다닌다. 덕분에 길을 잃기도 쉬워 여기저기 숨어있는 빨간 화살표를 잘 찾아 다녀야 한다. 점심 쯤 돼서 마츠야마시 중심에 있는 51번 이시테지(石手寺)에 이르렀다.

이곳 이시테지도 에몬 사부로 전설이 전한다. 에몬 사부로의 환생이었다는 영주의 아들이 쥐고 태어났다는 돌을 봉안하고 있는 까닭에 사명이 이시테(石手)가 됐다. 다만 이시테지는 여러모로 혼란한 사찰이다. 관광지로 유명한 까닭일까? 사찰의 분위기가 붕 떠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불화 입간판들과 통일성 없이 모셔진 조악한 불상들이 도량의 차분한 기운을 흩뜨리고 있다. 어찌된 영문인지 범종각 앞엔 우리나라의 돌하르방까지 서있다. 오죽하면 일본의 순례자들도 “이시테지는 언제나 카오스”라고 혀를 찬다. 여러모로 아쉽기 그지없다.

이시테지에서 좀 더 힘을 내면 53번 엔묘지(圓明寺)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지만, 여기선 한번 배낭을 내려놓는다. 앞서 말했듯이 도고온천에서 몸을 풀기 위해서다. 도고온천의 원천은 이시테지에서 20여분쯤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온천 측에선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이라며 홍보하지만 사실은 알기 어렵다. 다만 중세엔 정토신앙의 고승인 잇펜(一遍)스님이 정비하고, 또 근대에는 일본의 대표적인 문학가 나츠메 소세키의 소설에 등장하거나, 메이지 일왕이 입욕하는 등 역사 속 여러 장면에 간간히 출연한 역사적인 온천임에는 틀림없다. 심지어 온천 원천이 솟는 본관건물은 일본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돼 지브리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오는 온천장 건물의 모티프가 되기도 했다.

온천 근처의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가벼운 몸으로 온천욕을 즐기러 나선다. 시간제한이 있는 본관과 별개로, 지역주민들이 주로 찾는 욕탕인 츠바키노 유(椿の湯)로 향한다. 온천수가 솟아나오는 돌 가마엔 마츠야마가 자랑하는 시인 마사오카 시키(正岡子規)의 싯구가 새겨져 있다.

“십년의 땀을 도고의 온천물에 씻어 내어라,”

온천에 들어서니 여기저기 낯이 익은 얼굴들이 보인다. 등과 어깨엔 눌린 자국들. 길에서 오며가며 마주친 순례자들이다. 탈의실 한쪽엔 큰 배낭과 순례자의 백의도 보였으니 틀림없을 것이다. 저들도 순례에서 흘린 땀을 씻어내러 온천에 온 것이다.

탕에 몸을 담그곤 여태껏 걸어온 길들을 되돌아본다. 발심의 아와에서 시작해 헨로의 난관인 쇼산지를 넘고, 바닷가에 우뚝한 탑이 인상적인 23번 야쿠오지까지 걸었다. 수행의 토사에 들어서 제비가 깃들던 죠만지를 들리고서 기나긴 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다. 깊은 산골이 가득한 쿠마고원을 넘어 내려온 보리의 이요에 들어서 이곳 마츠야마까지. 하나하나 얽힌 이야기와 생각한 마음을 풀자면 몇날 며칠이 걸려도 부족할 것이다. 그래도 두 발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스스로 대견할 따름이다.

하지만 아직도 30여 곳이 넘는 사찰들을 모두 돌고, 다시 1번 료젠지로 돌아가야 한다. 다시 1번으로 돌아감으로서 순례길은 하나의 원을 만든다. 또 끝내는 코보대사의 묘굴이 있는 와카야마의 고야산까지 참배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시코쿠 순례를 결원(結願)했다고 할 수 있다. 순례길 중간에 들릴 수 있는 시코쿠의 영산(靈山)이자 서일본 최고봉인 이시즈치산(石鎚山)또 빼 놓을 수 없다.

순례길은 계속해서 이어진다. 지금껏 온 만큼 더 나아가야 하지만, 그래도 나아갈 길이 있다는 것에 또 기쁠 따름이다. 길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보고 배울 것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 옛날 코보대사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져온 이 길에서 또 어떤 가르침이 나를 기다릴지 알 수 없다. 다만 마음을 열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뿐이다.

시코쿠 순례 끝에 마츠야마에서 눈을 감은 근대 시인 타네다 산토카는 말했다. “인생은 곧 헨로다”라고. 순례라는 이 여정은 진리를 찾아가는 우리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기에 시코쿠 순례는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아직 순례길은 끝나지 않았다. 〈자유기고가〉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취급 품목
◆ 숯침대
◆ 숯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4~12/10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낡은 옷을 벗어라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6	느낌, 축복인가 수렁인가 (밝은 사람들 총서 14)	권석만 외 4인	운주사
2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스님	정토출판	7	당신의 마음에 답을 드립니다 (묵종스님 상담에세이)	묵종스님	담앤북스
3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스님 법어집)	대행스님	한마음선원	8	아침이 힘든 당신에게 (홍파 스님이 보내는 짧은 편지)	홍파스님	모과나무
4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9	틱낫한 불교	틱낫한/권선아	불광출판사
5	요가 디피카	B.K.S.아헹가/현천스님	선요가	10	역설과 중관논리 (반논리학의 탄생)	김성철	오타쿠

〈반야심경〉, 불교 철학의 골수



空 · 반야심경 읽기

서정형 지음/공감과 소통 펴냄/1만 3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교에 관심 갖고 공부 하다 보면 먼저 대장경의 방대한 양에 압도 당하게 된다. 오랜 세월에 걸쳐 중첩된 불교 사상은 초기 붓다의 가르침과 소승 및 대승불교의 다채로운 경전들, 그에 대한 주석서들, 조사 선(禪)에 대한 통찰이 담긴 선어록 등이 한데 모여 다채롭고도 거대한 숲을 이룬다. 그러다 보니 경전 고갱이와 핵심을 꿰뚫어 전체를 하나로 꿰고 회통시킬 수 있는 밝은 눈이 없으면 진리의 바다에 한쪽 발을 담그는 것조차 주저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空 · 반야심경 읽기〉는 불교와 공(空) 사상에 관심 가진 이들에게 유익한 책이다. 또한 서문서도 밝혔듯이, 비단 불교에 익숙한 이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술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불교와 공사상에 쉽게 접근해서 서로 통섭하는 장을 마련 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싶다. 이 책은 공사상뿐만 아니라 불교의 근본 사상이 집약된 〈반야심경〉의 행간을 촘촘히 들여다 봄으로써 최고 진리인 공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보인다. 저자는 〈반야심경〉의 위상을 다음과 같이 자리매김 한다.

반야경 계열 경전 중에는 십만 송에 이르는 긴 것도 있다. 그만큼 경전의 종류와 수가 많다. 아무리 많아도 공사상에 뿌리를 두고 넓게 보면 대승불교 자체가 공사상 토대 위에 세워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야심경〉은 반야경전들의 골수일 뿐만 아니라 불교철학 자체의 골수이기도 하다. 저자는 책 속에서 "〈반야심경〉의 한역본이 여럿 있는데 글자수로는 모두 300자를 넘지 않는다. 문자로는 짧지만 뜻으로는 결코 짧지 않은 경전이다. 〈반야심경〉에 담긴 공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경전의 바다를 자유로이 유영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책은 크게 1부와 2부로 구성돼 있다. '1부: 공이란 무엇인가?' 는 공에 대한 입체적 이해를 통해 불교 사상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공의 이해 → 공 개념의 역사 → 공의 세계 → 공을 보는 법으로 전개되는 일련 과정서 알 수 있듯이 공의 이론적 이해에 그치지 않고, 체험적 측면과 함께 일상 생활서 '공을 사는 법' 을 귀띔하고 있다는 점도 이 책의 흥미로운 특징이라 하겠다. 이 책의 간명한 서술 방식은 서두의 공에 대한 명쾌한 정의에서 드러난다. 공의 정의는 '자성(自性)이 없다' 는 것이다. 한문으로 표현하면 '무자성고공(無自性故空)' 이다. 이 다섯 글자만 알면 공을 알게 되고, 그걸 알면 불교를 알게 된다. 우리말로 풀면 모든 사물은 '자성(自性)이 없기 때문에 공하다' 는 말이다. 자성이 무엇인지만 알면 해독이 되는 문장이다. 공의 정의를 넘어 불교 철학 전반에 대한 이해가 이 한 마디에 달려 있다.

空의 정의는 '자성이 없다'는 것
공사상 통해 불교 핵심 드러내
전문 하나하나 상세히 풀어놓아

그 뒤를 이어, 공사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경전과 조사 어록, 그리고 동서양의 저술들을 종횡으로 인용하면서 공이 불교 사상의 핵심인 연기(緣起) 무아(無我) 무상(無常) 중도(中道)와 긴밀히 연관돼 있으며, 모두 '최고의 진리' 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공과 연기와 중도는 하나의 진실에 대한 세 가지 표현이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 없고, 따라서 중도가 아니면 연기와 공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결론에 이른다. 이러한 통찰이 불교 철학을 하나로 꿰는 키이다.

이 책의 2부 〈반야심경 해설〉에서는, 예불이나 불교 의례서 낭송되는 〈반야심경〉의 첫 소절인 '관자재보살' 부터 마지막 소절인 '모지 사바하' 에 이르는 전문을 하나하나 상세히 풀어놓았다. 〈반야심경〉이 펼치는 공사상의 변주를 통해서 불교 자체의 핵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의도다. 그것은 무아(無我)를 공의 관점서 바라보는 저자의 생각과도 일맥상통하다.

저자는 책 속에서 " '나' 라고 철석같이 믿던 몸과 심리 현상 등이 실체가 없는 공한 흐름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면 모든 괴로움서 벗어나 대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 〈반야심경〉의 요지이다. 팔만대장경도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고 밝힌다.

불교 경전의 번역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산스크리트어(팔리어)→한문→한글로 이어지는 세 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번역은 '문화의 옮김' 이라서 더욱 그러하다. 우리말 구사가 중요한 것도 오랜 세월에 걸쳐 굳어진 '불교식' 표현이 대중을 불교로부터 멀어지게 한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글을 읽어도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해독되지 않는다면 불교는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불교에 대한 무관심을 증폭시킨다. 불교에 밝더라도 우리말 소통에서 실패하게 되면 불교의 대중화는 기약할 수가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심한 저자는 난해한 불교 개념과 논리를 우리 시대의 생활언어로 쉽게 전달키 위해 단어와 토씨 하나에도 세밀한 주의를 기울인 흔적이 역력하다.

▲저자 **서정형**은?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서 〈중국 화엄철학의 형성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서 20여 년 간 불교와 철학개론을 강의했고,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별책으로 〈밀린다팡하〉 〈중론〉 〈대승기신론〉 〈금강삼매경론〉을 출판했다. 지눌의 〈정혜결사문〉을 풀어 썼고, 용성의 〈각해일륜〉을 영역했다. 논문으로는 〈선불교 수행에 대한 반성〉〈자아가 없는데 누가 윤회 하는가〉 〈선(禪)과 있는 그대로의 세계〉등이 있다. 현재는 청량산 자락에 있는 수경재의 주인으로 소요하고 있다.

"나와 우리는 共業衆生"



지금 이 순간 자비롭게 살아가기

아남 툽텐 지음, 임희근 옮김

담앤북스 펴냄/1만 5천원



"나는 당신입니다. 모든 존재들이 고통과 그 원인에서 벗어나기를…"

티베트서 나고 자라 닝마빠(티베트불교 4대 종파 중 하나)의 깨달은 여러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은 아남 툽텐 린포체. 1990년대 초반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현재 세계 곳곳서 불교의 가르침과 명상 수행법을 전한다. 우리나라에도 2014년부터 매년 찾아와 가르침을 펼치고 있다. 그의 설법(강연)은 쉽고 유머러스하다. 언제나 쉬운 설명과 풍부한 사례로 삶의 진리와 진실을 전한다. 이번 책의 중심 키워드는 연민, 자애, 이타심이다. 우리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 타인에게 연민과 자애를 품는 일을 불가능한 일로 여긴다. 그것은 위대한 몇몇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며, 우리 자신만 생각하고 살기에도 벅차다고 느낀다. 그래서 인생은 혼자라 여기며 자기 이익에만 몰두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남 툽텐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가진 문제의 대부분은 결국 자신에게만 너무 집중하는 데서 온다" "고독과 고립과 소외의 병을 치료하는 데에는 연민이 최고의 약"이라고. 연민을 품으면 우리는 '나' 라는 좁은 세상서 벗어나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자신을 향해 연민을 발휘하면 자기혐오서 벗어나고, 잘못된 자아상으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수 있다. 바깥을 향해 연민을 키우면 환경오염으로 죽어가는 지구를 위해, 고통받는 전 세계 사람을 위해 그리고 온 생명을 향해 자애의 고리를 넓혀 갈 수 있다.

우리는 왜 서로에게 연민을 품어야 할까? 불교적 관점에서 인류는 공통적으로 '업' 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업의 관점서 보면 세상의 일들은 더 이상 남의 업이 아니다. 우리는 같은 운명을 공유하고 있다.

전작 〈모든 순간 껴안기〉 〈알아차림의 기적〉서 아남 툽텐은 알아차림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알아차림이란 무엇인가? 바로 마음을 알고 투사와 심리

자애와 연민 필요성 티베트 린포체의 고찰
알아차림으로 온 생명 대하는 매 순간다짐

적 패턴서 떠오른 생각들의 믿기를 멈춘다는 뜻이다. 우리는 남들과 자신의 고통을 알아차리지 않기 위해 많은 전략을 쓴다. 그래서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이런 형태의 알아차리지 못함이 팽배하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알아차림의 길을 걷겠다고 서원하면 우리는 차츰 두려움과 미움, 수치심과 죄의식의 성향을 없앨 수 있다. 이처럼 이 책은 일상서 더 자유롭고 열린 가슴으로, 자신과 타인과 뭇 생명에게 자애를 선물하는 용기를 북돋는 에세이다.

김주일 기자

책 속의 밑줄 긋기

-"우리는 모두 특별한 친구를 갈망하지만, 종국에는 연민만이 특별한 친구입니다. 연민은 우리 자신과 남들 사이를 잇는 멋진 가교입니다. 연민은 살아 있는 모든 존재가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진정한 느낌으로 규정됩니다. 우리는 티베트 전통에서 하듯이 "살아 있는 모든 존재들이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기를"이라는 기도를 외우면서 연민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애의 고리〉 中에서

-"자아 이미지와 연관된 심리적 문제 때문에 말없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고통은 개인적인 신경증 때문이 아니라, 거의 그들이 노출돼 있는 관습적 환경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멋져 보인다고 생각된 이미지는 매우 특별하며, 그 기준은 사람들에게 아주 어릴 때부터 주입됩니다. 살면서 만들어 내는 이러한 자아 이미지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봐야 합니다." 〈자아 이미지를 넘어서〉 中에서

空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깊이 사유하고,
몸소 체험하는 길을 제시한 반야심경 입문서!

空 · 반야심경 읽기

20년 간 불교철학을 강의해 온 불교학자의 空에 관한 담론!
空을 통해 불교의 심연을 들여다본다!



서정형 지음/ 224쪽 / 13,000원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空과 불교의 사상을 집약했다. 불교의 핵심인 空사상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반야심경의 첫 소절부터 마지막 소절까지 오늘날의 언어로 쉽게 풀어냈다. -한국일보

이 책은 空사상뿐만 아니라 불교의 근본 사상이 집약되어 있는 〈반야심경〉의 행간을 촘촘히 들여다보면서 최고의 진리인 '공'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보여준다. -불교신문

저자 서정형 –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중국 화엄철학의 형성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에서 20여 년 간 불교와 철학개론을 강의했고,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다.

※ 이 책의 내용에 의문점이 있으시면 저자의 이메일(naruppe@hanmail.net)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소통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141 M빌딩 302-3호 | 전화 031-942-9472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뮤지컬로 옮긴 삼국유사, 우리 역사

창작 뮤지컬 삼국유사

12월 28~29일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국보이자 성보인 보각국사 일연의 〈삼국유사(국보 제306호)〉가 뮤지컬로 태어난다.

인각사와 군위군은 12월 28일(오후 4시)과 29일(오후 2시)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경북 군위군)에서 창작 뮤지컬 '삼국유사(연출 · 박리디아)' 를 선보인다.

일연 스님이 전국을 돌며 모은 자료로 편찬한 대한민국의 역사서이자 문화의 보고인 〈삼국유사〉는 고조선부터 삼국시대까지 우리 민족의 고대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이다. 〈삼국유사〉속에는 우리민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문학, 민속, 생활 등 우리 조상들의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다. 이번 뮤지컬은 무신정권과 몽고의 침략으로 고통 받던 고려 백성들에게 일연 스님이 전하고 싶었을 이야기를 모티프로 삼았다.

〈삼국유사〉의 방대한 내용 중에서 현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세 개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각색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내용으로서 '우리 민족은 뿌리부터 하나다' 라는 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을 골랐다.

우리 민족은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한 뿌리에서 나왔다. 바로 하늘이다. 우리 민족은 하늘의 기운을 받은 밝은 사람들이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 민족의 뿌리를 찾아가는 이야기로 '단군신화' 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는 밝은 빛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하늘과 물의 기운을 한 몸에 받아 태어난 주몽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주몽은 온갖 중상모략과 시기를 뚫고 빛의 나라를 세웠다. 주몽의 이야기는 조셉 켐벨의 신화학적 관점에서도 가장 완벽한 영웅서사를 갖춘 우리의 신화다. 또한 우리의 역사 중 가장 유명하고 완결성 높은 건국신화라고 할 수 있다.

갈등과 분노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로 어울려 살아갈 수 있을까. 뮤지컬 삼국유사가 세 번째로 고른 이야기는 현재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로, 서동요를 모티프로 했다. 하지만 원작의 내용을 따르기 보다는 뮤지컬을 관람하는 전 연령대가 공감하고 배워나갈 수 있는 내용으로 재창작했다. 제작진은 대중적으로 고구려를 대표하는 이야기가 주몽신화라고 한다면, 백제 · 신라를 다루는 넓은 의미의 화해, 러브스토리는 서동요라고 생각했다. 이번 뮤지컬 삼국유사에서는 〈삼국유사〉 원본에 있는 이야기를 현대적 감각과 뮤지컬적인 어법으로 풀어내기 위해 무왕이 신라로 온 것이 아니라 선화공주가 백제로 건너가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현대적 어법 · 뮤지컬로
"우리도 고대신화 존재"
민족에 대한 자긍심 전파
스토리텔러 '일연' 재조명
전석무료, 전화예약만 가능


창작 뮤지컬 '삼국유사' 의 출연진.

제작진은 이번 뮤지컬을 관람하는 관객들에게 그리스 · 로마신화에 버금가는 드라마틱한 고대 신화가 우리에게도 존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부여하고, 미국으로 대변되는 민주주의 건국이념보다 무려 4000년이나 앞선 시기에 홍익인간이라는 인본주의 사상을 국가 이념으로 택한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전파하고자 한다.

뮤지컬 삼국유사의 극작 및 작사를 맡은 이희준 작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을 졸업한 후 'NYU 뮤지컬 극작' 을 전공한 뮤지컬 전문가로서 공동경비구역JSA, 미아 파밀리아, 내 마음의 풍금 등 많은 창작 뮤지컬을 집필했다.

음악을 담당한 이진구 작곡가는 'NYU 뮤지컬 작곡' 을 전공하고 '비온디 엠' 이라는 이름으로 앨범활동 및 밴드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뮤지컬 음악가다.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활동을 이어가며 'Under the bodhi Tree(부처님 일대기 뮤지컬)' 등 많은 뮤지컬 음악을 작곡, 연주했다.

연출 박리디아는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 연극원 GITIS 음악연출 전공' 후 뮤지컬과 오페라를 오가며 신한류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영화와 드라마에서는 연기자로도 유명한 그는 이번 뮤지컬을 맡아 대한민국 최초로 공개되는 '삼국유사' 의 무대를 기발하고 뛰어난 아이디어로 그려낼 계획이다.

브로드웨이 42번가, 웨딩싱어 등의 안무를 담당했던 김준태 안무감독은 우리 민족 고유의 움직임과 아크로바틱한 안무를 적절히 배합한 안무를 90분 동안 선보인다.

뮤지컬 속의 내레이터이자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 스님' 역할은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 드라큘라 등에서 개성 넘치는 연기를 보여줬던 황성현 배우가 맡았다.

극중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인 '주몽' 은 뮤지컬 레미제라블, 블랙슈트 등에서 뛰어난 가창력과 단단한 연기를 보여줬던 유성재 배우가 맡는다. 뮤지컬 그리스, 살리에르 등을 통해 '뮤지컬계의 여신' 으로 불리는 랑연 배우가 '선화공주' 역할을 맡아 세 번째 이야기를 끌고 간다. 이 외에도 신진경, 장우영 등 뮤지컬 전문 배우 17인과 하우스 밴드 '비온디-엠' 이 참여한다.

이번 뮤지컬 '삼국유사' 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스토리텔로서의 일연 스님을 재조명하고 오늘날 한류문화콘텐츠의 뿌리를 규명하고자 한다. 제작진은 창작 뮤지컬 '삼국유사' 를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군위군의 대표브랜드 공연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꼭 보고 싶은 '국민뮤지컬' 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연은 전석무료이며, 관람예약은 전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010-8263-3964

승무와 윤장대로 짓는 성찰 퍼포먼스

서울남산국악당 기획공연 '짓다'
크라운해태홀 12월 13~14일
이서윤 · 신승렬 콜라보레이션



서울남산국악당은 12월 13일(오후 8시)과 14일(오후 5시) 서울남산국악당 크라운해태홀에서 서울남산국악당 기획공연 시리즈 '남산컨템포러리-전통, 길을 묻다' 열두 번째 공연 이서윤×신승렬 '짓다' 를 공연한다.

이번 공연 '짓다' 는 승무의 움직임과 윤장대를 돌리는 행위를 모티프로 한 작품이다. 한복 디자이너이자 무형문화재 제15호 이매방류 승무 이수자인 이서윤과 무대미술가 신승렬이 꾸미는 이번 공연은 한국 전통춤인 승무에 담긴 정신과 미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예천 용문사 윤장대의 움직임에서 발견한 민중의 소망을 시각화한 작품이다.

이서윤과 신승렬이 가진 재료인 전통 한복, 춤, 무대미술이 승무와 윤장대로 압축된다. 승무는 전통 무용의 핵심을 모두 아우른 춤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승복을 입고 추기 때문에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춤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시대에 따라 민속무용 등으로 다양하게 변모하면서 민중들 사이에서 명맥을 이어온 우리 춤이다. 윤장대는 내부에 불경을 넣고 손잡이를 돌리면서 복을 기원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어려운 경전을 읽을 수 없었던 민중들도 쉽게 공덕을 쌓기 위해 만든 것이다.

승무와 윤장대 두 가지 모두 신분이 높은 사람들의 문화에서 일반 민중을 위한 문화로 가치를 전승시키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이러한 전통이 현대의 문화와 만날 수 있을까. '짓다' 는 빠르게 흘러가는 현실 속에서 자기 호흡으로 율동하는 승무와 자기 속도로 읽어가는 경전 윤장대를 통해 자신만의 호흡과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만든다.

동시대 예술로서 전통을 탐구하는 서울남산국악당 기획공연 시리즈 '남산컨템포러리-전통, 길을 묻다' 는 전통 뿐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협업을 통해 새로운 개념의 전통예술 콘텐츠 창작을 이어가고 있다. 전통의 세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자유로운 만남과 실험으로 전통과 현재, 전통과 미래가 만나는 과정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02)2661-0500.

박재완 기자

국립박물관 12월 '큐레이터와의 대화'

특별전 '가야본성-칼(劒)과 현絃' 등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매주 수요일 야간개장 시간(21:00까지)에 큐레이터의 상세한 전시품 해설과 관람객과의 질의응답으로 구성된 참여형 프로그램"큐레이터와의 대화"를 운영한다.

매주 수요일(18:00~18:30 / 19:00~19:30) 열리는 큐레이터와의 대화에서는 특별전 '가야본성-칼과 현(12.3~2020.3.1)' 의 전시 설명회가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말 탄 사람 모양 토기', '로만글라스와 용', '봉황이 새겨진 칼' 등을 비롯하여 국내외 가야의 주요 문화재 1,000여 점을 선보인다. 주변 세계와의 교역을 통해 성장한 고대국가의 면모를 살펴보고, 근래 발굴 성과를 토대로 새롭게 복원한 가야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다.

상설전시관에서는 '유리 문화재의 보존(12.4.)', '함평 초포리 유적으로 본 초기철기시대(12.11.)', '벽에 그린 세계(12.18.)' 등 다양한 시대와 장르의 전시품에 대한 설명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들을 수 있다.

관람객과 박물관의 소통 공간이기도 한 '큐레이터와의 대화' 는 별도의 예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20명 이상)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에 예약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02)2077-9000.

박재완 기자



전국 주요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동시 판매중!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04 무진향 031)470-3118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한국불교문인협회 주최 화성문화유산 학술대회

화성시 등 후원… 종합토론 진행

원효의 화쟁사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발표회가 열렸다.

한국불교문인협회(회장 김재엽)는 11월 2일 라비돌리조텔 대연회장에서 '제3회 화성문화유산과 한반도 평화통일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학술발표회는 화성시와 화성문화원에서 후원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이찬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의 '갈등, 대화, 평화'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의 '원효의 화쟁사상과 평화통일', 황진수 한성대 명예교수의 '한반도 통일 정책 환경과 대북정책 과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2부 종합토론에는 10명의 패널이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 패널로는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 고준환 경기대 명예교수, 한성자 동국대 연구교수, 오대혁 서울교대 외래교수, 김성순 한국전통문화대 강사, 우호철 前화성문화원장, 이재범 前 경기대 총장 등이 참여했다.

신성민 기자

실크로드 조사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열린다

한국미술사硏, 14일 國博서

중국 수교 전인 1989년 문명대, 조영록, 목정배 등은 조사단을 구성하고 35일 간 한국 최초 실크로드 조사를 떠났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12월 14일 오후 1시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제1강의실에서 실크로드 학술조사 30주년을 기념해 '골굴석굴과 실크로드 석굴'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장(동국대 명예교수)의 '석굴 문화 교류 연구 의의와 골굴석굴과 돈황 285굴의 석굴' 기조 강연으로 시작을 알린다.

주제 발표로는 손영문 문화재청 상임전문위원의 '병령사석굴과 골굴석굴', 고승희 중앙승가대 교수의 '베제크릭석굴과 골굴석굴', 심주완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행정관의 '키질석굴과 골굴석굴' 등이 발표된다.

신성민 기자

불교가 꿈꾸는 이상사회는

불교평론 20주년 특집호 '불교, 이상사회 꿈꾸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국가부터 삶 · 가정 · 행복까지
불교적 이상향 대해 고찰해
"수행으로 공동체 형성하고
세계 영향 주는 게 곧 평화"

종교나 철학사상에는 바라마지 않는 이상향이 존재한다.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기에 모든 사람들은 이상의 나라를 꿈꾼다. 그렇다면 불교가 꿈꾸는 이상사회는 무엇일까.

불교계 대표 학술계간지 〈불교평론〉은 창간 20주년 특집호로 발간된 통권 80호에서 불교가 꿈꾸는 이상사회의 모습을 고찰했다.

'불교, 이상사회를 꿈꾸다'를 특집으로 다룬 〈불교평론〉은 세계평화 · 국가 · 경제 · 노동 · 환경 · 성평등 · 가정 · 삶 등 15개 분야에서의 불교적 이상사회를 살폈다.

허우성 경희대 명예교수는 '불교가 꿈꾸는 세계평화'에서 "개인 수행이 완성돼 청정행의 공동체를 수립하고 그것이 국내외 정치까지 영향을 미치면 좋다"면서 "그것이 불교식 평화추구법"이라고 설명했다.

불교적 이상국가에 대해서는 윤세원 인천대 명예교수가 다뤘다. 이에 대해 윤 교수는 "불교도들이 건설하고자 했던 세속의 이상사회는 기본적으로 불교라는 종교의 최고 가치인 깨달음의 추구와 이에 파생되는 결과로서 자비실천이 순환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직된 사회구조와 윤리관이 확립된 사회"라며 "이는 오계가 보편적 윤리규범으로 실천되는 도덕적 국가사회를 말한다"고 주장했다.

붓다의 좋은 노동을 이야기한 유승무 교수의 글도 눈길을 끈다. 수행을 노동으로 인정받기 위한 붓다의 인정투쟁을 사례로든 유 교수는 "붓다의 실험은 좋은 노동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해서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면서 "사회의 각 세력이 각자의 이익추구를 배제하고 좋은 노동을 실현하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진다면 얼마든지 공생 · 협력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환경에 대해 고찰한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서둘러 살지 말 것'을 강조하면서 "불자에게 익숙한 연기 실상과 욕망의 무상함의 가치는 시대를 넘어 온갖 환경파괴와 생태 교란이 빚어지고 있는 인류세에 더욱 빛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불교평론〉 80호에는 △월인석보와 훈민정음의 상생관계(정진원) △민중의 삶 공유한 불교소설 두 편(유한근) △고형곤-철학의 세계에 다시 태어나는 선(신규탁) 등의 다양한 논단과 연재도 함께 수록됐다.

홍사성 〈불교평론〉 주간은 권두언에서 "불교가 주창하는 행복, 추구하는 방법은 무명에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역류의 길'"이라면서 "부처님이 모범을 보였던 것처럼 더 큰 원력으로 세상을 향해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어떻게 해야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질지를 설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교의 이상을 현실에서 구현하려는 원력은 한마디로 고난의 길"이라면서 "그 길을 함께 가려는 사람에게 〈불교평론〉은 기꺼이 친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천 용문사 대장전 · 윤장대 '국보' 승격

문화재청 2일 지정 공고 '공덕신앙' 내포된 윤장대 유일 경장건축 가치 높아


국보로 승격된 용문사 대장전 전경.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인 예천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가 국보로 승격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보물로 각각 지정돼 있는 보물 제145호 예천 용문사 대장전과 보물 제684호 윤장대를 통합해 한 건의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승격 예고했다"고 10월 1일 밝혔다.

현재까지 국보로 지정된 건축물은 총 24건으로, 예천 용문사 대장전이 국보로 승격되며 지난 2011년 '완주 화암사 극락전' 이후 8년 만에 다시 국보 건축물이 탄생하게 됐다.

국보로 승격 예고된 예천 용문사는 신라 경문왕대 두운선사가 당나라에서 돌아와 초암을 짓고 정진한데서부터 비롯됐으며, 후삼국 쟁탈기에 왕건과 관계를 맺으며 사찰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대장전과 윤장대는 고려 명종 3년(1173년) 국난이었던 김보당의 난을 극복하기 위해 조응 선사가 발원하고 조성한 것으로, 고대 건축물로는 매우 드물게 발원자와 건립시기, 건립목적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이후 대장전과 윤장대는 여러 차례 수리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최근 동(오른쪽) 윤장대에서 확인된 '천계오년(天啓午年, 1625)' 묵서명과 건축 양식으로 미뤄볼 때 17세기에 수리돼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대장전은 일반적으로 불교경전을 보관하는 전각을 의미하지만, 용문사 대장전은 윤장대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건립된 건물이라는 특징을 지녔다. 윤장대는 불교 경전을 보관하는 회전식 경장(經藏)이면서 '한번 돌리면 경전을 한번 읽는 것과 같다는 공덕신앙'을 상징하는 성보이기도 하다.

두 성보의 국보 승격 이유에 대해 문화재위원회는 "윤장대는 불교 경전신앙의 한 파생 형태로 동아시아에서도 그 사례가 흔치않고 국내 유일이라는 절대적 희소성과 상징성에서도 국보로 승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신성민 기자

미얀마 불교미술 모든 것 살핀다

부산博 13일 대강당서… 발굴 성과 발표도

미얀마 불교미술을 통해 미얀마의 문화와 역사를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부산박물관(관장 송의정)은 서강대 동아연구소(소장 강희정)와 공동으로 오는 12월 13일 오후 1시 박물관 대강당에서 '미얀마의 불교미술 특별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념으로 부산박물관이 개최한 국제교류전시회 '미얀마의 불교미술'과 연계해 미얀마의 전통과 문화를 짚어보고자 기획됐으며,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된 미얀마 각 지방과 왕조의 다채로운 불교미술과 특징, 역사적 의미를 살펴본다.

코이카(KOICA)와 한국문화재재단이 진행 중인 문화유산 ODA사업 중 미얀마 바간 파야뚠주 사원 발굴 조사 성과에 대한 발표도 이뤄질 예정이다.

학술대회에서는 강희정 서강대 교수가 '미얀마 불교조각의 기원과 전개' 발표를 시작으로 △바간 파야뚠주 사원 주변 발굴조사(전범환 · 한국문화재재단) △바간 시대 아난다 사원 연구(주경미 · 충남대) △바간 시대 불전미술(하정민 · 서울대) △미얀마 꼰바웅 왕조기 빠러바익(Parabaik)의 수미산도 재현과 특징(김미소 · 서강대) 등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논평자로는 양은경(부산대), 최정혜(부산근대역사관), 차윤정(불국사박물관), 고정은(제주대), 김미경(문화재청) 등이 참여한다.

부산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는 미얀마 불교미술의 전통을 확인하고 그 특수성과 독자성을 알아보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향후 미얀마 문화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문화재 수리 기술 역량 강화

문화재청, '문화재 수리' 법률 개정 · 공포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전통기술의 보존 · 육성을 위한 연구와 사업의 체계적 시행 근거 마련 등을 담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 12월 3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기존 법률은 문화재수리 기술인력의 자격과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위주로 규정해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전통기법과 재료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전통기술의 보존 · 육성을 위한 연구와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목재나 단청 안료 등 전통재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재료별 사용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연도별 수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특히, 목재 등 수급이 곤란한 재료는 별도 시설을 갖춰 비축할 수 있도록 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교양교육으로 종교교육 역할은

종교교육학회 등 13일 리베르타스 심포지엄

교양교육으로서 종교교육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종교교육학회와 연세대 교양교육연구소, 한국기독교교양학회는 공동으로 오는 12월 13일 오후 1시 백양누리 IBK기업은행홀에서 '교양으로서의 종교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3회 리베르타스 교양교육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불교 등 각 종교의 종교교육이 교양교육으로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한 논문들이 발표된다. 김은영 동국대 교수는 '불교계 종립대학의 종교교양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한다.

고시용 원광대 교수는 '교양교육으로서 원불교의 종교교육'을, 임민균 가톨릭대 교수는 '가톨릭 대학의 종교교양교육 현황과 과제'를, 우미리 협성대 교수는 '브리꼴레르적 기독인을 위한 기독교교양교육'을 각각 발표한다.

신성민 기자



박재완의 PhotoEssay



무정과 유정

삶에 어려움이 찾아들 듯
밤하늘에도 올 것이 온다
곳곳이 추운 저녁
말없이 빛을 내는 작은 우주
지나간 날처럼, 스쳐간 인연처럼
끝내 알 수 없는 거리에서
마음을 적시는 너는
무정인가 유정인가



삼중 스님의 남기고 싶은 인연

⑯ 고암 前 조계종 종정 스님

인욕과 자비 평생 실천한 참 수행자

조계종서 종정 스님이란 승가의 정신적 지주이며 존경받는 가장 큰 어른이다. 이렇게 대단한 자리인 종정을 한번도 어려운데 무려 세 번씩이나 역임한 고암 스님(1899~1988)은 인욕과 자비를 최우선으로 실천하며 겸손과 하심행을 한평생 일관한 참 수행자였다. 흘륭한 수행자적 풍모로 고암 스님은 1967년 3대 종정에 오른 이후 흔들리던 조계종단서 중심적인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흔히 불가에서는 자비보살이라는 말로 수행자를 높이지만, 고암 스님은 진정 무소유, 무집착, 무차별, 자비보살이라는 말에서 한치도 어긋남이 없는 분이셨다. 그것을 증명하는 고암 스님의 일화는 많다.

불가에서는 스님들끼리 만나면 삼배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존경심을 표한다. 특히 큰스님을 만나면 후배 스님들은 삼배의 큰 절을 올린다. 그런데 고암 종정 스님에게 삼배를 올릴라 치면 한 배만 받고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다.

고암 종정 스님이 몸을 일으키는 바람에 절을 하다만 나는 황당한 마음에서 질문한 적이 생각난다. "대한민국서 삼배를 종정 스님이 받지 않으시면 누구에게 삼배를 해야 합니까? 어서 앉으십시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자, 고암 종정 스님은 "그냥 악수하면 되지, 왜 한사코 사람을 불편하게 해요! 그냥 앉아요."라고 잘라 말했다.

나는 천진하고 겸손한 고암 종정 스님의 이러한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 더욱이 자신의 시자나 상좌라도 일단 스무 살이 넘으면 항상 존댓말을 쓰셨다. 고암 종정 스님을 친견한 뒤 나도 조금이나마 종정 스님을 닮아보겠다는 생각에서 행동에 옮겼다. 그때부터 나도 신도들이 삼배라도 할라치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든 존댓말을 쓰는 버릇도 그즈음에 생겼다.

종정 스님은 특히 자애심이 크셔서 불쌍한 신도들에게는 주머니에서 돈을 집히는 대로 세지 않고 손에 쥐어주셨다. 당시 지방 사찰서 종정인 고암 스님을 법회에 초청하면 법문비를 제법 쏠쏠히 드리는게 예의였다. 하지만 고암 스님은 절 분위기를 살펴보고는 가난하다는 생각이 들면 아무도 모르게 법당의 탁자 위에 법문비를 올려놓곤 오셨다. 건네는 방법도 정말로 조용히 마무리하는 하심의 모습을 보이셨다. 바로 이런 풍모가 종정 직을 세 번씩이나 연임할 수 있게 만든 밑바탕이 아니었나 싶다.

한번은 내가 고암 종정 스님께 걱정 스런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그리 잡히는 대로 베풀기만 하시면 나중에 병들고 거동도 불편하실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제는 노후대책이라도 조금씩은 하셔야 하지 않겠어요?"라고. 그러자 고암 스님은 "노후대책? 그럼 예금하라는 말이지요? 난 빚이 많아서 그 빚을 죽을 때까지 갚아야 돼요."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종정 스님께서 무슨 빚이 있으셔서 그러십니까?"라고 묻자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분명히 있지요. 오늘은 한가하니 내가 빚진 이야기를 좀 해줄께요. 내가 19살 때 강원도 금강산서 공부가 하고 싶어졌어요. 왜정때라 금강산에 입산하려면 나룻배로 큰 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당시 뱃삯이 10전이었죠. 그런데 주머니에는 탁발해서 모은 5전밖에 없었어요. 뱃사공한테 딱한 사정을 말했지만 결국 배에서 질질 끌려나왔지요. 그런데 배 안에서 어린애 젖을 물리던 젊은 아낙네가 스님 이리오세요. 제가 5전 보태 드릴 테니 어서 배에 타세요라고 하더군요. 내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 탓에 고맙다는 인사를 한마디도 못했어요. 입에서만 맴돌 뿐 배에서 내릴 때까지 젊은 아낙네의 이름과 주소 조차도 물어보지 못했죠. 그러니 한평생 그 빚을 갚으려면 죽을 때까지 갚아도 못 갚을 거에요."



일본 한국사찰을 함께 방문한 고암 前 조계종 종정 스님(사진 왼쪽서 세번째), 두번째는 삼중 스님.

조계종 종정 세 차례나 역임
무소유 · 무집착 · 무차별 실천

정말 그러셨다. 뱃삯 5전을 갚아야 한다는 마음에서 고암 종정 스님은 아마도 그 수백배나 되는 돈을 주변 가난한 이웃들에게 되갚았다. 자비로운 심성으로 불자들의 마음을 훔친 고암 스님이 유점사서 남긴 또다른 일화에서도 그 단면을 읽을 수 있었다.

유점사 500여 대중들이 겨울철을 나기 위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공양주로 나서야 하는 상황에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금강산의 겨울은 상상할 수 없는 매서운 추위여서 공양주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 그러자 금강산에 입산한 지 얼마 안된 고암 스님이 나섰다.

고행 길을 스스로 택한 것이다. 밤 9시에 무조건 자리에 눕고 다음날 새벽 3시에 눈을 뜨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통에 신발을 가지런히 정돈해서 벗어 놓았다. 그런 어느 날 대중공사를 끝내고 나오는 스님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누군가가 이 추운 날에 신발을 깨끗이 닦아 놓은 것이었다. 범인(?)을 색출하고자 다음날 새벽 창호지 틈 사이로 몇몇 스님들이 지켜보기로 했다. 현장서 스님들이 "그럼 그렇지. 고암 스님이 바로 범인이구나. 공양주살이도 힘들어서 죽을 판인데 이런 일까지 하면 어찌하려 해!" 그러자 고암 스님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스님들 허락을 받고서 해야 하는데 그만 허락 없이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오히려 용서를 빌었다.

고암 스님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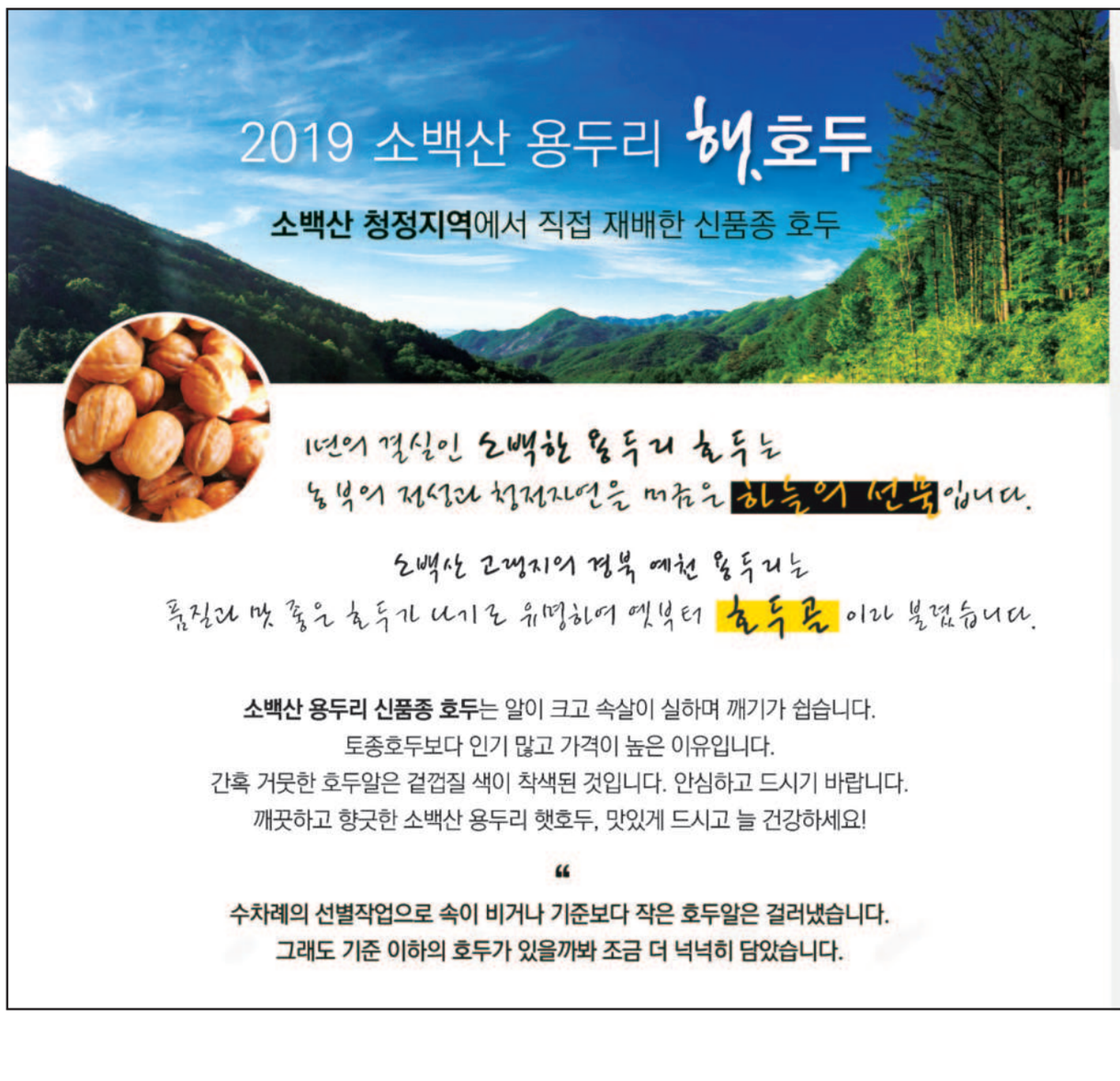
이국땅서 내가 힘들게 포교할때 어느 날엔가 고암 스님이 불쑥 보현사를 방문했다.

"아니? 어떻게 이 절까지 오셨습니까?" "왜 그래요? 내가 못 올 때라도 온 거에요?"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살피러 오신 것이다. 이렇게 고암 스님은 가장 가난한 절들을 찾아다니면서 잘 보살펴준 후에는 떠났다. 가난한 절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몸소 보살폈다. 이후에도 조계종 스님들의 탄원서를 받게 해주셔서 양동수 사형수와 불쌍한 할머니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었다. 나는 정말 고암 스님께 평생에 갚지 못할 큰 빚을 지었다.

고암 스님은 종정을 세 번이나 지내면서도 당신께서 후에 편히 지낼 사찰 하나도 점지해 두지 않았다. 종정이란 높은 자리서도 솔직하게 내면을 드러낸 고암 스님은 한마디로 천진스런 부처였다. 이런 높은 경지에 오르신 고암 스님은 당시 상좌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었다. 하와이에 있는 상좌를 돕기 위해 구순을 바라보는 고암 스님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다. 건축물이 들어서기 전이라 컨테이너 박스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면서까지 하와이 '대원사'를 건축하는 데 적극 도왔다. 그러던중 상좌와 함께 길을 나섰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 열반에 드셨다. 천진스런 자비심을 세상에다 몸소 보여주신 고암 스님은 내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있는 생불로 남을 것이다.

정리=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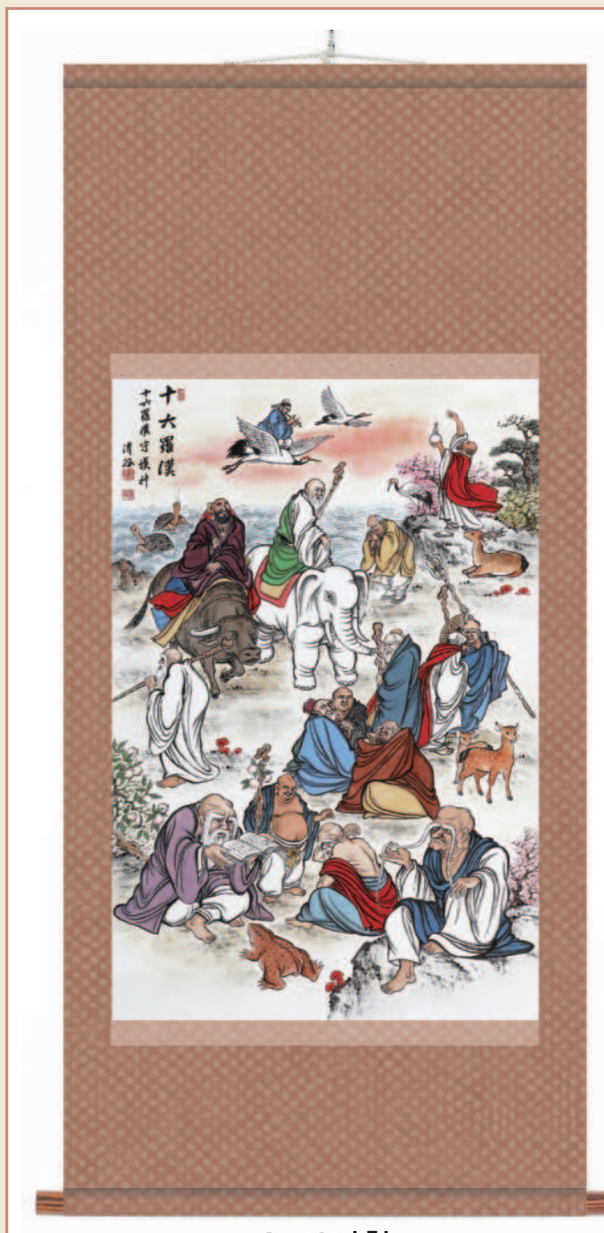


"복과 지혜를 구하십시요"

달마도와 포대화상도, 나한도, 동자승 등 수많은 불교그림들을 그려온 청곡 이한동 화백님의 작품을 집안에 모셔두면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가족의 건강과 어려운 일들을 순조롭게 풀어줄 것이며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1. 관세음보살



2. 16나한



3. 황룡나한 / 복호나한

길이 110㎝ 폭 54㎝ 가격 100,000원이며 두점이상 구입시 90,000원 나한도를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16나한이나 18나한도의 설명서를 드립니다.

一切衆生皆有佛性 (일체중생개유)

1. 불성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비와 방생은 불자라면 누구나 지녀야 할 기본성품이며 관세음보살께서 방생하는 모습은 사부대중 모두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2. 나한은 아라한의 준말이며 그 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적인 나한이다. 나한은 해탈과 신통력을 두루 통달하였고 더 이상 열반에 들지 않고 영생을 누리며 많은 권속나한들과 함께 세상의 여러곳에 거처하며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의 복전이 되어 줄 것이다.

3. 황룡나한과 북호나한은 16나한과 함께 18나한으로 그려지기도 하며 황금색룡을 타고 다니며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에게 복을 전해주는 황룡나한과 들어온 복을 지켜주고 삼재를 소멸하여 중생에게 수호신이 되어주는 복호나한 두분나한을 모셔두면 집안이 만사형통하여 하시는 사업과 자녀의 진학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수강생 모집

청곡 이한동 화백님의 그림을 배우고 싶으신 분은 현불샵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거리라고 하는 서울 인사동에 미술 교육관을 개설하여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주2일 월8일 동안 그림강의를 합니다. 수강료는 월10만원이며 그림 내용은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등을 지도하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TEL.02)2004-821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